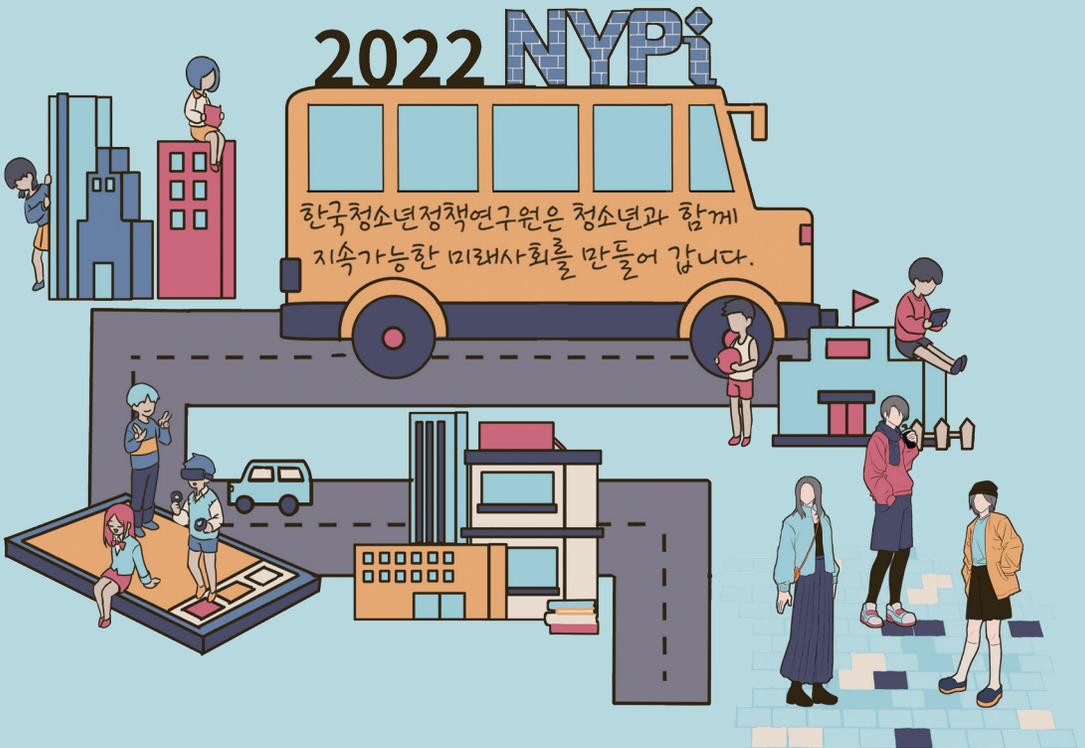


#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정책제안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역음





---

연구보고 22-일반03-02

---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정책제안자료집**

---



본 자료집은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 출품된 제안서를 모아 제작한 자료집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공식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정책제안자료집

연구보고 22-일반03-02

## 1. 최우수상 수상작

- 학교와 마을을 잇는 이중언어 배움터(가칭 글로벌 e-언어학교)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함께 성장해요! ..... 3
- 이주배경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잡학사전) ..... 10
- 중앙부처 차원의 이주배경 청소년 담당부서 “청소년성장지원과(가칭)” 신설 ..... 16

## 2. 우수상 수상작

- 언어교육거점센터와 학교 내 교과적응 한국어교육을 통한 한국어교육 시스템 개선방안 ..... 25
- 이주배경 청소년의 발자취(발전·자립·취업) ..... 32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정기 글로벌 취업박람회 개최 ..... 37

## 3. 장려상 수상작

- 이중언어를 활용한 이주배경 학생 학습 지원 - 이중언어 학습 포털 운영 ..... 49
- 이주배경청소년 시민성 함양 지원 체계 구축 방안 ..... 52

- 이주배경 후기청소년을 위한 진로취업지원프로그램  
제안(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 60
-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취업·비자 정책 제안 ..... 66
-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앱 ‘마음 덩거당’ ... 72
- 온라인 매체를 통해 학업 및 진로 교육에 대한 지역  
격차 줄이기 ..... 76

#### 4. 이중언어 및 한국어

- 통합적 이중언어교육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 83
- 이중언어 교육을 통한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기회 마련 ..... 90
- ‘우리들의 book, 콘서트 G!’ ..... 95
- 공교육 체계 내 소수자 모어 교육 지원 ..... 101
- 이중언어학교 설립 및 이중언어교실 개설 ..... 106
- 이중언어를 활용한 이주배경 학생 학습 지원  
-이중언어 사용가능한 다문화 전문교사 신설 ..... 108
- 부모나라 언어전공자 등록금 전액지원 ..... 110

#### 5. 진로 및 취업

- 다문화 청소년 기술직업교육학교 추가 설립 ..... 113
- 중도입국청소년 고등교육 및 취업지원 정책 방안 ..... 118
- 지역사회 다문화 청소년 대상 현직 전문가와  
함께하는 1:1 컨설팅 ..... 124
- 이주배경청소년의 고유한 정체성 발달을 돕는 개선된  
진로지원 프로그램 정책 ..... 128
- 이주배경청소년 취업디딤돌 ..... 134
- 희망 취업분야 선배 멘토링 서비스를 통한  
성공 진로 지원 ..... 138

#### 6. 기초학력제고

- 외국인/이주배경 아동 어린이집 학비 지원 ..... 143
- 더함(+) 멘토링 ..... 145

## 7. 심리사회적응

-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서조절을 위한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 ..... 149
- 중도입국청소년 정착지원 상담사 배치 ..... 155
-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지지 강화 ..... 159

## 8. 다문화 수용성

- ‘호안끼엠’에서 다문화와 다양성 체험을! ..... 167
- 2022년 #다감 캠페인 ..... 171
- The World in Korea, 우리가 미래다! ..... 175
-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원 ..... 176

## 9. 지원정책시스템 및 전달체계

-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한국사회 안정된 생활과 정착지원 ..... 183
- 이주배경청소년 가칭 ‘한국사회적응학교’ 위탁운영제도 의무화 ..... 186
- 이주배경 청소년 적응을 위한 ‘통합형 맞춤 지원’ ..... 191
- 스쿨 ON 프로젝트 ..... 195
-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지역사회 또래친구를! ..... 202
-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가칭)“글로벌아동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 204
- Together, Go!!! -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학업 및 진로 문제를 교육부(중·고등학교 관리)와 여가부(지역센터 관리)가 함께 풀어가는 연계 정책 제안 ..... 208
- 후기 이주배경청소년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211
-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 레인보우스쿨 등 우선 설치 ..... 213
- 이주배경(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을 위한 플랫폼 마련 ..... 217

## 10. 기타

-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구강건강 진료지원 사업 ..... 225
- 청소년지도사 국가시험 ‘이주배경청소년론’  
과목추가 제안 ..... 231
- 경로당 봉사활동을 통한 할머니와 동화책읽기 ..... 232
- 재외국민 청소년 지원 사업 실시 ..... 233

# ○———— 1. 최우수상 수상작



<b>정책 제안명</b>	학교와 마을을 잇는 이중언어 배움터(가칭 글로벌 e-언어학교)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함께 성장해요!
<b>정책 제안자</b>	정상하(신길초등학교), 김정아(시흥교육지원청)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 기관의 분절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공교육에 진입하는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기관별 프로그램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상 학생의 맞춤형 한국어 학습의 연속성 및 연계성이 부족함.</li> <li>■ (한국어 활용 수준의 한계) 학교에 편입학하는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통상 1~2년의 한국어 수학 기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한국어 소통 능력은 일정 수준 성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고급 수준의 한국어 구사 또는 교과 수업의 이해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li> <li>■ (교과 학습의 어려움) 해당 시기에 배워야 할 많은 교과 지식을 한국어로 수용하기에는 어렵고, 공교육 체제나 지역사회에서 모국어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한 상황임.</li> <li>■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 한국어 활용 능력과 지적 능력의 불균형은 인지부조화를 초래하여 학습결손으로 이어져 기초학력 부진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이중언어교육 지원 부분은 매우 협소함.</li> <li>■ (방과후 돌봄 부재) 한국어 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규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 수업, 돌봄 교실 참여에 제약이 따름. 방과후 돌봄 부재 상황은 학교와 지역의 문제, 더 나아가 사회의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li> <li>■ (언어정체성의 혼란)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모국어를 잊어가는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이 많아져 그들이 갖고 있는 '이중언어화자'라는 최대의 강점이 무색해지고 있음.</li> <li>■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공감 부족) 학령기 이전에 입국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인 경우 공교육 체제에서 모국어 읽기, 쓰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한 상황임. 학교 현장에서는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 여전히 지원 방향은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머물러 있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삶을 중심에 두고 이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할 시점임.</li> </ul> <p><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지원에 집중된 다문화교육정책) 2022년 교육부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초·중학교 적응을 위한 징검다리 프로그램, 맞춤형 한국어교육, 한국어 진단보정시스템 등 대부분 입국 초기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집중되어 있음.</li> </ul>	

- (소홀한 이중언어지원정책) 2022년 교육부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중 이중언어지원 정책은 전자책 형태의 이중언어 교재 보급 사업과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가 있음.
  - 전자책 이중언어 교재 보급 사업의 한계 : 학교에서 이중언어를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여 보급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보급된 교재의 활용 상황 점검이나 피드백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자녀를 지도할 여력을 갖춘 경우가 매우 드물어 질 높은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낮음.
  -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의 한계 : 입학 시기 및 개인의 능력, 조력자 여부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밀집 학교 등)의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참가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름.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내 다문화국제혁신학교는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이 전교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음. 한국 학생들과의 의사소통보다는 같은 모국 또래들과 모국어로 소통하는 비중이 크고, 방과 후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도 모국어에 노출된 환경이 지속되어 한국어 습득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임. 이처럼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밀집도에 따라 한국어 교육 격차가 발생하여 이중언어 인재 양성의 지역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이중언어 교육의 인프라 부족) 다문화교육 정책교(다문화중점학교, 예비학교, 특별학급 등)에서 대학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한 다문화 언어강사를 활용하거나 지역사회의 이중언어 보조강사를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여 이중언어교육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다문화언어강사나 이중언어 보조강사는 본국에서 교육학이나 언어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움.
- (지역 내 선이주민 대상으로 인적 자원 보강) 지역 내 선이주민 중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를 모집하여 인력풀을 보강할 수 있음. 이들은 소질과 능력에 따라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국어 기반 한국어 교육, 교과교육, 시민 교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돌봄 지원도 가능함. 마을의 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상생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의 균형 요구) 한국어 몰입 교육이 한국 생활 초기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모국어 교육과 균형을 이룰 때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들이 인지적·정서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긍정적인 자아정체성과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면서 지역사회의 시민으로서 동시에 글로벌 시민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꿈을 갖게 될 것임.
-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을 위한 미래 교육 준비) '출발선 평등'을 지향하는 현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에서 머무르지 않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포용교육·책임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이주/비이주의 구분 없이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 청소년이라면 누구에게나 학습 선택권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 및 학생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함.

### 3. 제안내용

학교와 마을을 잇는 이중언어 배움터(가칭 글로벌 e-언어학교)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함께 성장해요!

**‘글로벌 e-언어학교’란?**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지향하고(글로벌), 에듀(e)테크 기반의 미래 교육을 접목한  
이중언어 배움터

- (비전) 포용·책임 교육으로 글로벌 시민 역량을 키우는 지역기반 언어특화 마을학교
- (목표) 언어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을 발굴·지원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 능력의 부조화 문제 해결하여 학습력 및 학교생활적응력 강화  
이중언어를 활용한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통해 미래 글로벌 시민 양성
- (방침) 교육국제화특구 내 ‘글로벌 e-언어학교’ 시범 운영  
지역의 선이주민을 인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교육 및 돌봄 지원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고,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학생 개별 맞춤 학습 설계 지원  
방과후 활동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와 연계 운영하여 학습선택권 보장  
이중언어 특화 지역 인재 양성이 지역의 상생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 체제 마련

#### ■ (세부 운영 사항)

가. 대상 : 18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나. 내용 :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이중언어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글로벌 시민 양성 프로그램

#### 다. 세부 실행 방안

1) 설립 장소 :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내 폐교 또는 지자체 유관 기관 활용

2) 운영 주체 :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 3) 제안 사항

가) 포용과 책임 교육으로 ‘글로벌 e-언어학교’ 설립 운영의 기반을 다지다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 수립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구성 및 정례회 운영
-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토론회 운영)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 및 지역기반 글로벌 시민 교육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마을공동체 토론회 운영
- (프로그램 지원 기본 방향 수립) 언어 선택형 교과학습·수준별 한국어 교육, 글로벌 시민 교육을 온·오프라인 수업으로 운영, 모국어 상담실 운영
- (이중언어교재 연계 콘텐츠 개발) 기존의 개발 보급된 전자책 형태의 이중언어교재를 활용하여 국가별·학생의 이중언어 수준별 맞춤형 동영상 콘텐츠 개발하여 온라인 학습 자료로 활용

- (인적 물적 자원 확보)
  - 지역 내 유휴 공간
  - 지역의 전문 교원 확보
  -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외국어교육 전공자 또는 유학생을 온라인 튜터로 활용
  - 선이주한 대학생 및 성인 중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자를 모국어 교과학습 튜터로 활용
- (온·오프라인 학습 환경 조성)
  - 1인 1 스마트 기기 보급을 통한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 조성
  - 쌍방향 온라인 수업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조성
  - 대면 학습 및 프로젝트, 상담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 구성
-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 지자체의 통학 차량 운영을 통해 안전한 이동 환경 제공
  - 전염병에 대비한 소그룹 강의실 및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
  - (운영 시간) 학기 중 방과후 활동, 주말 활동, 방학 중 캠프형 활동 등
- 나) '글로벌 e-언어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의 이중언어 특화 인재로 성장하다
  - (프로그램 구성)
    -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이중언어 기반의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 입학 시기 및 이중언어 능력을 진단하여 맞춤형 교육과정 안내 및 선택권 부여
  - (프로그램 체계 및 학습 방법)
    - 분기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점제로 운영하여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인 학습 지원
    -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을 병행하여 운영 (예: 주중 온라인 쌍방향 + 주말 대면 수업/주중 대면 수업 + 주말 온라인 콘텐츠)
    - 개별 맞춤형 학습 설계 → 프로그램 운영 → 분기별 이중언어 능력 평가 → 맞춤형 피드백의 선순환 체제 운영
  - (프로그램 관리 및 학교 교육과의 연계 방안)
    - 개별 학생의 출결, 연수, 상담, 지역사회연계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는 LMS 운영
    -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연계 운영
  - (개설 과목 안)
    - 언어선택형 교과 학습 : 입학 후 2년 이내 모국어 병행 교과학습 권장
    - 한국어 초·중·고급반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TOPIK 자격증 취득반 운영
    - 글로벌 재능 키움반 : 그림책 번역 동아리, 모국어 그림책 동화 영상 제작, 이중언어 독서 논술, 이중언어 토의·토론, 지역사회 봉사동아리 등

입학 시기에 따른 선택형 프로그램 (안)

도구언어 \ 프로그램	교과학습	한국어 교육	글로벌 시민교육 (지역사회연계활동)
모국어 기반	진입형~적응형	진입형	진입형
한국어 기반	성장형	진입형~성장형	적응형~성장형

\* 진입형(입국 1년 이내) \*적응형(입국 후 1~2년) \*성장형(입국 2년 이후)

선택형 프로그램 구성 (안)

프로그램 도구언어	㉠ 교과학습		한국어 교육	글로벌 시민교육 (지역사회연계활동)
	초등	어휘반 독해반		
모국어 기반	초등	어휘반	초급~중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책 동아리</li> <li>상호문화놀이동아리</li> </ul>
		독해반		
	중등	어휘반	초급~고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토의·토론반</li> <li>그림책 영상제작반</li> </ul>
		독해반		
	고등	어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청소년자조모임</li> <li>공공기관 봉사동아리</li> </ul>	
		독해반		
한국어 기반	초등	어휘반	주제별회화 집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학생과 함께하는 예술·체육 동아리</li> </ul>
		독해반		
	중등	어휘반	㉠ TOPIK 자격증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학생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봉사동아리</li> <li>상호문화어울림동아리</li> </ul>
		독해반		
	고등	어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교육의회와 함께하는 정책자문단</li> <li>사회적협동조합 운영</li> </ul>	
		독해반		

\* ㉠은 온라인 비대면 수업(생방향, 콘텐츠 등)으로 운영 가능한 과목

- 다) '글로벌 e-언어학교'의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시민으로 함께 성장하다
- (이중언어 봉사단 운영)
    - 교육국제화특구 내 교육기관, 공공기관 대상으로 이중언어 봉사단 운영 : 이주배경 청소년과 이주배경 아동 간 멘토링, 공공기관 행사 지원 및 통역 봉사활동 등
    - 교외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
    - 활동 후 기관의 평가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진학·취업 무료 상담 바우처 등) 부여
  - (글로벌 시민 역량 강화)
    - 지역의 청소년교육의회와 MOU를 맺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대상 교육정책 제안 활성화
    - 지역사회 봉사 동아리 운영 (후이주한 모국 동포의 한국 생활 적응 지원, 지역 현안 등)
    - 프로그램 이수자를 '글로벌 시민교육' 보조 강사로 활용하여 인적 자원의 선순환 체제 마련
    - 상호문화 페스티벌 운영을 통한 지구 시민으로서의 다중 정체성 함양
  - (글로벌 시민증 발급)
    - '글로벌 e-언어학교' 프로그램 이수 및 이중언어 봉사단 활동, 글로벌 시민 역량 강화 교육을 수료한 학생 대상 발급
    - 지자체와 지역교육지원청 공동 주관 발급
    - 국제교류 활동, 국내외 교육 봉사, 지역사회 연계 취업 프로그램 참여 우선 기회 제공

라. 담당 부처별 역할

1) 교육부

- 글로벌 시민 역량의 개념 정의 및 측정 연구
-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교과 학습을 위한 교과서 및 교재 번역 규제 완화
-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공평한 학습 기회 및 공정한 평가 체제 마련  
(한국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마련)
- 기개발된 이중언어교재 동영상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문제 해결
-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의 다양한 운영안을 통해 이중언어 활용 능력 평가  
(퀴즈, 토의·토론, 노래, 동화구연, 그림책 번역 대회, 백일장 대회 등)

2) 시도교육청

-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안정적 지원체제 구축
-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을 위한 미래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으로서 지원
- 디지털 기반의 학생 주도적인 학습 지원을 위한 1인 1 스마트 기기 보급
- 민간 기업과 연계한 디지털 기반 A.I.활용 이중언어 교과 및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지역교육지원청

- 민관학 협의체 구성 및 정례회 운영을 통한 지역기반 교육생태계 구성
- 상생과 공존을 위한 지역기반 미래교육 포럼 운영
- '글로벌 e-언어학교'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한 공감대 형성
- 지역 내 우수 강사 및 현장 교원 인력풀 구성
- 안전한 교육환경 수시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 디지털 기기 대여 및 관리를 통한 온라인 학습의 기반 조성
- 수업 평가 및 강사의 수업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 관리

마. 참고 사항

- 1) (강사진 확보) 국내 대학 외국어교육 전공자, 국제협력을 통한 이중언어 가능자, 지역 내 한국어 강사, 한국어학급 운영 교사 등
- 2) (글로벌 시민증 발급) 분기별 프로그램의 참여도, 이수율, 평가 결과 및 지역 연계 실천적 글로벌 시민 역량을 종합하여 발급
- 3) (열린 언어 강좌로 일반학생 대상 확대 운영) 주말 또는 방학 중 캠프형 활동에 외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비이주 학생도 함께 참여하는 안 적극 검토

바. 유의점

1) (프로그램 운영 평가)

- 매년 프로그램 운영 평가를 통한 질 관리 필요
- 지자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이 함께 만들고 함께 실시하는 운영 평가 시스템 마련
- 프로그램의 적절성, 수요자 만족도, 강사의 수업 역량, 수업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항목 평가 하여 차후 연도 사업에 반영

#### 4. 기대효과

-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대상 미래교육의 비전과 방향성 수립
- 지역기반의 언어 특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수한 이중언어 인재 양성
- 지역과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습권 보장
- 지역의 이주민을 인적 자원으로 활용한 이중언어 인재 양성으로 지역 발전의 상생 효과 기대
- 이중언어를 기반으로 지역과 세계의 현안을 다루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시민 양성
- 평등선 출발에서 머무르지 않고 과정과 결과의 평등까지 지원하는 포용과 책임교육의 실현

<b>정책 제안명</b>	이주배경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알쓸신잡’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신기한 잡학사전)
<b>정책 제안자</b>	김효경(중앙대학교 사회학과)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청이 2020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간 혼인은 2019년 기준 24,721건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으며, 다문화 출생은 17,939명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지만, 전체 출생에 있어서 다문화 출생의 비중은 6.0%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통계에서 보이듯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가정은 체감뿐 아니라 수치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다문화 출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교육통계서비스(KESS)에서 발표한 통계에서는 2014년 기준 초등학생 1.8%, 중학생 0.7%, 고등학생 0.4%에 이르던 비율에 비해, 6년 후인 2020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의 4%, 중학생의 2%, 고등학생의 1%가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한국 사회의 전체 학생 수가 2019년 기준 1,411,027명이었던 것에 반해, 2021년 기준 1,299,965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다문화배경 학생은 2017년 기준 109,387명이었던 것에서 2019년 기준 137,225명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수치의 변화를 통해 미루어 보았을 때,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 다문화아동과 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중요하게, 그리고 점차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임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li> <li>■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이 이제는 20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한국의 국가 정책과 이론 연구에서 주목받았던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그리고 다문화 학생 담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주목은 부족했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유일한 실태조사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에서도 후기청소년과 청년들은 배제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매 3년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위 실태조사의 근거 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조사 및 지원 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아동·청소년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li> <li>■ 이주배경 청년들, 즉 이주 배경을 가진 후기 청소년들은 정책 바깥에 서 있는 존재들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들에 대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적게나마 존재하는 다문화 공약들도 결혼이주여성, 즉 한국 국적의 아이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대상들에게 치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있어서 이주배경 청년들은 ‘뚝 끊기는 느낌’이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청소년기에는 공교육 체제 아래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학습할 기회가 있었지만, 성인이 되면서 청약 통장을 만들고 자취방을 구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li> <li>■ 2021년 국가교육통계센터 자료에 따르면 이주배경 학생 수는 16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중·고등학교 중 초등학교가 전체 이주배경 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학생이 가장 많지만, 이 세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인 2024년부터는 이주배경 2세대 후기 청소년, 청년층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li> <li>■ 최근 청년 문제와 청년정책에 관한 논의들은 청년의 문제를 대부분 ‘일자리’ 문제로 환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성인 초기에 진입한 후기 청소년들이 다양화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후기 청소년들의</li> </ul>	

단순 일자리 문제를 넘어, 다차원적인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불안정에 주목해야 한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은 후기 청소년기와 더불어 청년기의 주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일 뿐 아니라,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기에 가족 형성이나 주거 독립과 같은 다른 과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2. 기존 정책과 한계점

- 관련된 정책 중,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MySeoul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다문화 정보(외국인 주민 필요 정보,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서울시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온라인 한국어 강의 안내, 프로그램 안내, 한국어 교육 정보), 행정정보(주택 임대료 지원, 생활 지원, 행정청 신고 업무, 법률상담, 국민건강보험 안내), 생활정보(안전정보, 기념일과 명절, 주한대사관, 유용한 전화번호 안내), 육아정보(출산지원, 육아지원, 교육정보 안내), 취업정보(서울시 취창업중점기관,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내일배움카드제, 구인·구직, 취업 및 교육정보), 어울림(한울타리, 공지사향, 서울의 정보, 지역사회모임 정보 제공)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급증에 따라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MySeoul은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 개발했다.
-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역별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주(8.5%), 전남(7.9%), 전북(7.7%) 순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MySeoul의 경우에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서울시 행정정보를 제공하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공지사향 및 채용정보 알림 등 수도권(서울) 중심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다. 서울시 내의 이주민 비율보다 비 서울권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의 비율이 더 높다는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기반으로, 비 서울권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 또한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출산 지원, 육아 지원, 자녀입학정보 등의 정보를 MySeoul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 항목들은 후기 청소년들이 성인기에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로 결정과 경험을 통해 삶에 대한 만족과 미래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민선, 김재훈, 고은영, 2022)의 결과와는 비교적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 집단처럼 묶어서 보는 것이 아닌, 각 연령층과 대상을 다양화해 이들의 욕구에 맞는 접근하고, 각 집단에 적절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MySeoul 애플리케이션의 이용 후기를 살펴보면, 삶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MySeoul 애플리케이션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수적 애플리케이션인 것은 맞으나, 보다 후기 청소년들에게 집중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 추가로 필요한 시점이다.

## 3. 제안내용

- 본 정책 제안의 대상은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들이자, 동시에 사회 진출을 하고자 하는 후기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까지 한국의 국가 정책과 이론 연구에서 주목받아온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그리고 다문화 학생 담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이주 배경 후기 청소년들이 이제는 20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렇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거의 유일한 실태조사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에서도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은 배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현재로서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를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청년)들의 실종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본 정책을 진행하기에 앞서 국가 단위의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 특히, 비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후기 청소년기부터 급증하는 진로, 노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또는 노동시장에 뛰어 들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는 모두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로부터 유추된 내용이며, 실제로 진학, 취업 등의 비중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어렵다. 비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만큼,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 배경 후기 청소년들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 모든 청소년들은 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들어서면서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체크카드, 입출금 통장을 처음 만들어보게 되고, 타 지역의 대학을 진학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자취를 시작하기도 한다.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사회초년생에게 사회는 가혹하고 어렵게 다가온다. 사회에 갓 나온, 미숙한 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에브리타임(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https://everytime.kr/>) 등에서 알음 알음 정보를 얻어서 비공식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다문화 배경 후기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 따라서 이주배경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알쓸신잡’(알아두면 쓸 데 있는 신기한 잡학사전, 이하 알쓸신잡)을 제안하고자 한다. ‘알쓸신잡’은 생활법령, 생활 정보, 커뮤니티 기능을 하며 다양한 정보들을 쉽고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자취방 구하는 방법, 학자금을 대출하는 방법, 상환하는 방법, 입출금 통장 만들기, 아르바이트 시 꼭 확인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법, 일자리 연계 등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고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한 곳에서, 그리고 보다 쉬운 표현들로 살펴볼 수 있게 만들고자 한다. 또한 본 애플리케이션은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당사자가 만들어 나가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체류자격도, 이주배경도 다른 이들의 목소리가 한 곳에 모이게 되면서 당사자들이 실생활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업데이트해나간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 애플리케이션들과의 차별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 지역 기준(행정): 이는 전국에 있는 모든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애플리케이션 내에 각 시도 별 지원사항, 전국 기반 지원사항 등 본인의 지역을 설정하는 대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구성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의 거주지를 경기도 고양시로 설정한다면, 한국에서 후기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정책들과 서비스를 가장 상단에 띄워주며, 하위로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정책과 서비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정책과 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지자체별 정책을 모아둠으로써 한눈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정보를 확인하기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생활정보: 또한 앞서 강조한 생활정보들을 이 섹션에서 제공하고자 한다. 주변 유학생들의 경우, 방을 구하고 계약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있어서도 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내용들을 적은 뒤 서명하게 하는 점주들과의 마찰을 목격한 적 있다. 그렇기에, 이주배경을 가진 후기 청소년들이 동등하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일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관련 있는 법령들을 정리해두고자 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의 주의사항,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곳, 금융과 관련된 절차 등 용어가 어렵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어가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섹션뿐만 아니라 모든 섹션에서는 다언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취업: 알쓸신잡의 '잡'은 '잡다한'의 초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job'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증가하는 이주배경을 가진 2세대들의 공통적이고, 가장 큰 고민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진로에 대한 고민이며, 이들의 부모를 만나서 물었을 때도 '한국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라는 질문을 종종 하고는 한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한국 사회로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과 취업 및 창업에 보다 높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싶지만, 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며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 잘 모른다는 이유 등을 들며 앞선 통계에서 보였던 전문직 일자리의 비중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알쓸신잡은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기에, 후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진로 고민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취업 섹션을 만들고자 한다. 이 섹션에서는 직업적성검사 등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들을 기반으로 온라인 진로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거주지 근처에 있는 유관 단체에 방문해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또한 잡코리아, 잡플래닛 등의 직업을 알아볼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다양한 사이트를 한눈에 확인하며 다언어로 번역해주는 기능을 제공해, 편리한 구인·구직을 도모하고자 한다.
- 소통: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정보를 얻고, 친구를 사귀는 곳은 오프라인이 아닌, 스마트폰과 온라인이 되었다. 최근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이 온라인(이하 오픈카톡, 오픈채팅)으로 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하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몰라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를 마음 편하게 털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온라인, 오프라인의 제약을 넘어서 친구가 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알쓸신잡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필수적으로 추가해야 하고자 한다.
- 학습: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들의 진학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공교육 탈락률이 비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보다는 높지만, 이 또한 점차 감소세에 있다. 이는 공교육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줄고 있으며,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들 또한 진학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느 학과가 있고, 뭘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대학을 갈지 말지 고민이에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다. 이는 한국형 입시에서 다문화 배경 후기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짐작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학습과 관련된 섹션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학습 세션은 '한국어 교육'으로 단일화되었던 기존의 학습 메커니즘과는 달리, 이들이 한국에서 진학하고 졸업을 하면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보다 다양하게 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사람 돕는 것을 좋아함', '아이들을 좋아함', '봉사를 좋아함' 등의 특정 키워드를 선택할 경우, 연관되는 학과와 직종으로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 '아동보육과' 등을 추천해주며 이는 자연스럽게 취업 섹션과 연계될 수 있다. 진학뿐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 진학에 큰 관심이 없는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직업교육 등을 통해 대학 입시로 획일화되어있던 기존의 학습 메커니즘에 대해 한 번 더 변화를 주고자 한다. 예를 들어, '제과제빵을 좋아함', '만드는 것을 좋아함' 등의 특정 키워드를 선택할 경우, 연관되는 자격증과 취득 과정, 인터넷 강의 등을 연계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MySeoul에서도 연계하고 있는 유명 인터넷 강의 플랫폼들과의 연계를 통해, 비 이주배경 학생들과의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해야 한다.

- '알쓸신잡'은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감수성 및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과정, 그리고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 단위의 조사 필요할 것이며, 후기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기 이후의 교육이 개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참여가 필요하다.

#### 4. 기대효과

- '알쓸신잡'은 우리의 동료 시민인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한국 사회로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공교육 체계 아래에서 도움을 받고, 보호받았던 청소년들은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제도 밖으로 내몰려왔다. 준비된 어른은 없다. 우리는 늘 공부하고, 도전하고 배워가며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들에게도 공부하고, 도전하고,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쓸신잡'은 이들의 한국 적응뿐만 아니라 건장한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로의 무조건적인 동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거주하고, 성장하는 것을 선택한 후기 청소년들에게 법적인 보호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을 보호하는 것은 함께 살아갈 동료 시민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똑 끊기는 듯한 지원을 체감하는 것은 비단 후기 청소년뿐만은 아니다. 레인보우 스쿨 교사 중 한 명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서 지원이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걱정이 되죠'. 이는 후기 청소년들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는 교사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이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후기 청소년이 공교육 체계에서 졸업하거나 이탈하기 전, '알쓸신잡'에 대해 홍보하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이용하는 기관에서의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문화 유관 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달리, 다문화 2세대의 다문화 유관 기관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등 자발적으로 기관을 방문하는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홍보를 진행한다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학습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알쓸신잡'을 통해 생활법령을 알게 되고,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생활 속의 경제, 취업준비 등을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드는 초기 비용을 진압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 5.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18.09.16). 다문화 20대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809161038011>
- 경향신문 (2021.09.04). 우리가 표로도 안 보이나요? 다문화정치는 지금.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09041159001#c2b>
- 교육통계서비스(KESS). <https://kess.kedi.re.kr/index>
- 김미영, 김향수 (2021). 만성질환을 지닌 청년의 일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환자 친화적 일터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2), 99-120.
- 김민선, 김재훈, 고은영 (2022). 다문화 청년들이 경험하는 성인기 진로 선택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35(1), 111-141.
- 김진희, 김자영, 권진희 (2021). 다문화배경 청년의 학습생활과 교육 요구에 대한 질적 분석. 평생 학습사회, 17(2), 61-88.
- 남재욱 (2021).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이행과정의 불평등 연구. 한국사회정책, 28(1), 133-160.
- 매일경제 (2021.10.12.). [다문화 학생 3% 시대] 따돌림·입학거부... 연필 놓는 아이들.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1/10/963384/>
- 윤형준 (2019). 다문화 2세대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수행에 대한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인문사회, 21, 10(6), 369-378.
- 윤성호 (2022). 다문화배경 청년에 관한 연구동향과 과제. 인문사회 21, 13(1), 2303-2316.
- 통계청.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21). <http://www.wmigrant.org/wp/>
-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b>정책 제안명</b>	중앙부처 차원의 이주배경 청소년 담당부서 “청소년성장지원과(가칭)” 신설		
<b>정책 제안자</b>	허승연(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b>1. 현황 및 문제점</b>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지속적 증가세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출생 다문화가족의 자녀 외 외국인 동포의 자녀,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탈북민의 자녀 및 제3국 출생 탈북민의 자녀, 유학생의 자녀, 방문취업 비자(H-2) 등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li> <l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시한 국내체류 외국인 아동·청소년은 통계수치 상 약 30만에 달하는데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미등록, 난민의 자녀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통계치를 예측할 수 있음</li> </ul>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			
(단위 : 명)			
구 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국내체류 외국인 아동·청소년
계	247,697	최소 2,604	295,123
법적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법적근거 미비
사회보호체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나센터	전달체계 부재
* 출처 : 양계민 외(2021).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 연구.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유형 중, 해외성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인 신분으로 모든 사회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자녀가 아닌 외국인 신분으로, 각종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서 보호 대상이 아님</li> <li>■ 건강, 교육, 보호, 참여 등 기본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위치</li> </ul> <input type="checkbox"/> 중도입국 외국인 아동·청소년으로서 한국 사회 내 생활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 신분 불안 얼마나 체류할지, 언제까지 체류할지, 막막한 현실 속에서 체류 기간의 정함이 있는 불안정한 비자로 인해 심리적 긴장감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음</li> <li>■ 언어·사회·문화 부적응 :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습득이 1순위로 나타남(실태조사 결과) 한국어가 가능해야 공교육 진입, 학교생활 적응, 진로 및 진학 문제 해결방안 모색,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문화차이 적응이 가능</li> </ul>			

■ 성장기 과장 상 발달과업 미달성

- 생애주기 중 가장 큰 신체적·심리적 성장기인 청소년기에 낮은 나라, 낮은 사람, 낮은 언어와 문화로 인한 긴장과 불안, 우울감 경험 → 무기력, 미래 계획(꿈) 부재
- 맞춤형 종합 지원 절실
- 심리·정서 안정화를 위한 상담지원 체계(이주배경 전문 사회복지사, 상담사, 상담전문 통·번역가 등) 수립 필요
- 교육 공백 발생을 최소화할 교육권 및 학습권 보장 절실 → 외국인으로서 진입 장벽 높음
- 고 연령대 청년기로 접어드는 청소년 대상 자립 및 진로 관련 다각적인 전문 지원 필요

■ 경제적 어려움, 양육자의 지지체계 미흡

- 고 연령대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들 경제 상황 및 관심과 지원 미흡, 경제적 곤란 발생
- 최소한의 용돈벌이를 위한 아르바이트도 체류자격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우려

- 인권침해, 학대나 폭력에 노출 우려 및 노출 이후 지원체계 부족
- 이방인으로서 소외와 거부감 경험, 내국인들의 따가운 시선 등으로 인한 침해 사례 발생  
※ 국내 유입 외국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약 80%는 F-1(방문 동거), F-2(거주), F-3(동반) 등 거주 비자로 한국에 2년 이상 체류 가능하며, 동포 자녀의 경우 25세까지 체류 연장 가능하여 입국 당시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5년~10년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한, 높은 정주 가능성을 가진 “예비 한국인” 그룹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시기의 다양한 발달과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성인의 나이로 가고 있는 상황

## 2. 기존 정책과 한계점

□ 전국 모든 지자체 및 광역시·군에서 운영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가족센터」 운영

■ 주요 사업의 대상 : 국내로 이주하여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 국내출생의 한국인인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만 사업실행  
※ 해외 성장 중도 입국 외국인 청소년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

□ 여성가족부 산하 「이주배경 청소년지원 재단 및 무지개청소년센터」 운영

■ 직접사업 수행이 아닌 전국 단위 공모사업을 통한 간접사업 수행(위탁 형태)

- 레인보우스쿨(직접사업)  
: 전국의 20여 개 지자체에 한국어 교육(일반형)과 진로 한국어 교육사업 수행 및 관리
- 사회적응 프로그램(직접사업) : 탈북청소년 대상 1박2일 비교문화 체험학습
- 그 밖의 사업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간접사업 수행 형태  
: 심리정서(상담환경 조성, 상담통역사지원, 심리사회적응검사지 개발 등) 인식 개선(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다가감”), 연수(이주배경 청소년 전문 인력 양성) 연구 개발(실태조사 등 관련 조사연구)

☞ 이주배경 유형별 교육, 심리·정서, 자립 등 종합적, 체계적 사업 수행 한계

□ 여성가족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자원 연계사업」 시범 운영 중 [2020년~현재]

■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와 경남 김해시에서 지역자원 연계 맞춤형 지원사업 실시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직면하는 교육, 노동, 복지 등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협업과 지역 내 유관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성장기 발달과업 수행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능을 가진 조직체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며, 그다음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됨.

□ 경기도 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전문기관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단 2곳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종합 서비스 지원하며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한 교육, 심리·정서, 자립역량 강화 사업 수행

- 맞춤형 교육사업 : 위탁형 대안학교, 경기도형 권역별 예비학교, 학교 밖 청소년 한국어 교육, 1:1 맞춤형 한국어 멘토링 사업 등 수행
- 심리 안정화 사업 : 청소년 및 가족 대상 전문상담사 1:1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문화 여가 체육활동, 문화예술단 운영, 비다문화청소년 통합동아리 활동 등
- 자립역량 강화 사업 : 후기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TOPIK반 운영, 전문상담사 1:1 고등교육 진학 및 진로 컨설팅 상담, 직업상담 및 취업 연계, 지역사회 내 인턴십 활동 등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사업 : 통합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 내 다양한 인프라 시설과 인적·물적 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체계 구축,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 홍보 및 인식개선 등

경기도 내 이주배경 청소년 전문 시설

시 설 명	지역	운영형태	주요사업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수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정</li> <li>• 민간 위탁</li> </ul>	종합정보 제공 및 영역별 One-Stop 서비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안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내 조항 삽입</li> <li>• 민간 위탁</li> </ul>	

※ 지역별 환경과 특성에 따라 사업의 운영방식 및 형태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국에서 단 2개 지역만 운영되어 서비스가 필요한 기타 지역에서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로의 접근 불가  
: 실제로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는 경기도 평택, 화성, 오산, 시흥, 용인, 군포와 충남 당진, 인천시, 서울시 등 거리가 먼 지역에서도 이용

☞ 법적 근거를 가진 중앙정부 - 광역시·도 - 지방자치단체를 거친 전달체계가 아니므로 인력 운영, 예산 배분, 운영 지침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운영상 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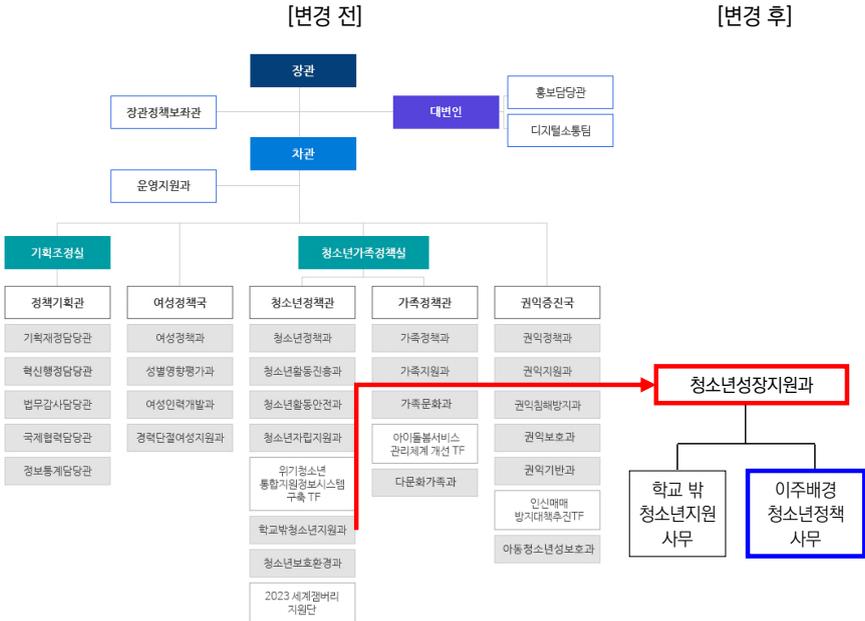
☞ 조례에 의해 운영지원을 받는 시설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의존도가 높아 매년 지자체의 예산 운영 상황에 예민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시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지방에서 대신해 주고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공격성 발언도 감수

### 3. 제안내용

□ 공공조직 내 담당 부서 신설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전담 부서 신설

- 현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주요 업무 내용은 내국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 관련 업무이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는 무지개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이주배경청소년 지역자원 연계 시범사업 2가지만 해당됨.
- 인력 및 예산이 극소량으로 향후 지속 증가세 전망에 비해 대비체계가 매우 미흡



☞ 윤석열 정부 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인해 "보건복지부"나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이민청" 산하 부서 신설도 함께 고민 필요

■ 담당부서 역할 및 기능

-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및 제도 실행
  -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의 자녀 대상 서비스 실행을 위한 시설환경 조성, 인력 및 예산 확대 등 전면적 조직개편,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약계층에 한해 사회보장 범위 선정 및 지원체계 명확화, 서비스 이력 관리를 통한 맞춤형 핀셋 서비스 실행
  - 장기거주 외국인 신분의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지원 기준 및 원칙 마련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거버넌스 구축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2020년 이주배경청소년지원협약<sup>1)</sup> 논의 결과]
  -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규정
    -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있어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기
  - 재단 및 지역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센터)에서 중앙정부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인적 성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제2항과 제3항의 신설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의 체계를 갖추어 중앙과 지역센터 간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효율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체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2012년)	개정안(2020년)
<p><b>제5장 위기청소년지원</b>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적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p> <p>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p>	<p><b>제5장 위기청소년지원</b>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p> <p>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광역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p> <p>2. 그 밖에 사회적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 광역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평가하여야 한다.</p>
<p><b>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b>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기관 설치운영)</b></p> <p>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광역시·도지사·지방자치단체 장은 제18조에 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기관은 이주배경 청소년에 관한 각종 연구 및 실태조사, 사회서비스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p> <p><b>제30조의2(이주배경청소년중앙지원단의 설립)</b></p> <p>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사회 적응 및 위기상황에 처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중앙지원단을 설립한다.</p> <p>② 이주배경청소년중앙지원단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이주배경청소년중앙지원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1) 2018년,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시글로벌발성소년드림센터, 안산글로벌발성소년센터, 전국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 지원을 하는 3개의 시설이 모여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올바른 미래세대로의 성장을 돕고자 발족한 단체

현행(2012년)	개정안(2020년)
	<p>④ 이주배경청소년중앙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한 실태조사 등의 연구사업 및 자료발간</li> <li>2. 이주배경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통계 등의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li> <li>3.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li> <li>4.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시설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li> <li>5.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시설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li> <li>6. 제 30조의3에 따른 지역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li> <li>7.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주배경청소년중앙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⑥ 이 법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중앙지원단이 아닌 자는 이주배경청소년중앙지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제30조의3(이주배경청소년센터의 설치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내 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li> <li>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주배경청소년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적정 공급서비스, 대상 청소년 수 등에 맞는 시설환경, 인력, 운영기준을 두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li> <li>③ 제1항과 관련된 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운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li> <li>④ 지역센터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li> <li>⑤ 이주배경청소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안정화를 위한 사업</li> <li>2.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지원 및 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업</li> <li>3.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li> <li>4. 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사업</li> <li>5.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 지역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li> </ol> </li> </ol>
<h4>4. 기대효과</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국내출생 다문화가족의 자녀 외 보호받아야 할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 청소년정책팀 소관의 다양한 업무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개정 및 법에 따른 정책구현</li> </ul> </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운영방침과 계획수립에 의해 체계적 전달체계 설립 및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초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정보 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가능</li> <li>■ 공교육 진급 및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위한 한국사회·문화 이해 등 각종 활동 참여</li> <li>■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호권, 의료권, 참여권 등 보장</li> </ul> </li> </ul>	

□ 단위별 역할 수행에 따른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

중앙재단 및 광역단위 전달체계	기초단위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 청소년 유형별 실태조사 및 정기적 통계현황 조사</li> <li>• 욕구조사 및 각종 연구사업 수행</li> <li>•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교육 콘텐츠 및 교재, 매뉴얼 개발·보급</li> <li>• 분야별 전문가 양성 : 한국어 교사, 상담사, 통·번역사, 다문화 전문 사회복지사 등</li> <li>•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정기 보수교육 등) 실행</li> <li>•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수립 및 실행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뉴얼 및 운영지침에 따른 교육, 심리·정서, 자립,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실행</li> <li>• 이용자 및 보호자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li> <li>• 사회복지사 및 분야별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li> <li>• 지역사회 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지속적 운영</li> </ul>

**5. 참고문헌**

박해옥, 윤영근 (2016).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통합정책 연구: 한국과 독일의 사례 비교 (연구보고서 2016-03).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양계민 외 (2020).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 기회 격차 해소방안 연구: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협동연구총서 20-06-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오민수, 박예은 (2020). 경기도 외국인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 2020-21). 수원: 경기복지재단.

유민이, 이혜경 (2019). 분권의 시각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 현황 (연구보고서 2019-11). 서울: 이민정책연구원.

이현우, 이용환, 박충훈, 송상훈, 라휘문, 손병덕, 손주희, 김진덕, 장현경, 가선영 (2020).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 (정책연구 2020-68). 수원: 경기연구원.

## ○———— 2. 우수상 수상작



<b>정책 제안명</b>	언어교육거점센터와 학교 내 교과적응 한국어교육을 통한 한국어교육 시스템 개선방안
---------------	--

<b>정책 제안자</b>	이인원(안산원곡초등학교 교사)
---------------	------------------

### 1. 현황 및 문제점

**정책 제안의 이유:** 출산인구감소로 국내출생 학령기의 학생들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배경 학생의 증가는 이제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 되었고, 일부 시·도는 다문화 인구 5% 이상의 다문화 지역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현장의 필요 따라 2012년 한국어 교육과정의 고시되었고, 다문화정책학교 사업 중 한국어(특별)학급이라는 사업으로 공교육 내에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언어 소통의 어려움'은 한국 사회 부적응과 공교육 중단으로 이어지고 가정과의 원활한 교육연계도 이어지고 있으며 KSL 한국어교육과정이 바탕이 된 Cummins의 언어습득이론에서도 학습적인 언어의 발달을 최소 6~8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어학급 과정은 훨씬 제한적인 관계로 한국어 부족은 기초학력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다문화학생 고밀집 지역에서 고민되었던 내용들과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내어볼까 한다.

#### 1)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다문화학생 증가



[그림 1] 다문화가정학생 증가추이, 2012~2021

한국의 전체 학생은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중등(각종학교 포함) 다문화 학생 수는 160,056명으로 전년(147,378명) 대비 12,678명(8.6% ↑) 증가하여, 2012년(46,954명) 조사 시행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초등학교는 111,371명으로 3,677명(3.4% ↑), 중학교는 33,950명으로 7,177명(26.8% ↑), 고등학교는 14,307명으로

1,829명(14.7% ↑) 증가하였고, 각종학교 428명으로 5명(1.2% ↓) 감소하였다. 초·중등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은 3.0%로 전년(2.8%) 대비 0.2%p 상승하였다.

#### 2) 다문화학생의 한국 교육시스템 및 사회 부적응에 대한 문제와 원인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 의하면 2018년 전체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0.94%인 것에 비해 다문화가정 학생은 1.03%로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다문화가정학생의 학교 급별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0.87%, 중학교 1.34%, 고등학교 1.91%로 삼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다. 《중도 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의 설문조사(배상률, 2016)<sup>1)</sup>에 따르면 비재학중인 중도 입국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주된 요인으로 ‘한국어 실력의 부족’이라는 응답(24.6%)이 가장 높았고, 근로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26%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곤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진로·진학 관련해 응답자 중 16.3%로는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며 주된 이유로 ‘한국어가 부족해서(40%)’를 꼽았다. 이는 중도 입국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및 학교생활과 한국 사회 적응에 있어서 한국어 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어려움은 많은 연구에서 드러난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국 사회와 학교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소통의 문제와 학습력부진, 정체성 혼란 등으로 요약된다(권순희, 2007; 원진숙, 2008; 조영달 외 2006).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의 중심에는 언어의 문제가 깊이 개입되어있다. 언어 문제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교과 학습의 도구로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로서 더 나아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원진숙, 2009). 다문화가정 부모의 경우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주로 어머니(김태영, 2014; 황해영, 이미정, 2015)라고 말한다. 그런데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의 자녀는 일상생활에서 한국어의 노출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부모로부터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처럼 한국어 사용이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 밑에서 나고 자란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한국의 주류 계층이 쓰는 언어를 미숙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 적응이 어렵고 이러한 부적응은 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서 점점 멀어져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원진숙 외, 2010).

### 3)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시도하는 교사의 어려움

입국 초기 외국인가정 학생을 교육하는 초등학교 교사는 학습지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첫째, 교사는 학생에게 수업을 이해시키는 것에 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은 학생의 한국어 능력 부족에 있었으며, 특히 국어, 수학, 사회 교과와 수업이 예체능 교과의 수업보다 어려웠고, 학생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이야기하였다. 둘째, 교사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생이 학습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학습 결손이 발생하고 누적되어 심각한 기초학력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단계적 학습이 중요한 수학 과목에서의 학습 결손은 교사들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셋째, 교사들은 학생평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평가 문항을 이해시키는 것, 알맞은 답을 한글로 쓰도록 하는 것, 모두 어려움이 있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가의 난이도가 커지면서 고학년 학생들은 평가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넷째, 학습지도에 관해서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체로 학부모들도 한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어 능력이 학생과 비슷하게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사가 학부모에게 요청하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섯째, 학습지도에 시간과 노력이 배로 들어가는 어려움이

1) 배상률(2016). 중도 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 16-R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있었다. 기본적으로 수업을 이해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기 위해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지도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 2. 기존 정책과 한계점

- 현재 한국어교육 시스템(교육부, 2022 다문화정책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구분	직영형	위탁형
교과운영	복합 (일반교과 + 한국어, 한국문화)	
학생생성	한국어학급(일반학급)	한국어학급(원적교)
학력인정	인정	인정

※ (센터형) 학력인정 기관은 아니나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위한 교육시설로 인정받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 1) KSL 교육과정 시수 운영 부족

[표 4] 내용 체제 “교육 영역” 변경 (교육과학기술부, 2017b:2)

한국어 교육과정(구)	➔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신)
생활 한국어		생활 한국어
학습 한국어		학습 도구 한국어
문화 의식과 제도		교과 적용 한국어
		문화

- 2012년 한국어 교육과정에 기반한 표준한국어 1, 2권 제작  
→ 2017년 한국어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표준한국어 1, 2, 3, 4권 및 학년군별 학습 도구 교재 제작(교재량 증가로 선택차시가 많아짐)
- 2) 한국어 학급 담당교사의 전문적 역량의 한계
  - 한국어 교육은 외국어로서 한국어의 접근방식과 이해가 필요하나 현재 교육대학 교육과정에서는 필수교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직에 있는 교사들 또한 모국어인 한국어의 교육 방법에 대한 이해가 낮은 편임.
  - 일정 기간 정해진 교사의 순환근무로 인해 업무의 지속성이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경이며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다문화교육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업무량이 많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음.
- 3) 한국어 학급 과정 수료 후 기능별 한국어 학습 결과(사례, 2021년 경기도 내 A초등학교)
  - 한국어 온라인·진단 보정시스템의 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반 학급 복귀를 위한 한글 연한(2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언어기능별 성취가 통과급수인 4급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다문화학생 고밀집 학교일수록 학교 밖에서의 한국어 노출 빈도가 낮아 한국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경우는 흔하게 볼 수 있으며 한국어를 하지 않아도 일상

생활에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나, 학습활동에서는 한국어 실력이 크게 작용하여 기초학력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순	소속	이름	평가결과(1분기)				평가결과(2분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환급연한
1	5-1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급	22.04.19.
2	5-1		1급	2급	2급	1급					21.11.05.*
3	5-1		1급	2급	2급	1급					21.09.17.
4	5-2		1급	1급	1급						23.02.28
5	5-2		3급	4급	4급	2급					21.06.15.*
6	5-2		X	X	X	X					22.07.07.
7	5-3		1급	2급	2급	1급		1급	2급	1급	21.08.17.*
8	5-3		2급	4급	4급	2급					21.10.25.*
9	5-3		1급	2급	2급	1급					22.01.20.*
10	5-3		2급	2급	2급	1급	2급	2급	2급	2급	22.04.19.
11	5-3		3급	4급	4급	3급					21.05.04.*
12	5-4										23.02.28
13	5-4		1급	1급	1급						22.06.04
14	5-4		2급	4급	4급	2급					21.11.10.*
15	5-4		학급적용기								21.05.05.*
16	5-4		1급	2급	1급	1급					21.09.24.
17	5-5		4급	4급	4급	3급					21.10.25.*
18	5-5		X	X	X	X					21.09.18.
19	5-5		2급	4급	4급	2급					22.06.19.

### 3. 제안내용

- 한국어 구사 능력과 목적에 따른 거점형 한국어(언어) 교육시스템

#### 거점형 한국어(언어)교육 센터

- 교육대상별 따른 각 기관별 통합 및 협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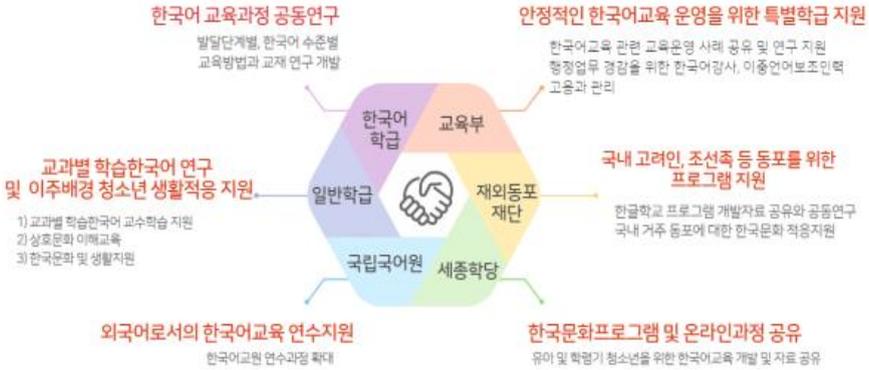


프로그램명	세부운영계획	비고
이주배경청소년 기초한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한국어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교육</li> <li>- 운영방법: 국내에 입국하며 비자 유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학령기 청소년이 거점형 한국어교육센터를 통해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KSL 2급)을 성취한 후에 일반 학교로 진학하도록 함.</li> <li>- 교육형태: 3개월 몰입형</li> <li>- 기대효과: 기초 한국어교육의 내실화와 효율적 운영,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무성 강조 및 한국 생활 안정적인 정착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과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행정 전문인력배치 (교육지원청 지원)</li> <li>-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셔틀 버스 운영(자차체지원)</li> </ul>
학령기 청소년 이중언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지역의 다문화적 장점을 살린 이중언어교육 확장</li> <li>- 운영방법: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지역 원어민 인력을 활용한 언어교육 프로그램 운영</li> <li>- 교육형태: 분기별, 방학 중 캠프 운영</li> <li>- 기대효과: 원어민을 활용한 언어교육으로 다문화/비다문화 학생들에게 언어역량의 함양을 도모하며 다문화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점으로 전환. 유아기에 입국한 이주배경 학생의 모국어 유지와 이중언어 능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어민을 활용한 이중언어교육과정 개발</li> </ul>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한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li> <li>- 운영방법: 지자체에 혼인신고 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연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실시, 이중언어 지원 및 상담을 위한 인력풀 양성 과정 연계</li> <li>- 교육형태: 분기별, 통번역가 양성 전문과정 운영</li> <li>- 기대효과: 한국생활 적응 및 이중언어 보조 인력풀 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 여성가족부</li> </ul>
외국인근로자 기초한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교육</li> <li>- 운영방법: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운영(출입국 신고 시, 한국어교육 기관 연계)</li> <li>학령기에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공교육 진입과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 연수 의무 이수</li> <li>- 교육형태: 야간 또는 주말반 운영</li> <li>- 기대효과: 한국어교육을 통한 한국 생활 적응 지원, 학령기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경우 한국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와 자녀 교육에 대한 협력적 관계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 노동부</li> <li>- 출입국 신고 시, 학령기 자녀의 유무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연계</li> <li>- 학부모연수: 교육지원청</li> </ul>

■ 다문화학생 고밀집교 교원의 한국어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명	세부운영계획	비고
(한국어특별학급) 의사소통 한국어 중급과정 및 교과적응 한국어교육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교과 학습을 위한 교과적응 한국어교육 역량 강화</li> <li>- 운영방법: 한국어교육 관련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예시) KSL 한국어교육 현황 / 한국어교육과정 사례 나눔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이해 /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이해 한국어 가능교수 방안 / 의사소통능력 중심의 KSL교수실제</li> <li>- 교육형태: 30시간 이상</li> <li>- 기대효과: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및 교원역량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 교육지원청 및 국립국어원</li> </ul>
(일반학급) 교과별 학습한국어지도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교과 학습을 위한 교과별 학습 한국어교육 역량 강화</li> <li>- 운영방법: 한국어교육 관련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예시)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이해 / 한국어 교재의 이해 사고도구어를 활용한 한국어 문식력 향상 방법 내용 중심 교수법에 기반한 학습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li> <li>- 교육형태: 15시간 이상(온라인/오프라인)</li> <li>- 기대효과: 한국어교육에 대한 특별학급 의존도 완화, 이주배경 청소년 수준에 맞는 교과학습 프로그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 교육지원청 및 국립국어원</li> </ul>

■ 국내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의 협력과 자료개발 공유



■ 안정적인 정책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정책운영 연도	세부운영계획
1년차	전국 시·도 내 이주배경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선도 운영 - 여성가족부, 외교부, 노동부, 교육부 등 각 기관의 협력적 협조체계 구축 - 거점센터 설립 이전, 지역 언어교육기관(경기도안산, 서울지역 내 영어마을)을 활용한 시범적 운영 - 교육부 지정 교육국제화특구 내 다문화 고밀집 지역 중심의 현장 요구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참여 - 한국어교육 관련 고등교육기관 연계 학습 한국어 관련 교육자료 연구 및 교원역량강화 지원프로그램 개발
2년차~	선도 운영 결과 공유와 대상 지역 확대 - 각 기관별 협력 구축의 성과 및 개선점 도출 - 학교급별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적응 프로그램 개발과 성과 공유 - 지자체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언어교육 거점센터 설립

4. 기대효과

-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적극적인 한국어교육을 통한 한국문화적응 및 공교육 내 학업준단을 감소 기대
- 언어거점센터를 통한 학생과 학부모의 기초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과 학부모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이 안정적인 학교생활 및 학부모 학교 참여 기대
- 언어의 다양성을 지역사회의 강점으로 살려 비(非)다문화학생과 다문화학생의 세계시민적 언어역량 강화

## 5. 참고문헌

- 교육부 (2021). 2021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 교육부 (2022). 2022 교육부 다문화정책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 권순희 (2007).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상담 지도 사례. 국어교육학연구, 29, 127-174.
- 김경림 (2022). KSL 한국어교사의 소진연구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교사의 내러티브. 한국외대 한  
국어교육 석사학위논문.
- 김상주 (2020).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다문화교육전  
공 석사학위논문.
- 김정수 (2021). 입국 초기 외국인가정 학생을 교육하는 초등교사가 겪는 경험 분석. 경인교대 교  
육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태영 (2014). 한국에서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자녀양육 및 교육 인식에 대한 비교연  
구. 열린부모교육연구, 6(2), 55-70.
- 배상률 (2016). 중도 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 16-R04). 세종: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
- 원진숙 (2008). 다문화 시대의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2, 269-303.
- 원진숙 (2009).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언어 교육 프로그램. 한국초등국어교육, 40,  
157-188.
- 원진숙, 김정원, 이인재, 남호엽, 박상철, 김광수, 류재만 (2010). 글로벌시대의 다문화교육. 서울:  
(주)사회평론.
- 이유인 (2018). 유럽의 이주노동자 대상 사회통합정책.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INK) 제26차 추계학  
술대회 발표자료집.
-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최연옥 (2020). 초등학교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학급 수업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다문화  
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황해영, 이미정 (2015).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5(4), 415-426.

<b>정책 제안명</b>	이주배경 청소년의 발자취(발전·자립·취업)			
<b>정책 제안자</b>	오명숙, 한귀연(경기도청 가족다문화과)			
<b>1. 현황 및 문제점</b>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 매년 증가</li> </ul>				
(단위 : 명)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1	40,628	29,159	8,116	3,353
2020	36,411	27,061	6,435	2,915
2019	30,700	25,535	5,322	2,625
2018	29,099	22,183	4,395	2,521
(출처) 경기도교육청, 교육통계				
* 다문화가정 학생 : 국제결혼 가정(국내출생+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초·중·고 중도입국 청소년 매년 증가</li> </ul>				
(단위 : 명)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21	3,095	1,707	914	474
2020	2,894	1,725	741	428
2019	2,782	1,720	674	388
2018	2,687	1,691	564	432
(출처) 경기도교육청, 교육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설문을 통해 확인한 높은 사회 기여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에 대한 동의 정도 4점 기준 3점 이상</li> <li>* 출처: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2021)</li> </ul> </li> </ul>				
□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의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이주배경 청소년 본인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순환적 정책 필요</li> <li>■ 이주배경의 특수성을 이해한 멘토가 필요한 상황 (비이주배경 멘토의 한계)</li> <li>■ 이주배경청소년의 다양한 진로 방향 및 사회 적응 방안에 대한 정보공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중 상담 내용에서 “정보”가 1순위</li> <li>* 출처: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2021)</li> </ul> </li> </ul>				

## 2. 기존 정책<sup>1)</sup>과 한계점

### □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교육부)

- 사업내용 : 전문 직업인,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척한 진로 선구자들이 원격으로 멘토링 수업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생생한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한계점
  - 비(非)이주배경 자녀와 이주배경자녀의 구별이 없어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징을 이해한 진로 안내 미흡
  - 온라인으로만 진행. 찾아가는 멘토링 필요(오프라인 병행 필요)

### □ 기초학력 및 정서 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교육부, 2022)

- 사업내용: 다문화학생(멘티)과 멘토 대학생의 멘토링을 통해 학습·숙제지도·고민상담 등 체계적·개별적 학습지원 제공

#### 대학생 멘토링 운영 개요(안)

지원규모	4,000여명 예정
멘티 소속기관	초·중등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등
멘토 선정	소속 대학 교수 추천을 받은 참여대학 대학생
멘토·멘티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비·교육급여 수급자, 학습지원 필요학생 등 우선 매칭</li> <li>• 소외지역에 사업비 일정비율(10% 내외)을 할당하여 운영</li> </ul>
기타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멘토의 다문화·탈북학생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멘토링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사전 교육(12차시) 이수 (필수)</li> <li>• 입국 초기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을 위하여 외국어 능력을 갖춘 대학생을 멘토로 선발하여 모국어 멘토링 실시</li> </ul>

- 한 계 점
  - 농촌 지역의 경우 대학생 접근성이 떨어져서 지원 부족
  - 비이주배경 대학생 멘토링의 한계: 이주배경청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력 부족
  - NEET 청소년들은 서비스 대상이 아님

## 3. 제안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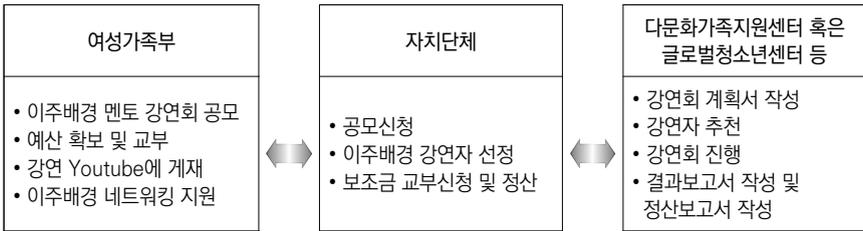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이주배경청소년의 발차취(발전, 자립, 취업)
- 정책대상 : 이주배경 청소년(9세~24세) 및 다문화가족

1) 출처: 교육부(2022).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사업내용 : 이주배경 멘토의 자유주제 강연
  - 이주배경을 가지고 현재 한국 사회에 적응한 사람이면 누구나 멘토가 되어 특강 및 강연 가능
  - 멘티가 멘토가 되는 선순환적 정책
  - 네트워킹 지원 : 강연 후 강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 진행
  - 온라인 서비스 병행 : 강연을 Youtube 채널에 업로드

- 운영방안 : 공모
  - 여성가족부(총괄) → 자치단체(사업주관) → 자치단체 직접 진행 혹은 기관위탁



- 자치단체 선정 방식
  - (선정주체) 여성가족부
  - (우선선발) 동농 간 정보 및 인프라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우선선발 후 도시지역으로 확대

□ 선결과제

- 농촌지역까지 강연자 초청을 위한 교통비 및 강사료 등 충분한 재정적 지원
- 지역 내 학교와 유관기관의 연계 필요
  - NEET청소년 등 멘티 모집을 위해 학교 및 출입국사무소, 외국인지원센터 등 다각적인 홍보 필요

□ 세부 추진방안

■ 강연회 운영

기본 구성	비 고
• 오늘의 강연자 소개	• 강연자 3명이상 구성
• 멘토의 강연	
•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	• 「발자취 사업」 마케팅 개인정보 동의
• 만족도 조사	
• 폐회사 및 종료	

- 각 자치단체 연 2회 개최
- 위탁기관 : Youtube 게재를 위한 영상 녹화 및 자치단체 송부
- 여성가족부 : 이주배경 강연, 여성가족부 Youtube 영상 게재

〈 강연자 선정기준 〉

▶ 선정주체 : 자치단체

▶ 선정방식

- 추천 및 지원을 받아 내부 심사 후 강연자 선정
- 다양한 이주배경 멘토들을 초청하기 위해 강연자의 지역 제한 없음
- 강연자 재선정 가능

▶ 강연자 예시

- ①<sup>2)</sup>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다문화자녀 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 한국생활 7년, 부천대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편입학 예정자
  -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 글로벌 비즈니스 재학생
  - 경희대학교 관광학부(외국인 전형)졸업 후 대학 교직원으로 취업
  - 실용음악과 졸업 후 뮤지션으로 활동
- ②<sup>3)</sup> 취업 후 직장생활을 하는 이주배경 자녀
  - 한국 생활 8년, 아워홈(요리사)재직
- ③<sup>4)</sup> 군 생활을 경험한 국제결혼가정 자녀
- ④ 지역 내 이주배경출신 청년 농부
- ⑤ 이주배경출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직장인
- ⑥ NEET청소년이었으나 지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 혹은 공교육 진입 준비자

■ 이주배경청소년 네트워킹 지원(여성가족부 직접 추진)

- 강연회 참석자 대상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배움·정보공유·다양한 간접 체험의 기회 제공
- 차후 강연회 진행 지역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네트워킹 대회 추진

□ 소요예산

(단위 : 원)

구 분	소요예산액	내 역	
총계	97,020,000	강연회 회당 소요예산(15,630,000)**3개 자치단체*연 2회 + 네트워킹비용(3,240,000)	
	4,940,000	○ 강연회	1,700,000
		- 강사비 * 3명	900,000
		- 사회자	500,000
		- 교통실비 지원	300,000
		○ 네트워킹 지원	3,240,000
		- 다과비	1,400,000
		- 교통비	1,840,000
	13,930,000	○ 행사장 영상시설 및 홍보비용	13,930,000
		- 행사지원 직원 식비	112,000
		- 포스터 디자인·제작, 배너 등	3,818,000
		- 무대제작비 및 설치비 등	8,250,000
		- 음향장비 및 부대행사 장비설치·대여	8,250,000
		- 홍보물(리플릿), PPT 제작, 송출 등	1,250,000
		- 방역용품 및 사무용품 등	500,000

2) 3) 4)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2022). 이주배경 924 5호.

#### 4. 기대효과

- 이주배경자녀들에게 롤모델 제시
- 한국에 잘 정착한 멘토의 강연 후 질의 시간을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류
- 정보 교류의 장 마련
  - 한국 사회 적응에 도움되는 실질적인 정보 교류
  - 다양한 직종 및 분야별 전문가와의 만남으로 다양한 간접 체험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이주배경자녀들의 멘토 경험으로 인한 자기효능감 상승
- NEET 청소년에게 진로 동기 부여

#### 5. 참고문헌

경기도교육청. 교육통계.

교육부 (2022).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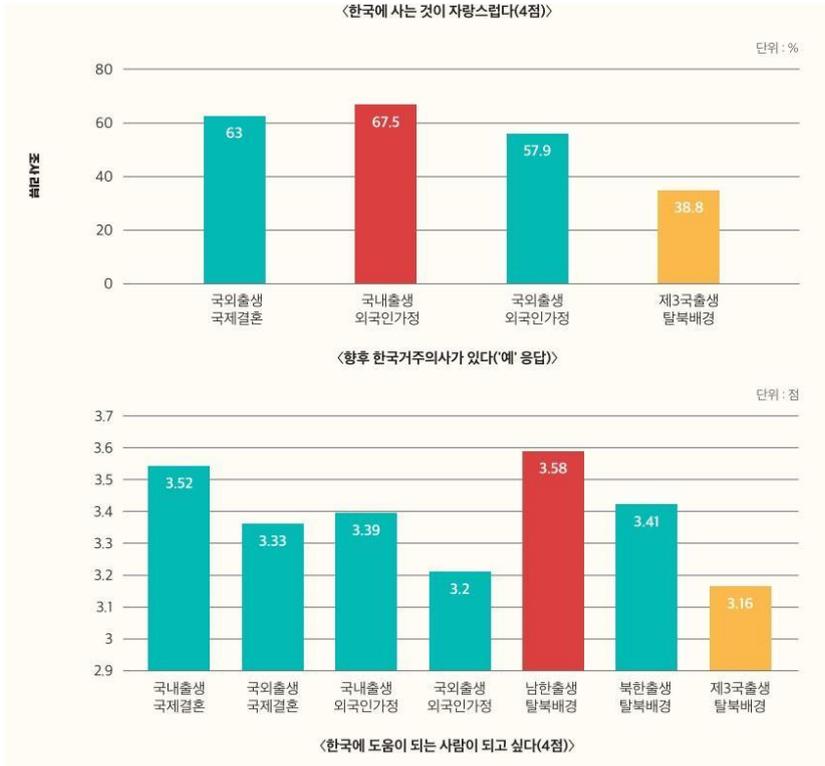
양계민, 정윤미, 장윤선 (2021).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MYF21-19-개). 서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2). 이슈브리프 이주배경 924 3호.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b>정책 제안명</b>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정기 글로벌 취업박람회 개최
<b>정책 제안자</b>	정서윤, 김서진, 정지민(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부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진로 설계 및 탐색, 직업훈련과 관련한 정책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빠르게 확장되어가는 중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재단의 2021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주배경청소년 레인보우 스쿨'을 운영 중인 진로 특화형 기관에서는 16세에서 24세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직무실습, 진로 체험, 진로 교육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맞춤형 진로 지원과 진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에서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해서 진로 설계 및 진로 탐색과 진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원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서울온드림 교육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li> <li>■ 하지만 이에 반해 취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2022년까지 다루고 있는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정책과제에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로 진로 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취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 제공 서비스나 취업 컨설팅 지원과 같은 분야는 현재 주로 결혼 이민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실질적인 취업 관련 서비스로는 '체험형 청년인턴'으로써 직업을 체험해볼 기회에 그치는데, 이조차도 사회 형평 분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과 한데 묶여 극소수만 선발하는 상황이기에 실질적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보장된 선발인원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취업이나 인턴 실습의 기회도 부족하며 비교적 정규적인 취업과 관련한 지원 정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보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도 결국 사회진출을 앞둔 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이끌어줄 장치가 없다면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취업의 문턱에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li> <li>■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본인의 성장배경으로 인해 여러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심을 지니고 있으며 이중언어 등 글로벌 역량 또한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여 다문화 시대로 빠르게 향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귀중한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즉, 이주배경청소년이 이주배경청년으로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li> </ul>	

## 2. 기존 정책과 한계점

- 앞서 말했듯이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진로 관련 정책은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레인보우스쿨(진로형)’이라는 교육지원사업은 진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자아 정체감 및 진로 자기효능감을 향상하고,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관계망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자격증 이론, 실습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진로를 탐색 및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불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는 ‘무지개 job아라’와 ‘내-일을 잡아라’라는 진학·취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지개 job아라’ 기초과정은 사회진출에 대비해 실용 한국어 능력 향상을 주목표로 하며, ‘내-일을 잡아라’ 심화 과정에서는 직업 실습·소양 교육, 고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이 이뤄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이처럼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원은 여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취업·창업과 관련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인턴십 수준에 그칠 뿐이라 많은 수의 이주배경청소년을 돕는 것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대학 진학과 진로 설정, 자격증 취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관한 현실적인 정보나 면접의 팁과 실제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조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많은 이주배경청소년을 돕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았을 때 취업 박람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람회를 찾아본 결과, 비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박람회는 정기적·체계적이면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매년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창업 박람회, 금융권 박람회, 중견기업 박람회 등 원하는 분야의 취업 박람회를 매년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취업박람회는 통역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박람회가 대부분이며 컨설팅 대상도 비(非)이주배경청소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따로 진행 중인지 의문이 들어 찾아보았으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가 열린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즉, 이주배경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적으며 취업 현장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1]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거주 의사<sup>1)</sup>

- 또, <이슈브리프 이주배경924 3호>를 통해 한국에 지속적 거주 의사를 보인 이주배경청소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선임연구위원께서는 한국 사회에 지속해서 거주할 집단이라면 이들이 한국 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좋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 일회성 체험성 지원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원의 방향으로 가야 할 것<sup>2)</sup>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속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거주한다는 것은 성인기를 맞이한다는 의미이고 그에 따른 생계 마련과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취업에 대한 지원을 한시라도 빠르게 구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1)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2021). 이슈브리프 이주배경 924 3호. p. 16.

2)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2021). 이슈브리프 이주배경 924 3호. p. 6.

표 IV-98. 직업훈련을 받은 목적

(단위: 명, %)

집단	응답	취업/창업을 위해	더 나은 직무수행을 위해	경력개발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체류자격 유지·변경을 위해	기타	전체	$\chi^2$		
비(非)이주배경청소년		9(5.6)	46(28.7)	42(26.3)	59(36.9)	-	4(2.5)	160(100.0)	178.47***		
이주배경청소년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71(52.6)	14(10.3)	11(8.1)	33(24.4)	-	6(4.4)	135(100.0)			
	국의 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21(46.7)	3(6.7)	9(20.0)	10(22.2)	-	2(4.4)	45(100.0)			
	국내 출생 외국인 가정자녀	4(26.7)	3(20.0)	5(33.3)	3(20.0)	-	-	15(100.0)			
	국의 출생 외국인 가정자녀	35(26.3)	13(9.8)	36(27.1)	32(24.1)	11(8.3)	6(4.5)	133(100.0)			
	탈북배경 남한출생 청소년	2(66.7)	-	-	-	-	-	3(100.0)			
	탈북배경 북한출생 청소년	14(31.8)	2(4.5)	7(15.9)	21(47.7)	-	-	44(100.0)			
	탈북배경 제3국출생 청소년	13(22.8)	2(3.5)	12(21.1)	26(45.6)	2(3.5)	2(3.5)	57(100.0)			
	성별	남자	74(36.5)	17(8.4)	41(20.2)	56(27.6)	7(3.4)	8(3.9)		203(100.0)	1.12
		여자	86(37.6)	20(8.7)	39(17.0)	69(30.1)	6(2.6)	9(3.9)		229(100.0)	
	연령	13-18세	110(38.6)	26(9.1)	61(21.4)	68(23.9)	5(1.8)	15(5.3)	285(100.0)	20.21**	
19-24세		50(34.0)	11(7.5)	19(12.9)	57(38.8)	8(5.4)	2(1.4)	147(100.0)			
주관적 가정 형편	매우 어렵다	3(50.0)	-	1(16.7)	2(33.3)	-	-	6(100.0)	24.14		
	어려운 편이다	41(44.1)	4(4.3)	15(16.1)	30(32.3)	2(2.2)	1(1.1)	93(100.0)			
	중간이다	97(37.3)	25(9.6)	43(16.5)	74(28.5)	8(3.1)	13(5.0)	260(100.0)			
	잘사는 편이다	17(28.3)	7(11.7)	14(23.3)	16(26.7)	3(5.0)	3(5.0)	60(100.0)			
	매우 잘산다	2(15.4)	1(7.7)	7(53.8)	3(23.1)	-	-	13(100.0)			

\*\*  $p < .01$ , \*\*\*  $p < .001$

[그림 2] 이주배경청소년의 직업훈련을 받은 목적<sup>3)</sup>

- 2021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양계민 외, 2021)에서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이 취업과 창업에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은 목적'에 대한 표를 보면 직업훈련을 받은 목적을 수치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응답 비율을 비교한 결과,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집단의 경우에는 '취업/창업을 위해'에 대한 응답 비율이 52.6%로 가장 높았으며, 순차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24.4%), '더 나은 직무수행을 위해'(10.3%)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외 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집단의 경우 역시 '취업/창업을 위해'에 대한 응답 비율이 46.7%로 가장 높았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해'(22.2%), '경력개발을 위해'(20.0%)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내 출생 외국인 가정자녀, 국외 출생 외국인 가정자녀 집단의 경우에는 모두 '경력개발을 위해'(각각 33.3%, 27.1%)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취업/창업을 위해'(각각 26.7%, 26.3%), '자격증 취득을 위해'(각각 20.0%, 24.1%)에 대한 응답 비율이 순차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탈북배경 남한출생 청소년 집단의 경우, '취업/창업을 위해'(66.7%)와 '기타'(33.3%)에 대한 항목에 순차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습니다. 탈북배경 북한출생 청

3) 양계민, 정윤미, 장윤선 (2021).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p. 198.

소년과 탈북배경 제3국 출생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각각 47.7%, 45.6%)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취업/창업을 위해'(각각 31.8%, 22.8%), '경력개발을 위해'(각각 15.9%, 21.1%)에 대한 응답 비율이 순차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주배경청소년 집단별로 직업훈련을 받은 가장 큰 목적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취업/창업을 위해', '경력개발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지만, 집단별로 응답 비율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긴 했으나 대부분의 이주배경 청소년이 취업/창업과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자료처럼 취업에 관한 현실적인 도움을 받고자 교육받는 비율이 높기에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 3. 제안내용

- 이처럼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취업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취업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한국에 거주하며 생계를 이어 나갈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이주배경청소년만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취업박람회는 구인 업체와의 다양한 면접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채용을 원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직접 면 대 면(face-to-face)으로 박람회장 안에서 바로 채용까지 이어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sup>4)</sup> 이는 비이주배경청소년과 달리 취업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취업을 가까워서 보고 듣고 채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또 여러 기사를 통해 취업박람회의 성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개최된 '서울시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박람회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부터 '서울시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에서 결혼이민자들에게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취업박람회 및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업 상담 서비스를 통해 177명이 취업에 성공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sup>5)</sup> 위 박람회는 통·번역사, 외국어 강사, CS 상담원, 다문화 강사 등 결혼이민자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가 일대일 현장 면접을 진행하거나 구인 정보를 게시해 결혼이민자들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sup>6)</sup> 아래 첨부된 제9회 서울시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 기사 사진을 통해 박람회를 찾은 인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 배성숙, 장석인 (2014). 대학 졸업예정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가가 구직효능감 및 구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p. 121.

5) 서울시청 홈페이지 (2021.05.26.). 서울시, 은행·교육서비스업 등 '결혼이민자 온라인 취업박람회'.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2702>에서 2022년 7월 26일 인출.

6) 뉴스1 (2019.03.31.). 서울시, 작년 결혼이민자 176명 취업 도와...5일 취업박람회. <https://www.news1.kr/articles/?3584754>에서 2022년 7월 26일 인출.



[그림 3] 제9회 서울시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2020년 결혼이민여성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에서는 15명의 결혼이민여성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취업박람회로 총 2,439명이 온라인 홈페이지에 방문해 117명이 구직 사전등록을 신청했으며 69명이 면접에 참여해 총 15명의 결혼이민여성이 기업에 채용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참여한 구직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97.9%·95.2%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sup>8)</sup>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가 좋은 성과를 거둔 것과 마찬가지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개최되면 같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정기 글로벌 취업박람회는 매년 두 번 19~24세의 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반기(6월), 하반기(12월)로 나누어 개최됩니다.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에서 협업하여 취업박람회를 실시합니다. 또한 취업을 원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박람회이므로 여러 기업의 참여 독려가 필요합니다.
- 취업박람회 개최 초기에는 수도권에서 규모를 크게 하여 일주일 동안 진행합니다. 앞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취업·진로 프로그램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것을 한계점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보급, 전파가 어려운 형태의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인구가 집중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취업박람회를 하는 것이 적합하기에 수도권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취업박람회장까지 오기 어려운 지방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유관 기관과 각 학교에 공문

7) 아시아경제 (2018.04.06.). 제9회 서울시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 '복적복적'. <https://www.asiae.co.kr/article/2018040613130145603>에서 2022년 7월 26일 인출.

8) 케이에스파뉴스 (2020.11.19.). 올해 결혼이민여성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성황리에 마쳐. <https://www.kspnews.com/505129>에서 2022년 7월 26일 인출.

을 보내 홍보하여 지역 내에서 단체로 취업박람회에 올 수 있도록 버스를 지원합니다. 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청소년 유관 기관에서는 참여 인원을 취합하여 각 지역의 교육청에 전달하면 교육청에서 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주배경청소년 취업박람회가 안정화되면 광역도시마다 취업 박람회를 3일 동안 개최합니다. 이 때 광역도시 선정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이주배경청소년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여 그곳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다음은 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실행 방안 및 필요 요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 취업박람회 실행 방안

- 1) 고용노동부에서 진행 중인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책 및 혜택 설명 부스
- 2) 여성가족부에 실시하는 다문화 정책 및 혜택 설명 부스
- 3)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특강 실시
  - 가) 취업 특강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
    - (1)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거나, 이주배경청소년 취업박람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취업 특강을 실시간으로 방송하여 취업박람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 4) 기업 설명 부스
  - 가)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 팁, 필요한 자격증 등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5) 면접 준비할 수 있는 모의 면접 부스
  - 가) 실제로 기업에서 면접관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모셔서 모의 면접을 진행합니다.
  - 나) 모의 면접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취업 박람회에 참석합니다.

나. 취업박람회를 위한 필요 요소

- 1) 취업박람회장
  - 가) 2층 건물이나 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 (1) 여러 부스를 체험하고 특강을 실시하기 때문에 넓은 실내 공간이 필요합니다.
- 2) 참여 기업
  - 가) 박람회 시작 4개월 전(임의) 취업박람회 참여 기업 모집합니다.
  - 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아 가장 많은 수요를 받은 기업 분야에서 취업 특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3) 팸플릿 제공
  - 가) 한국어를 읽지 못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모국어로 적힌 팸플릿을 제공합니다.
  - 나) 팸플릿에는 취업박람회에 대한 설명 및 부스, 특강 설명 및 위치를 안내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 4) 통역사 배치
  - 가) 취업박람회장 안에 통역사들을 배치하여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배경청소년이 부스를 다닐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합니다.
  - 나) 통역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유니폼을 착용합니다.

-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취업박람회는 처음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참여가 적을 수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에서 취업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기업 독려가 필요합니다. 또 취업을 원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취업박람회에 대해 알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취업박람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SNS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튜브 광고나 인스타그램 스토리 광고 등 SNS를 활용하여 취업박람회를 홍보하고, 학교와 청소년 유관기관에 홍보 포스터를 붙여 취업박람회를 홍보합니다. 또한 취업박람회는 지속해서 이어질 행사이므로 참여 청소년과 기업의 취업박람회 만족도 조사와 현장 관찰을 통해 여러 정부 부처끼리 회의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4. 기대효과

1. 글로벌 인재 양성을 도모하여 다문화 사회의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통해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채용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기업의 글로벌화를 실현해 다문화 경쟁력 강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인 이주배경청소년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문화 및 정체성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다문화 친화적 제도와 사회문화적 풍토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풍부한 창의적 인적 기반과 역동성을 갖춘 품격 있는 문화 선진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sup>9)</sup>
2. 지역사회를 활성화하여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취업박람회가 안정화되어 여러 지역에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업 홍보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개최한 취업박람회로 인해 한국에 이주배경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거주하게 되면 다양한 문화를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3.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면 현장감 있는 경험을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은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확대하고 진로와 취업에 대한 폭넓은 생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취업박람회를 통해 현실적인 취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박람회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 설명 부스를 설치하게 된다면 이주배경청소년은 자신을 위한 정책과 혜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취업 불안과 진로 포기를 완화하고 이주배경청소년의 불안정한 정체감을 완화하여 한국 사회의 한 일원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4.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이 서로 화합하여 미래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를 통해 안정적으로 취업에 성공하고, 진로를 설계한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이 사회에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고 일하는 모습이 증가하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수가 증가하면서 학교에 이주배경청소년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주배경청소년을 향한 편견 어린 시선을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취업박람회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이 비이주배경청소년처럼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을 높이고,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화합하여 미래 사회를 평등하고 조화로운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9)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2021). 이슈브리프 이주배경 924 3호. p. 4.

5. 정기적으로 취업박람회가 개최되면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취업·진로 관련 정책이 증가하여 취업 및 진로에 관한 정책에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나 청소년 현장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요긴한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에서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취업박람회를 통해 통계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길을 생성하여 다음에 다른 취업과 진로 관련된 정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 밖과 학교 졸업 후 현황에 대한 공식 집계는 거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sup>10)</sup> 이주배경청소년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인 통계가 부재하여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 불가능한 것입니다.<sup>11)</sup> 이에 대해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정기 글로벌 취업박람회는 후기 이주배경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업군이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라는 큰 현장을 통해 다양한 이주배경청소년을 만날 수 있어 그들의 얘기를 생생하게 듣고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질적 수준이 높은 자료를 수집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취업과 진로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5. 참고문헌

뉴스1 (2019.03.31.). 서울시, 작년 결혼이민자 176명 취업 도와...5일 취업박람회. <https://www.news1.kr/articles/?3584754>에서 2022년 7월 26일 인출.

배성숙, 장석인 (2014). 대학 졸업예정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구직효능감 및 구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21(5), 115-136.

서울시청 홈페이지 (2021.05.26.). 서울시, 은행·교육서비스업 등 '결혼이민자 온라인 취업박람회'.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2702>에서 2022년 7월 26일 인출.

아시아경제 (2018.04.06.). 제9회 서울시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 '북적북적'. <https://www.asiae.co.kr/article/2018040613130145603>에서 2022년 7월 26일 인출.

양계민, 정윤미, 장운선 (2021).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MYF21-19-개). 서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1). 이슈브리프 이주배경 924 3호: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와 정책 과제 모색 (MYF21-20-개).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케이에스피뉴스 (2020.11.19.). 올해 결혼이민여성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성황리에 마쳐. <http://www.kspnews.com/505129>에서 2022년 7월 26일 인출.

10)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2021). 이슈브리프 이주배경 924 3호. p. 34.

11)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2021). 이슈브리프 이주배경 924 3호. p. 36.



### ○ ————— 3. 장려상 수상작



<b>정책 제안명</b>	이중언어를 활용한 이주배경 학생 학습 지원 - 이중언어 학습 포털 운영
<b>정책 제안자</b>	박정은(군서미래국제학교)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 연령, 특성이 다양한 이주배경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교육부, 2022)        ※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 ('07)107만 명 → ('13)158만 명 → ('20)204만 명        ※ 결혼 이민자 현황 : ('18)159,206명 → ('19)166,025명 → ('20)168,594명</li> <li>■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은 아직도 동화주의 관점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적응 교육에 치우쳐 있음</li> <li>■ 중도입국학생 등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이주배경 학생이 한국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특별학급 또는 한국어 교실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으나 일상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로 한국어 교육을 받더라도 학습 용어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 부진이 누적되는 어려움을 겪음</li> <li>■ 모국어 사용이 줄어들어 따라 모국어 활용 능력이 퇴보하는 경우도 있음</li> </ul> <p><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해 교과에서의 주요 개념과 어휘 등에 대한 보조교재 및 영상 콘텐츠가 보급되고 있으나 모든 내용이 한국어로 설명되어 있어 한국어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주요 개념어가 다국어로 제시되어 있으나 단어의 뜻을 단순 번역한 수준으로, 학생이 단어만 보고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li> <li>■ 이중언어를 활용한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자료들이 제작되고 있으나 학생 혼자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학생의 언어를 모르는 일반 교사가 활용하여 지도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음</li> <li>■ '다문화교육포털'에서 다양한 다문화 지도 교재 등이 탑재되어 있으나 책자 형태의 자료가 탑재되어 있어 수업에 활용할 적절한 자료를 검색하기 어려움</li> <li>■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으므로 소수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벗어나 이주배경 학생의 모국어를 활용한 교재를 제작할 필요가 있음</li> </ul>	



중앙다문화교육포털 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어휘(5~6학년 수학)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유튜브 채널 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어휘(3~4학년 과학)

[그림 1] 중앙다문화교육포털 이중언어 교육자료

### 3. 제안내용

#### ■ 이중언어를 활용한 학습포털 운영

- 현재 초등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배이스캠프(<https://www.plasedu.org/plas>)가 운영되고 있으며 개념을 설명하는 5분 내외 동영상과 간단한 평가 문항이 탑재되어 있음
- 각 과목과 단원을 교과서와 비슷하게 구조화하여 학습 내용의 검색이 용이함



[그림 2] 배이스캠프(<https://www.plasedu.org/plas>) 학습자료

- 배이스캠프와 연계하여 이주배경 학생 학습 포털 운영
- 배이스캠프 사이트에 한국어 동영상뿐만 아니라 이주배경 학생의 모국어로 설명이 된 동영상을  
동시 탑재하는 방안
- 이주배경 학생의 언어로 평가 문항 지원
- 학습포털 내 학습 내용 질의응답이 가능한 공부방 기능을 추가하고 이중언어가 가능한 대학생을  
활용하여 공부방 및 온라인 멘토-멘티제를 운영
- PC가 없는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해 학습 포털 애플리케이션 제작 필요

#### 4. 기대효과

- 한국어 수준이 낮은 이주배경 학생도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학습 부진이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
- 학습포털 이용으로 이주배경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디지털 활용 능력의 향상
- 언어의 어려움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주배경 학생도 모국어로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함께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학습적·심리적 고립으로부터 탈피

#### 5. 참고문헌

교육부 (2022).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b>정책 제안명</b>	이주배경청소년 시민성 함양 지원 체계 구축 방안
<b>정책 제안자</b>	박원진(초당초등학교)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지구촌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초국가 시대로 진입하였으며, 한국도 이주민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020년 11월 1일 기준으로 214만 6,748명으로 총인구 대비 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행정안전부, 2021).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인정 난민, 이주배경청소년 등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정주를 희망하는 이주민의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설규주 외, 2020).</li> <li>■ 이에 따라 한국은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이 가속화되면서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 및 차이의 폭과 깊이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권태환, 2012; 구정화 외, 2018; 정문성 외, 2018). 이는 일방적인 '동화주의'뿐 아니라 문화상대주의에 기반한 서구의 '다문화주의'나 '상호문화주의'를 한국 다문화사회의 맥락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대입하여 담론과 정책을 이끌어가는 데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송효준 외, 2019).</li> <li>■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한국식 다문화 담론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다문화사회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그 사회의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구성원'으로 존재해야 함.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민성 교육임(송샘 외, 2018). '시민성(citizenship)'은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용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행위의 표준"이며 형식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원리와 절차를 탐구하고 사고하며 적용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리킴(김왕근, 1995). 또한 학교, 국가와 같은 공간, 사회, 정치, 문화 등과 같은 영역, 지식, 기능, 태도 등과 같은 능력과 같은 다차원적인 면을 가짐(김영인 외, 2017).</li> <li>■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이주민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시민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국에서의 다문화 정책이나 이주민에 대한 교육 방향은 '시민'보다는 주로 '한국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은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공간이 바로 학교임.</li> <li>■ 최근 10년간 초·중·고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46,954명에서 2021년 160,056명으로 약 4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학생 중 이주배경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2년 0.7%에서, 2017년 1.9%, 2021년 3.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한국교육개발원, 2021).</li> <li>■ 구체적으로 유형별 이주배경청소년 비율을 살펴보면, 국내출생(국제결혼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가장 높으나 최근 들어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한국교육개발원, 2021). 특히, 외국인학생의 비율은 2021년 17.8%(28,536명)를 차지해 2017년 대비 6.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한국교육개발원, 2021).</li> <li>■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나라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는 기본 교육기관임. 2015 개정 교육 과정 총론에서는 이</li> </ul>	

주배경청소년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였고, 시민교육의 중핵 교과인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다문화 가족', '다문화 사회', '인권', '지구촌', '세계화', '문화적 다양성', '문화 상대주의' 등의 주요 학습 요소를 제시하였음. 또한 법교과 학습 주제로 '민주시민교육'이 '다문화교육'과 '인권교육' 등과 함께 제안되어 있음(교육부, 2015a; 교육부, 2015b).

- 또한 UN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난민법」 제33조 등을 근거로 학령기 이주배경청소년의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공교육에 진입하여 한국 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 지난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이 수립된 이후 「초·중등교육법」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신설, 다문화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설립,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및 무학년제 한국어 교실 운영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교육부, 2021).
-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주배경청소년은 언어의 한계 등의 불가피한 요인으로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정책의 초점이 '입국 초기', '한국어 교육', '진로', '타문화 포용', '정체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점의 전환이 요구됨.
- 즉, "이주배경청소년들을 '그들'이라는 범주로 대상화하기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가갈 필요가 있으며, 이주배경청소년이나 그 부모가 처한 상황을 (단기적인) '문제'로만 인식하여 (당장의) '처방', '완화 방안' 등만을 도출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 변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 변동의 흐름을 고려하는 긴 안목 속에서 '교육' 현상의 하나'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설규주, 2017).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시민성 교육의 역할과 새로운 지원 방식이 매우 중요함.

## 2. 기존 정책과 한계점

- 교육부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 문서를 살펴보면, 2012년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대상을 다문화가정 생생 배경에 따라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출생지에 따라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로 구분하면서 유형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구하기 시작하였음. 또한 '다문화교육'을 명시하기 시작한 2014년 계획 중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수혜적 관점 복지 정책 차원의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에서 발전지향적 통합·육성 정책 '다문화교육 지원'으로 정책 성격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음. 그리고 2020년부터는 문서명 앞에 '출발선 평등'이란 표현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외국인가정의 증가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개인적 배경과 관계없는 동등한 교육 기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추진된 여러 사업이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졌음에도 이주배경청소년의 입국 초기 적응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그리고 '다문화학생 배움·채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① 진입형(한국어교육 등 초기 지원), ② 적응형(교과학습 지원, 멘토링 등), ③ 성장형(이중언어 및 진로

지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으로서의 기본 이해 및 역량을 배우고, 주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은 부족한 현실임(교육부, 2022).

- 즉, 공교육에 진입하여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하면서 사회 등 다양한 교과 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자치회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언어와 입국 시기, 모국과 한국의 환경 차이 및 사회적 의사소통 맥락 경험에 변수가 많은 이주배경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온전히 갖추기에는 무리가 있고, 비이주배경학생과 대비되어 주변화될 수 있는 한계에 노출되어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무지개청소년센터의 레인보우스쿨 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 한국어 교육, 사회적 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진로교육과 연계한 한국어 교재, 경제활동을 위한 교재도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에 대한 정보를 가이드북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한국 사회의 모습과 실제적인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단계 및 입국 주기별 필요한 부분과 요구 사항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여성가족부는 전국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취학 준비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주로 사업 대상이 부모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인 다문화가족 자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참여자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초기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이주배경청소년 등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이민자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착 지원과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학령기 연령층의 경우,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초점이 맞춰져 조기적응 프로그램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를 통해 공교육 체제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는 학습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법무부, 2019).
- 한편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 입국 전 모국에서, 한국에 대한 기초 정보, 교육과정 및 진로 진학 정보, 한국 생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사전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체계화된 교육 자료가 요원함.
- 요컨대, 이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시민적 지식수준은 낮았으나, 향후 사회 참여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러한 요구(needs)를 충족하는 동시에 공존을 넘어 상생을 추구해야 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참고] 이쌍철 외(2019).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학생 시민적 지식에 주는 영향을 주는 효과: 이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시민적 지식수준이 41.747점이나 낮음.
- ▶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사회 참여 의사에 주는 효과: 이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향후 참여 의사가 1.073점가량 높음.

### 3. 제안내용

#### 가.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주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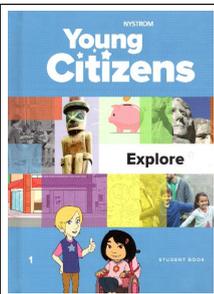
-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장 발달단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및 입국 시기를 고려한 시민성 함양 교재 및 워크북을 개발·보급함(※ 온라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시민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및 PPT 교안을 개발·보급함.
- 다문화학생 밀집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며,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함.

##### ■ 개발 방향

- 대상: 공통(만화·웹툰) / 초 3~4 / 초 5~6 / 중·고등
- 언어: 한국어(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의 1~5급 수준 서술) 및 다국어 번역
- 방식: 지면으로 된 교재 및 워크북을 개발하되, 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입국 전 또는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내용 요소 선정: ① 학년별 사회과를 중심으로 도덕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의 주제 ② 사회 통합프로그램 특수 교육과정 교수요목 ③ 표준 한국어 교재의 주제 및 문화 내용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핵심 내용 요소를 추출한 후에 학생, 교사, 교수 등을 대상으로 주제 필요도에 대한 설문 및 현장 전문가 FGI를 통해 최종 선정함.
- 개발 차시: 성장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대상별 15차시~30차시로 구성함.
- 기타: 교재 및 워크북 개발을 기반으로 교사용 지도서 및 차시별 PPT를 개발하여 교수자로 하여금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임.

##### ■ 대상별 교재 개발 시 고려 사항

- 공통(만화 웹툰): 이주배경청소년의 연령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웹툰)와 글밥이 적은 형태로 구성함.



[참고] Nystrom Education(2019). Young Citizens Explore. CA: Social Studies.

▶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요소를 만화 형태로 구현되었으며, 등장인물이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됨. 쉬운 문법으로 서술되었고, 단원별로 핵심 단어가 제시됨.

★ 단원명: (1) Why Are Families Important? (2) What Do You Know about School? (3) What do We Find in Our Neighborhood? (4) What Makes a Town? (5) What Do We Know about Our State? (6) What Makes Us All Americans? (7) How Are Other People the Same and Different from Me?

- 초 3~4 / 초 5~6 / 중·고등: 학교급·학년군별로 사회과, 도덕과 등 교과에서의 시민성 내용 요소 추출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특수 교육과정, 한국어와 한국문화, 표준 한국어 교재 등을

참고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 가정·학교·마을·지역사회 등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구성하며, 본문은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의 1~5급 수준의 문법과 어휘를 준용하여 서술함(※ 다국어 번역본 제공).

[참고] 설규주 외(2020). 사회통합프로그램 특수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연구-외국국적 동포 및 이주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천, 법무부.

- ▶ 교수 요목 추출 과정: 〈한국사회 이해(기본)〉, 〈한국어와 한국문화(중급 1, 2)〉,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의사소통 1~4)〉 교재 및 한국사회 및 문화와 관련된 내용 분석 바탕으로 추출
- ▶ 영역 및 주요 내용 요소 (※ 영역별 5차시로 구성)

영역	주요 내용 요소
한국사회 이모저모	한국을 상징하는 것, 교통수단, 통신수단, 의료서비스, 재난·범죄로부터 보호, 복지 제도
한국의 문화와 교육	대중문화, 여가생활, 지역별 즐길 거리, 한국 교육의 체계 및 특징, 평생 교육
한국의 전통과 역사	가족의 의미, 명절, 국경일, 기념일, 음식, 한국의 역사적 인물,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
법과 우리 생활	법이 필요한 이유, 일상생활 속 법,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외국인 지원 관련 법
정치와 우리 생활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 선거 참여,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남북관계, 국제사회와 한국의 교류
경제와 우리 생활	다양한 쇼핑 장소, 결제 방법, 돈 관리 방법, 주거 문화, 취업 상황, 직업과 진로 찾기

#### ■ 프로그램 운영 예시(안)

- 이주배경청소년 밀집 학교 또는 한국어학급 운영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운영: 이주배경청소년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클래스를 개설하여 적용하거나 한국어학급 수업 시 한국어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해 볼 수 있음.
-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 준비 학습 지원 사업에서 활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학 준비 학습지원 사업 시, 종사자가 중도입국자녀 대상으로 기초 학습뿐 아니라 사회교과 및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꼬마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 한국에 정주하여 영주권이나 귀화를 희망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사전 준비 과정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 또는 이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정의 평가 단계를 통계를 하면 이수증을 발급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진학, 진로, 취업 등에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함.
- 한국 입국 전 사전 준비 차원의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 시민성 함양 교재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탑재, e-book, 유튜브 영상 등으로 제공하여 한국으로의 이주를 준비하는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사전 교육 자료를 제공함.

#### ■ 선결 과제

-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처의 협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주배경청소년의 시민성 함양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고 표준화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으로서의 인증이 필요함.

## 나. 이주배경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네트워크 활성화

### ■ 주요 사항

-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주배경청소년의 다중정체성과 주체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 및 공헌의 기회를 확대함.
- 의미있고 생산적인 의견이 각 지자체의 청소년의회 안건으로 반영되어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식적인 사회적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함.
- 지역사회의 선주민과 이주민 간 상호작용하며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문화를 지향함으로써 다양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 ■ 추진 방향

- 대상: 각 지역의 관내 초·중·고 이주배경청소년 중 희망자
- 운영 주체: 지역교육지원청 내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담당자 또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유관기관 (예: 글로벌청소년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과 현장전문가, 교사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실행 방안:
  - ① 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의 모임을 통해 학교-마을-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 경험 공유 및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함.
  - ② 변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행동하거나 또는 지자체, 지역의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에게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함.
  - ③ 이주배경청소년이 갖고 있는 강점(예: 이중언어 능력, 모국과 한국에서의 생활 경험)이 발휘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자치활동·봉사활동·공헌활동을 지원함.
  - ④ 주제 및 이슈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 함께 어울리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성취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운영함.

### ■ 선결 과제

- 자생적으로 조직된 이주배경청소년 자조 모임 또는 동아리의 사례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의미있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과 방식을 도출함.
- 각 지역교육지원청 및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유관기관의 공간 협조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언어권별 통역 지원 봉사를 사전에 위촉함.

**[참고] 이주배경청소년 사회 참여 및 공헌 사례**

<p><b>시, 사, 우</b> 청소년 시민참여매관</p> <p>시흥교육지원청 민주혁신교육팀</p> <p>시, 사, 우, 청소년 시민참여매관</p> <p>시흥에 재학중인 초·중·고 이주배경청소년(거주, 종교인국,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구성된 시흥 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 활동, 시흥교육에 대한 의견 개진, 사회참여 활동 등을 진행하는 청소년 시민 참여매관이다.</p>	<p>▶ 선일중(2021): 국회 정책 토론회에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동포 체류 관련 의견을 개진함</p>	<p>▶ 너머센터(2021): 고려인 청소년 봉사 동아리를 조직하여 한-러 통역, 멘토 학습봉사 등을 운영함</p>

**4. 기대효과**

- 새로운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어 및 경험 맥락에서의 비대칭성 한계를 극복하고, 외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 활용, 한국 사회에 정주하여 영구권 및 귀화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디딤돌, 한국으로의 입국을 준비하는 학생기 이주배경청소년에게도 유의미한 학습 자료가 되는 등 다방면으로 실효성이 높을 것임.
- 이주배경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며, 이러한 활동들이 법이나 정책,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과 경험을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도 이루어짐으로써 선주민-이주민 간 공존을 넘어 상생을 지향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
- 궁극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시민성 함양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이 비이주배경청소년과 서로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권리를 조망하는 것뿐 아니라 신뢰를 쌓아나감,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하는 영역, 통용되는 문화, 가치, 사회적 의사소통 방식 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통해 자신이 가진 역량을 자유롭게 발현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미래 대한민국 다문화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5. 참고문헌**

교육부 (2015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5b). 사회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1).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2).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구정화, 박윤경, 설규주 (2018).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파주: 동문사.

권태환 (2012). 사회학의 이해. 서울: 다산출판사.

- 김영인, 설규주 (2017). 시민교육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왕근 (1995). 시민성의 내용과 형식으로서의 덕목과 합리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무부 (2019). (보도자료)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 파악 및 진학 유도방안 도입추진. 과천: 법무부.
- 설규주 (2017). 외국인가정 자녀의 학교교육 실태와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 경기도 S 초등학교 특별학급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68, 113-150.
- 설규주, 이미혜 (2020). 사회통합프로그램 특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연구: 외국국적 동포 및 이주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천: 법무부.
- 송샘, 이재묵 (2018). 다문화사회 이주민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아태연구, 25(1), 61-91.
- 송효준, 함승환 (2019).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돕는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적 통합 양상 재검토. 사회과학연구, 45(1), 127-149.
- 시흥교육지원청 민주혁신교육팀 (2022). 시사우 이주배경 청소년 시민협의체 운영계획(안). 시흥: 시흥교육지원청.
- 이미혜 (2019).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참여자 요구 분석. 문화와 융합, 41(5), 805-834.
- 이쌍철, 김미숙, 김태준, 이호준, 김정아, 강구섭, 설규주, 임희진, 이지미 (2019).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정문성, 강대현, 설규주, 전영은, 정수진, 송미리, 장경훈 (2018).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21). 2021 교육통계연보.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행정안전부 (2021). (보도자료)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15만 명, 발표 이래 첫 감소. 세종: 행정안전부.
- Nystrom Education (2019). Young Citizens Explore. CA: Social Studies.

#### [인터넷 검색]

- 국제뉴스 (2021.09.13.).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상호문화 정책토론회-“다문화 2세대,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8614>에서 2022년 7월 27일 인출.
- 삼성꿈장학재단 (2021). 웹진 79호: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 통역봉사로 꿈을 키우는 아이들의 '희망 발자국'  
[https://webzine.sdream.or.kr/webzin/webzine79/sub2\\_2.html](https://webzine.sdream.or.kr/webzin/webzine79/sub2_2.html)에서 2022년 7월 27일 인출.

<b>정책 제안명</b>	이주배경 후기청소년을 위한 진로취업지원프로그램 제안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b>정책 제안자</b>	유난영, 김태준, 하소정(김포시청소년재단)		
<b>1. 현황 및 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 후기청소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사회 이주배경 가정의 증가 「제12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성 모색-국내 다문화청소년 정책 10년의 성과와 한계, 향후 정책의 방향성 모색」(2018)에 따르면, 2017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한국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186만 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3.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 중 만 18세 이하의 외국인 주민의 자녀는 총 222,455명인데 이 중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국내 출생자녀가 212,302명으로 95.4%를 차지한다.</li> </ul> </li> </ul>			
[표 1] 세부 연령별 인구 수			
2017년 11월 기준	만 6세 미만	만 7세~12세	만 13세~18세
	115,085명(51.7%)	81,826명(36.8%)	25,544명(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회 이주배경 후기청소년의 증가 5년이 지난 2022년 현재 25,544명이 이주배경 후기청소년에 도달하였으며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24세 청소년기 자녀의 비중은 2018년 대비 8.3% 증가했다. 따라서 향후 이주배경 후기청소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 후기청소년을 위한 진로·취업 분야의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렇다면 이주배경 후기청소년의 사회진출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까?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대비 고용률은 5.6% 감소하였고,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전체 근로자보다 18.0%가 높고, 상용 근로자도 전체 근로자보다 6.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li> <li>- 이는 이주배경을 가진 성인이 전체 노동자보다 질 낮은 고용상태임을 설명한다. 이러한 현상이 이주배경 가정의 사회적 배려계층의 고착화로 이어지고, 경제적 빈곤과 심리적 불안으로 사회적 인 갈등의 요소로 촉진될 수 있다.</li> <li>- 증가하는 이주배경 가정 내 후기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고, 경제활동인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이주배경 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취업 분야의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li> </ul> </li> </ul>			

## 2. 기존 정책과 한계점

- 이주배경 가정지원 정책
  - 교육부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

[표 2] 2018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교육부)

추진계획	추진과제	과제별 사업
①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교육 참여 확대	• (학교) 교과수업에 다문화교육 반영	•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을 통한 다문화교육 확산(다문화중점학교, 연구학교)
	• (학생)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 이중언어 및 외국어교육 강화 • 다문화진로탐색을 위한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
	• (교원)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 다문화교육지원단 및 다문화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 교원 대상별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연수
②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 (유아기)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발달지원	• 다문화유아를 위한 맞춤형 교육체계 마련(다문화유치원)
	• (아동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	• 다문화학생 학교생활 적응지원 (징검다리학교) • 대학생 멘토링
	• (청소년기) 우리사회 인재로 성장지원	• 글로벌 브릿지사업 • 다문화특성에 맞춘 정서·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③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	• (교육기회) 공교육 진입 지원	• 중도입국자녀 취학안내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언어학습)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 예비학교에서 공교육을 통한 한국어교육 •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과정 지원
	• (지역연계) 이주민 밀집지역 지원	• 이주민 밀집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운영 지원
④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확립	• (협업체계) 중앙-지역 역할 정비 및 법무처 협력	•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강화 • 중앙역 다문화교육 지원기능 강화
	• (법령체계) 다문화교육 근거 법령 제정 추진	•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 양계민 (2018). 국내 다문화 청소년 정책 10년의 성과와 한계, 향후 정책의 방향성 모색. p. 13-14에서 발췌

- 교육부는 <표 2>와 같이 다문화학생의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지원계획으로 다문화이해교육, 외국어교육, 기초학력지원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 무지개청소년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표 3]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주요 사업(여성가족부)

목 표	추진방안	과 제
①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자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교육과 특기적성 개발</li> <li>• 학습능력 향상과 자립 지원</li> <li>• 진로개척 및 직업역량 향상</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레인보우스쿨 운영</li> <li>2. 진로지원프로그램 운영</li> <li>3. 레인보우체험학교 운영</li> <li>4. 학습역량 향상 지원</li> <li>5. 다독다독카페 운영</li> </ol>
② 심리·정서적 안정과 균형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심리정서 상담 및 사례관리</li> <li>• 정서적 지지 및 역량 강화</li> <li>• 영양, 건강, 체력 등 균형성장 코칭</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담 및 가족연계 프로그램</li> <li>2.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젝트</li> <li>3. 통합캠프 개최</li> <li>4. 이주배경청소년 멘토링</li> <li>5. 체력증진 프로그램 실시</li> </ol>
③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대상 다문화수용성 강화교육</li> <li>• 다문화 전문가·활동가 양성</li> <li>• 다양성 인식과 편견견 의식 향상</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프로그램</li> <li>2. 대외홍보 및 정보 제공</li> <li>3. 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활동가 양성</li> <li>4. 공동체 리더십 장학금지원</li> </ol>

※ 양계민 (2018). 국내 다문화 청소년 정책 10년의 성과와 한계, 향후 정책의 방향성 모색. p. 15에서 발췌

[표 4]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대상 주요 사업(여성가족부)

목 표	추진방안
한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준별 정규 한국어교육(1~4단계, 각 100시간) 및 진학반, 취업대비반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심화과정(특별반) 운영</li> </ul>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발달정도 평가, 언어교육, 부모 상담 및 교육방법 안내 등 서비스</li> </ul>
방문교육(자녀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코칭, 숙제지도 등 자녀생활서비스 제공</li> </ul>
다(多)재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치료 및 상담, 부모자녀관계 향상, 사회성 발달, 미래설계 등</li> </ul>

※ 양계민 (2018). 국내 다문화 청소년 정책 10년의 성과와 한계, 향후 정책의 방향성 모색. p. 15에서 발췌

- 여성가족부는 <표3, 4>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으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무지개청소년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국 사회 조기 적응을 위한 학습과 한국어 교육, 자립, 심리상담,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정책은 기초학력지원과 다문화이해교육, 한국어교육, 심리상담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대상이 이주배경 가정 또는 여성과 미취학 또는 취학연령의 청소년이며,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 그래서 대상자별 다른 이주배경과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를 간과하였고 이는 문화의 차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상자의 욕구 차이를 가지게 함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이 부족한 정책이 되었다.

-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이주배경 후기청소년의 경제활동인구로서의 편입이다. 이들이 안정되고 질 높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통해 더 이상 배려계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다.

### 3. 제안내용

**이주배경 후기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프로그램」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 발굴 및 연계(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 후기청소년 활동지원 매니저 양성 및 취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li> </ul>

#### ■ 개요

- 제 안 명 :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제안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프로그램)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 대 상 : 국내 거주 중인 이주배경 후기청소년(만 18세~24세)
- 주요내용 : 이주배경 후기청소년의 맞춤형 진로서비스 체계 마련
  -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취업지원체계 구축(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협업)
  - 이주배경 청소년 활동 멘토 양성과정(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운영을 통한 특화된 인적 자원 확보
    - 이주배경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이중 문화 및 언어능력을 활용한 멘토 양성
    - 기존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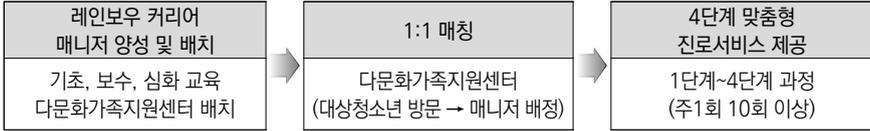
#### ■ 선결과제

- 부처별 연계 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 기존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 추진 검토
- 대상자 발굴 및 연계 방안
  - 교육부 : 재학 중인 이주배경 후기청소년 중 동의자 연계
  - 여성가족부 :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이주배경 후기청소년 중 동의자 연계
  - 개별 지원 이주배경 후기청소년 연계
    - ※ 대상자 연계는 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시스템 적용 참고

#### ■ 세부내용

- 이주배경 후기청소년 진로·취업지원체계 구축

[표 5]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프로그램



1)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양성 교육 프로그램

- 지원자격 : 한국어와 외국어가 가능한 성인(이주배경을 가진 성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대상자(정교사, 보육교사, 상담사, 지도사 등 자격 소지자)
- 교육과정 : 기초, 보수, 심화 3단계

[표 6]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양성 교육과정

과정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기초과정	청소년의 이해, 다문화 이해(문화 감수성)	8시간
보수과정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10시간
심화과정	진학지도, 취업지원(이력서, 면접)	10시간

※ 교육주관 : 고용노동부 국민 취업지원제도와 연계(교육강좌 개설)

2) 1:1 매칭

- 대상 : 동의 또는 지원한 이주배경 후기청소년
- 내용 : 대상 청소년과 양성 된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를 연계하여 대상 청소년의 욕구 파악
- 담당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프로그램 운영

[표 7] 4단계 맞춤형 진로서비스



※ 4단계 맞춤형 진로 서비스

- 1단계(진로 상담) : 다양한 진로 검사 및 상담을 통한 이주배경 후기청소년의 욕구 파악
- 2단계(진로 설계) : 이주배경 후기청소년의 진로 설계(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연계)
- 3단계(체험형서비스) : 이주배경 후기청소년 취업박람회, 이주배경 후기청소년 대학 입시 설명회
  - 고용노동부 주관 취업박람회와 연계 추진
  -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및 청소년시설의 대학 입시 설명회와 연계 추진
- 4단계(맞춤형 서비스)
  - 진학 : 학업 지원, 대학 입시 컨설팅, 학비 지원
  - 취업 : 자격증 취득 지원, 직업 체험 지원(단기), 일 경험 지원(장기)

#### 4. 기대효과

- 신규 고용 창출 :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양성 및 채용
  - 여성가족부 청소년 동반자 기준 적용(고용 형태 및 사례 배정 기준 : 전일제 분기별 24사례)
- 이주배경 후기청소년의 질 높은 취업 지원
  - 레인보우 커리어 매니저 1:1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취업 지원
- 사회경제 활동인구 확보를 통한 사회경제적 안정
  - 지역 사회의 이주배경을 가진 성인에 대한 강점을 살린 새로운 일자리 창출
  - 한국 사회의 사회구성원으로 정착 기회 제공
  - 기존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를 통한 재취업 활성화

#### 5. 참고문헌

- 양계민 (2018). 국내 다문화 청소년 정책 10년의 성과와 한계, 향후 정책의 방향성 모색. 제12회 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 11-24.
- 양계민 (20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윤정, 전기택,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양계민, 최영미, 황정미 (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b>정책 제안명</b>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취업·비자 정책 제안
<b>정책 제안자</b>	김민지(동국대학교 국제다문화학과)
<p><b>1. 현황 및 문제점</b></p> <p>1) 정책 제안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2021년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은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 중점을 둔 공교육 위주의 교육과 한국어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음.</li> <li>■ 특히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국내·외 출생 다문화가정 자녀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이민자의 이전 외국인 배우자 간 출생한 중도입국 자녀는 체류 상황(비자)에서 자유로워 공교육으로의 진입과 적응, 성년이 된 이후의 국내 체류에 문제가 없음.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이기에 성년이 된 이후에도 본인이 바라는 바를 이를 기회는 충분히 있기 때문임.</li> <li>■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또는 사업상 국내에 부모와 입국한 이주배경 청소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성년이 된 후 이주배경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한 가지 밖에 없기 때문임.</li> <li>■ 따라서 본 정책 제안은 19~24세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이하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역량과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체류자격(비자) 시스템 개선을 제안하고자 함.</li> </ul> <p>2) 이주 배경 청소년의 현 정책과 현 정책의 사각지대</p> <p>(1) 이주 배경 청소년의 현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2021)가 발표한 「2021년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i)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 기회 보장(다문화 학생 공교육 진입 제도 안착, 학교 교육 준비도 격차 해소), ii) 학교적응 및 안정적 성장지원(맞춤형 한국어 교육 제공, 학교적응·인재 양성 지원), iii)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 조성(전체 학교의 다문화 교육 확대, 교원의 다문화 교육역량 제고, 가정·지역사회와 연계), iv) 다문화 교육 지원체제 내실화(다문화 교육 법·제도 개선, 코로나19 대응 다문화 교육 지원, 중앙-지역 및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임.</li> <li>■ 교육부는 이주 배경 청소년과 관련하여 공교육으로의 진입과 한국어 교육을 특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8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이하 “전기 이주배경 청소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전기 이주배경 청소년이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진로·취업 문제와 이와 연결된 체류(비자)에 대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음.</li> </ul>	

## (2) 교육부·법무부의 현 정책의 시각지대

- 대한민국 국적과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전기 이주배경 청소년과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은 상술한 바와 같이 본인이 원하는 진학, 취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으로서 성년 이후에 본인의 역량과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있음.
- 하지만 취업, 사업, 주재 등으로 부모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가정으로 구성된 전기 이주배경 청소년은 현재 교육부의 공교육 진입 정책에 따라 대한민국 사회에 동화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으나 그들이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이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i) 전기 이주배경 청소년 시기에 본인의 미래를 선택(취업·교육)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부재, ii) 전기 이주배경 청소년 시기 이후 본인의 체류(비자)자격을 유학(D-2) 비자(일반 한국어 연수(D-4) 포함)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한계, iii)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공교육과 문화를 배우고 익혔고 부모를 포함해 생활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되었지만,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만 19세가 되면 출국해야 하는 상황 등임.
- 요약하면, 전기 이주배경 청소년이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이 되었을 때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극히 제한적이고 극단적임. 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부와 법무부의 정책은 일률적으로 만 19세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3)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 영역

### 가. 청소년의 연령과 성년의 구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조(목적)는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청소년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18조(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이주배경 청소년 등 광의의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교육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법무부는 일률적으로 만 19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체류 자격과 연계된 동반 체류(F-3) 또는 고등학교 이하 비자(D-4-3)의 연장이 불가함을 공지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 근거에 따라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에게도 24세 이하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부모와 함께 체류할 수 있는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임.

#### 나.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선택의 폭 확대

-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교육부가 주관하지만,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며, 구체적인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음.
-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중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103개 과제 중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진로·취업과 관련된 지원 사업은 ‘다문화자녀 진로 지원 워크숍(경기도)’과 ‘다문화자녀 진학·진로 지원(용인시)’이 있음. 다만 용인시의 신규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자녀 진학·진로 지원’은 자녀의 진로를 탐색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학 및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 3월에 대상자를 모집하였지만, 사업 초기라 총사업비는 8백만 원으로 적으며, 목표 대상 인원도 50명에 머무르고 있음.
-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와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교육 프로그램이 중도입국 청소년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정책이 개발되고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성을 체감하여 ‘국제혁신학교’를 2021년 3월에 개교하였지만, 진로·취업 연계와 체류자격에 특례 등은 아직 고려되고 있지 않음.
-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이 본인의 역량과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반 진로·취업이 연계된 교육 뿐만 아니라 이후 법무부에서 책정한 ‘성인(만 19세)’이 되었을 때 체류자격(비자)에 일정 기간 제한을 받지 않거나 (상기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24세까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E-7 비자)을 국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이민 정책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2. 기존 정책과 한계점

### 1) 부처별 기존 다문화·이민 정책(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교육부: 이주배경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공교육 진입, 진로·직업교육 지원, 문화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충, 국제 장학프로그램 확대,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 지역사회 적응지원을 위한 레이보우스쿨을 설치 운영하여 한국어 교육, 진로지도·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청소년기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진로·정서 지원 확대 등.
- 법무부: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이민 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이민 배경 자녀 역량 강화, 이중언어 체계 고도화,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 부 또는 모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등 각종 허가 시 자녀의 취학 여부 확인 제도 실시 등.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상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은 국민과 관련이 없으므로 관련 정책을 생략하기로 함.
- 교육부와 법무부의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다문화·이민 정책은 한국어 교육 등 공교육 진입 지원과 취학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미비한 실정임.

## 2) 부처별 기존 다문화·이민 정책의 한계

- 교육부와 법무부는 첫째,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여성가족부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동법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현재는 제3차(2018~2022)가 진행 중임)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동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국민과 연계된 “다문화가족”만 대상이 되어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다문화·교육·이민 정책은 전무한 상태임.
- 본 「2022년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의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해 “부모 또는 본인이 국경을 넘는 이주의 경험을 지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 결혼 가정 청소년(국내 및 국외 출생), 외국인 가정 청소년(국내 및 국외 출생)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 지원법」, 「출입국관리법」 등 어느 곳에서도 ‘이주배경 청소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부재하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도 ‘이주배경 청소년’의 범위를 국민이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가정으로만 구성된 가족으로 보고 있지 않음.
- 법무부의 「체류 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2.7.25.)」에서도 만 19세(만 19세 생일이 된 날부터)가 된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은 유학(D-2), 일반 한국어 연수(D-4) 또는 전문 취업 자격(특정활동(E-7))을 제외하고는 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음.
-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부처별 기존 다문화·이민 정책의 한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첫째, 부처별로 ‘청소년’과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연령의 상이함, 둘째,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진로·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다문화정책과 법률적 근거 미비, 셋째,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의 취업과 연계된 체류자격(비자)에 대한 논의의 부재 등임.

## 3. 제안내용

### 1) ‘청소년’과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연령의 통일화(교육부·여가부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제3호에는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본 「2022년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해 “부모 또는 본인이 국경을 넘는 이주의 경험을 지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기본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청소년’의 정의 규정을 사용하고 있음.
- 하지만 교육부·여성가족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는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해당 부처에서는 협소하게 이주배경 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즉, 국민과 연계된 이주배경 청소년만 해당). 따라서 부처별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용어를 통일화하고 연령(9세~24세 이하)을 통일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후속 법률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개념을 '이주배경 청소년'까지 추가된 개념으로 통일화와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임.

## 2)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진로·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다문화정책과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교육부·여가부 등)

- 대한민국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간으로 국민과 연계된 정책을 집행하고 있음.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조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동법 제12조(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처우),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제14조(난민의 처우),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 적응) 규정 등 외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례 규정은 없음.

- 즉, 외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의 이주배경 청소년, 특히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의 진로에 관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움.

-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진로·취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진로·취업에 대한 다문화정책 및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이유임.

## 3)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의 취업과 연계된 체류자격(비자) 확대(법무부·고용노동부·교육부·여가부 등)

- 전술한 바와 같이 성인이 되는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의 선택은 유학(D-2) 등 이외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현실임.

-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더라도 현행 특정활동(E-7) 비자의 요건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내 공교육을 마치거나 중도에 성인이 된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은 국내 유학(D-2)이나 일반 한국어 연수(D-4) 이외에는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비자)이 부재함.

-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연령 규정을 적용하여 성년이 된 이후에도 본인의 역량에 따라 자격증 취득 후 취업, 정규 고등학교 과정 졸업 등의 특례 규정 신설이 필요함.

- 이에 관하여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정활동(E-7) 비자의 신설, 24세까지의 유효한 체류자격(F-1 등)을 부여하는 지침 개정이 필요한 이유임.

- 법무부의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체류자격의 연장 및 신설, 고용노동부와 논의를 통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 인정, 24세 전까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1년 취업 후 산업기사 등을 취득하면 특정활동(E-7) 자격으로 변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개정이 필요함.

- 또한 법무부의 현행 '성년' 규정을 「청소년기본법」상 24세까지로 통일화하여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음.

#### 4) 정책 제안의 필수 선결과제

- 상기 정책 제안 1)~3)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관련 부처 간 현 체류자격 상 구분된 '성인'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의 연령 상한인 24세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즉, 법무부에서 외국인 가정으로 구성된 '미성년자의 동반 자격' 규정(현 만 19세 미만)을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 상한 연령(24세까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임.

#### 4. 정책 제안의 기대효과

##### 1) 긍정적인 효과

-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연령의 명확화로 인한 부처 간 해석 차이 개선;
-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과의 차별성 완화 및 전기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정책 연계성 지속 가능;
- 24세 전까지 국내에서 합법 체류하면서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질과 능력개발 및 성장;

##### 2)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나타날 영향 및 파급효과

- 안정적인 체류(비자) 상태에서 학업 또는 취업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장기적인 성장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 3) 학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공교육과 특화교육의 활성화;
-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과 연계된 젊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 지역과 화합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음;
-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5. 참고문헌

교육부 (2021).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법무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법무부 (2021).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법무부 (2022). 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

<b>정책 제안명</b>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앱 ‘마음 덩거당1’
<b>정책 제안자</b>	문 주(맘앤하트 미술치료센터)
<p><b>1. 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만여 명으로, 전체 학생(533만 2천 명)의 3%를 차지함. 2013년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22 청소년통계』, 여성가족부).</li> <li>■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만으로도 힘겨운 현실에서 다문화 배경이라는 이중 굴레에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정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li> <li>■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느끼는 언어적 어려움과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어 이중문화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높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경험함.</li> <li>■ 이주배경청소년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일부 이주배경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불신과 비밀보장 측면에서 지역 상담센터를 선호함.</li> <li>■ 여성가족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근거하여 가족정책서비스인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를 운영. 한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기본 정보와 다문화 관련 최신 정보를 13개 언어로 제공.</li> </ul> <p><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경우 다문화 교육이 소위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 언어 교육으로 크게 나누어짐.</li> <li>■ 교육청 주관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학생 개인과 학급에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4~8회기 등으로 일시적이며,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에 한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한계점을 가짐.</li> <li>■ 학교밖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불안한 심리를 돌보아줄 상대가 희박함.</li> <li>■ 범부처 종합대책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또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이주배경 자녀들의 적응과 교육에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는 비교적 희소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단발성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li> <li>■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심리 안정과 사회성 발달 지원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가족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사를 통해 1:1 전문 심리상담 시작. 한국어가 서툰 아동·청소년을 위해 상담통역지원사가</li> </ul> <p>1) 정거장을 뜻하는 평안도방언(平安道方言)</p>	

모국어 상담을 지원하며, 심리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자녀 관계 향상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다양성 관련 내용도 포함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실제적인 실행 결과는 보고되지 않은 상태.

### 3. 제안내용

- 대상: 이주배경청소년 전 연령
- 내용: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정서를 위한 플랫폼 심리상담서비스 앱 개발 건
- 세부실행방안: 애플리케이션 제작 전문 법인체 수배
- 담당부처: 여성가족부
- 참고사항: 현재 스마트폰 상담으로 큰 성공을 거둔 두 브랜드의 벤치 마킹.  
(ex: 트로스트, 마인드카페)
- 최근 모바일 심리 상담 애플리케이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국내 최초 문자 심리 상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트로스트'의 누적 이용자는 9,000명, 월평균 1,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이 외에도 마인드카페, 헬로마인드케어, 코끼리, 구성토크 등 다양한 심리 상담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용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

### 4. 개발 및 구축 가능성

#### 1) POC(proof of concept) 구축

-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구축이 가능한지, 이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대상 사용자들이 이 앱을 받아들이기 용이한지 등에 대한 결정

#### 2) 와이어프레임 구축

- 앱의 골격 프레임 워크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각적 가이드
- 예시:



### 3) MVP(minimum viable product) 구축

- 앱의 초기 버전을 만드는 단계. 정식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해 줌

### 4) 디자인

- 앱의 로고, 색상, 캐릭터 등을 디자인

### 5) 애플리케이션 제작

- 대표 플랫폼 Android와 iOS 개발 병행

### 6) 홍보

- 각 부처별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협력 기관,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앱 사용법 및 앱에 대한 기능 홍보영상 배포

### 7) 기본상담 / 집중상담

- 기본상담(무료) : 심리척도 검사 및 결과, 가벼운 심리·정서의 불편감은 앱 안의 심리문제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저장된 심리상담 내용을 사용자가 확인.
- 집중상담(유료) : 등록된 심리상담사 또는 예술치료사를 본인이 직접 클릭하여 1:1 채팅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집중상담 인력(심리상담사/예술치료사) 모집 조건
  - 제2외국어 가능자
  - 아동/청소년 미술치료 유경험자
  - 예술치료 석사과정 3학기 이상 재학
  - 다문화에 이해 및 다문화 대상 미술치료 유경험자

## 5. 기대효과

-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신의 고민이나 심리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상담 내용도 기록되지 않으며, 대면 상담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한 점, 시간의 제약 없이 어디서든 휴대폰만 있으면 상담이 가능하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김.
-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신의 고민이나 심리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점, 대면 상담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한 점, 시간의 제약 없이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접근성이 좋음.

-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입력하게 되므로 19~24세의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자, 난민 등 통계 현황에서 제외되었던 실제 이주배경청소년의 통계 측정 에 대한 부분적 해결.

## 6. 참고문헌

- 매거진한경 (2017.02.27.).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온라인 심리상담 메신저 만든 국민대생.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102189666d>
- 서현주, 오영섭 (2022).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중재 프로그램 관련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분석. *교육치료연구*. 14(2), 267-285.
- 성주나 (2021).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기술통합콘텐츠연구*. 4(1), 51-78.
- 아시아경제 (2019.10.14.). 모바일로 심리상담하는 20·30세대.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01114593625091>
- 양계민, 장운선, 정윤미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22). 2022 청소년 통계.
- 여성가족부 (2022). 다누리콜센터 현황.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do?menuSeq=6652&pageSeq=161>
- 여성가족부 (2022.02.04.).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O2Qdt77-9yfoUlohMwav2Jr-.mogef21?mid=news407&bbtSn=708410](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O2Qdt77-9yfoUlohMwav2Jr-.mogef21?mid=news407&bbtSn=708410)
- 연합뉴스 (2020.09.23.). 20대 우울증 환자 4년 새 두 배 증가... “코로나 블루” 실감”.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lIssueDetail.do?tmp1=04&dataSid=6691748&stDate=&endDate=&searchWrd=&pageIndex=1&pageUnit=10&fileName=>
- 이영안, 한연주, 이현승 (2017). 수원시 중도입국청소년 상황실태 조사연구 (SRI-정책-2017-18). 수원: 수원시정연구원.
- 이호정, 김혜정, 김수연, 최한 (2021). 미술치료가 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참여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28(3), 659-672.
- 한국심리학회(The Psychology Times) (2021.05.06.). 급증하는 비대면 심리 상담 앱...효과는?. <http://psytimes.co.kr/m/view.php?idx=1193>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근거기반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세미나자료집 21-S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b>정책 제안명</b>	온라인 매체를 통해 학업 및 진로 교육에 대한 지역 격차 줄이기
<b>정책 제안자</b>	주홍화(성균관대학교 카운슬링센터)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학업 및 진로 탐색 등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부모님도 한국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한국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본국에서 생활했던 문화와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주한 후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쉽지 않고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첫 번째 과제에 직면한다. 따라서 많은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바로 일반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한국 어부터 배워야 하며, 진학 후에도 학업에 대한 어려움과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진로 탐색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학업에서의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진로에 영향을 미치고, 학업 및 진로 고민은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찾고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시스템에 능숙하지 않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일대일로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학업 수행 및 진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필수적이다.</li> </ul> <p><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계민 등(2021)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청소년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지만, 실제 지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진로 결정에 직면하게 되고 사춘기와 겹치면서 더 많은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읍면지역에서 여전히 다문화 청소년의 거주 비율이 높지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많은 부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li> <li>■ 18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취업을 앞둔 19~24세 후기 청소년들에게도 진로 탐색과 결정에 있어서 교육과 적절한 진로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양계민 등(2021)의 연구에 의하면 후기 청소년 대상 진로 탐색 및 진로 이해 프로그램 사업이 부재하고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제안서에서는 고학년일수록 휴대폰과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링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고,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19~24세 후기 청소년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li> </ul> <p><b>3-1. 제안내용 (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18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매체(전화, 화상통화, 줌, 카카오톡 페이스톡 등)를 활용</li> <li>- 멘토들이 일대일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을 매주 1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li> </ul> </li> </ul>	

- 청소년의 ①학업; ②공부 방법; ③진로 교육; ④진로 탐색 필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
- ① 학업: 기초학업을 포함하여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 제공
- ② 공부 방법: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멘토와 함께 연습
- ③ 진로 교육: 주기적으로 진로 교육을 제공 (예, 1회/월)
- ④ 진로 탐색: 대학 진학을 앞두고거나 취업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들과 진로 탐색

■ 실행방안:

1. 멘토 모집	- 이주배경청소년으로 적응한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멘토 우선으로 모집 - 20세 이상의 한국인 멘토 모집. ※ 이주배경청소년으로 학업에 적응하여 대학에 진학하였거나 취직한 멘토를 우선적으로 모집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모델링의 효과를 줄 수 있고 멘토들은 도움이 필요했던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을 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음.
2. 청소년 모집	-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도움받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으로, 전국적으로 학업 및 진로 탐색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을 모집
3. 매칭	- 아동·청소년들이 도움받고 싶은 내용과 멘토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여 매칭
4. 구조화	- 청소년과 멘토들은 멘토링 할 수 있는 매체 방식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구조화 진행
5. 멘토링	-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 도움받고 싶은 큰 주제 정하기 - 매주 정해진 시간에 청소년들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도와주기
6. 멘토 관리	- 멘토는 매주 어떤 내용으로 멘토링 하였는지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사례 회의 진행
7. 청소년 관리	-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적절하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언제까지 도움을 받고 싶은지 확인하고 관리
8. 평가	- 멘토링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 개선

3-2. 제안내용 (2)

■ 대상: 19~24세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

■ 내용:

- 온라인 매체(전화, 화상통화, 줌, 카카오톡 페이스톡 등)를 활용
- 멘토들이 일대일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을 매주 1회 주기적으로 멘토링
- 청소년의 ①진로상담; ②학업; ③진로 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
  - ① 진로상담: 취업이 목표인 청소년에게 진로 교육 및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진로상담 제공
  - ② 학업: 대학에 진학한 후기 청소년들에게는 대학에서 필요한 공부 방법 제공
  - ③ 진로 교육: 주기적으로 진로 교육을 제공 (예, 1회/월)

■ 실행방안:

1. 멘토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대학진학 혹은 취업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멘토 우선으로 모집</li> <li>- 20세 이상의 대학진학 혹은 취업 경험이 있는 한국인 멘토 모집</li> <li>-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사 모집</li> <li>※ 이주배경청소년으로 학업에 적응하여 대학에 진학하였거나 취직한 멘토를 우선적으로 모집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모델링의 효과를 줄 수 있고 멘토들은 도움이 필요했던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을 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음.</li> </ul>
2. 청소년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도움받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으로, 전국적으로 진로 교육 및 진로 탐색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후기 청소년 모집</li> <li>-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진학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및 진로 교육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후기 청소년 모집</li> </ul>
3.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이 도움받고 싶은 내용과 멘토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여 매칭</li> <li>- 깊이 있는 진로상담이 필요할 경우 진로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사 매칭</li> </ul>
4. 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과 멘토들은 멘토링할 수 있는 매체 방식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구조화 진행</li> </ul>
5.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 도움 받고 싶은 큰 주제 정하기</li> <li>- 매주 정해진 시간에 청소년들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도와주기</li> </ul>
6. 멘토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멘토는 매주 어떤 내용으로 멘토링 하였는지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사례 회의 진행</li> </ul>
7. 청소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적절하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언제까지 도움을 받고 싶은지 확인하고 관리</li> </ul>
8.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멘토링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 개선</li> </ul>

■ 유의점:

- 멘토링은 상담과 구별되어 구조화된 상담 형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멘토와 청소년 사이에 지켜야 할 규칙들이 필요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의 감독이 중요하다. (예, 비밀보장, 약속 지키기 등)
- 온라인 매체의 사용 방법 및 유의 사항을 미리 청소년들에게 고지하고 적절하게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음. 온라인 매체를 사용하여 멘토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가 필요하다.

4. 기대효과

- 지방 및 읍면지역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학업 및 진로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청소년이 사회에 진출하여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학업 및 진로뿐만 아니라 한국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한국인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측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 5. 참고문헌

- 서영석, 백근영, 이상학, 이정윤, 황민지 (2017).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아픔과 분투: 사회적 차별로부터의 회복과 성장. 집문당.
-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한지형 (202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임숙, 김희재 (2013).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지원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60, 50-67.
- Wang, C., Li, B., Zhang, L., Liu, Y., & Xu, P. (2021). Prosocial behavior and teachers' attitudes towards bullying on peer victimiz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Examining the cross-level moderating effect of classroom climate. *School Psychology Review*, 1-14.



## ○ — 4. 이중언어 및 한국어



<b>정책 제안명</b>	통합적 이중언어교육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b>정책 제안자</b>	구경석(전라남도국제교육원)
<p><b>1. 필요성 및 문제점</b></p> <p>가.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 청소년이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씩 증가하여 2021년 160,056명으로 전체 학생의 3%를 차지하고 최근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주배경 청소년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국제적 가정환경인 이중언어를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인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li> <li>■ 이주배경 청소년의 특성 중에서 이중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 청소년은 가정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부모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li> <li>- 가정에서 통역이 가능한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이 원활하여 가족 화목에 기여하고</li> <li>-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이중언어를 가르쳐 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지고</li> <li>- 이중언어로 인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진로가 일반 학생에 비해 폭넓게 접근할 수 있고</li> <li>- 한국과 외국인 부모의 모국을 교류하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li> </ul> </li> <li>■ 그러나 이주배경 청소년이 이중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에서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부모가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부끄러워하고</li> <li>-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은 주변의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li> <li>-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항상 혼란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는다.</li> </ul> </li> <li>■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이중언어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이중언어 능력은 가정적인 면에서 가족 구성원의 화목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진로를 확장해 주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p> </div> <p>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기관에서 이중언어교육을 산발적으로 단기간 진행하고 있어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에서는 전국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운영하고</li> <li>- 시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언어강사를 활용하여 시도의 특색에 맞게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고</li> <li>- 시군의 가족센터는 이중언어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이중언어교육을 지원하고</li> </ul> </li> </ul>	

- LG다문화학교는 1:1 이중언어, 방학 중 이중언어 캠프 및 이중언어 능력 시험을 제공하고
- 이중언어에 관심 있는 학교 및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에서도 이중언어교육을 지원하고
- 그 외 다양한 기관(대학의 특수외국어교육지원단, 세이브더칠드런, 올리볼리 등)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한다.
- 학교 구성원의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 교과와 연결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등) 이외의 이중언어는 학교에서 지도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강하고 개발도상국가의 언어에 대한 편견이 심해 강의 개설 및 학생을 모집하기 쉽지 않다.
- 이주배경 청소년의 이중언어에 대한 인식 부족
  -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부모가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창피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부모가 쓰는 이중언어를 무시하고 배우는 것을 싫어한다.
-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서는 이중언어에 대한 정책 부재
  - 교육부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다. 개선 방향

-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중언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필요
  - 교육부 중심의 정책을 만들고 이 속에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중언어교육 연계가 필요하다.
    - 이중언어교육 확산을 위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포함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개선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이중언어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학교 교육공동체의 이중언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부가 이중언어교육 정책을 통합적으로 만들어 학교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2. 기존 정책과 한계점

### 가. 교육부

- (정책) 올해 10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추진하고 있음
- (한계)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중언어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 학교에서 이중언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대회를 출전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이주배경청소년 가정의 외국인 부모 또는 가족센터 강사가 지도해서 대회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체계적인 이중언어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 나. 시도교육청

- (정책) 다문화 언어 강사가 배치된 시도교육청의 경우는 다문화 언어 강사를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

고, 다문화 언어 강사가 배치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가족센터나 이주배경 청소년 가정의 외국인 부모를 활용하여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한계) 다문화 언어 강사의 원거리 배치의 어려움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언어와 다문화 언어 강사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이중언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아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도서나 농어촌의 경우 다문화 언어 강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다문화 언어 강사 인력풀 및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와 같은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를 만들어 현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다. 시군 가족센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정책) 이중언어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 가정 외국인 부모와 자녀(유아)에게 이중 언어 지도를 통해 이중언어 역량을 키워주는 정책 사업
- (한계) 이중언어 강사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이중언어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주배경 청소년의 이중언어 습득에 대한 동기 부여가 약한 학생도 있고, 학부모의 생업으로 이중 언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연계하여 본 사업에 대해 연계 방안을 만들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라. LG다문화학교 및 그 외 기관

- (정책) LG다문화학교는 1:1 이중언어, 방학 중 이중언어 캠프 및 이중언어 능력 시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지원단의 경우 원격 화상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이나 올리볼리 등은 이중언어 관련 동화를 제공해 주는 등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한계) LG다문화학교 등 많은 기관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이중언어 교육을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LG다문화학교, 대학의 특수외국어지원단 등 유관기관은 교육부에서 다문화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함께 연계하여 정책에 포함하면 학교의 다문화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가족센터, LG다문화학교 등 각종 기관은 통일된 정책이 아니라 각 기관의 목표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함에 따라 교육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부가 주관이 되어 연계하고 이중언어 정책을 수립하여 17개 시도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이주배경 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 3. 제안내용

#### 가. 정책 내용

- 이중언어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학교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육과정에 의한 교재를 개발 보급하고

- 학교구성원이 이중언어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인식 개선 연수를 지원하고
- 이중언어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언어강사 인력풀 제공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 이중언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지정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 교육부 외 타 기관 이중언어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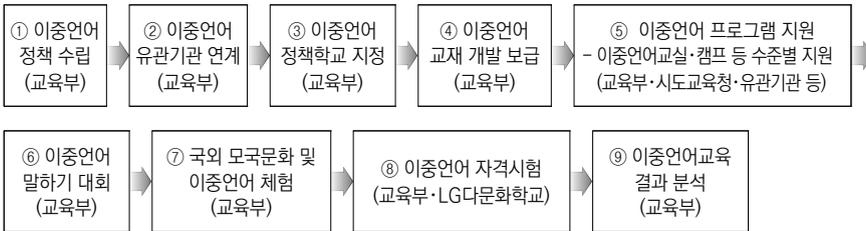
■ 이주배경 청소년의 수준을 고려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하도록 한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신장을 위해 첫째 이주배경 청소년과 학교구성원이 이중언어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이주배경 청소년의 수준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된다.

나. 정책 실행 로드맵



다. 세부 실행 방안

① 이중언어 정책 수립

- 교육부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신장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 수립
- 정책 속에서는 위의 9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이 내용은 교육부가 주관하되 시도교육청과 유관기관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계획 수립 필요
- 소요되는 예산의 다양한 확보방안 강구: ③ 이중언어 정책학교는 교당 500만 원 내외, ⑤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시도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예산의 일정 부분을 확보하도록 요구, ⑦ 국외 모국 문화 및 이중언어 체험은 교육부 자체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 확보

② 이중언어교육 유관기관 연계

- 유관기관: LG다문화학교, 여가부의 시군 가족센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외대 특수외국어사업지원단, 세이브더칠드런, 올리블리 등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이중언어 교육에 활용하도록 협력 필요
- LG다문화학교, 부산외대 특수외국어사업지원단: 원격화상으로 학교 이중언어 교육 지원
- 여가부의 시군 가족센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여가부에서 이중언어교육을 지원하거나, 유아 전체를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 세이브더칠드런, 올리볼리: 이중언어 동화를 학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과 협의
- 유관기관과 연계는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MOU협약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안내해야 한다.

### ③ 이중언어 정책학교 지정

- 교육부는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치원·초중등·한국어학급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정책학교에 이중언어를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이중언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 이중언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타 정책학교와 같이 모든 학생에 대한 다문화감수성과 다문화 학생의 공평한 교육지원을 바탕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특히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수준을 고려하고, 학교와 지역의 실태를 바탕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이 꾸준히 이중언어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교 환경 구성과 프로그램 제공한다.
- 이중언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일반학교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주변 학교에 확산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 ④ 이중언어 교재 개발 보급

- 이중언어교육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이중언어 교재의 부재이다. 기존에 미래에셋대우에서 개발 배포한 교재가 있으나 활용도가 높지 않다.
- 교육부에서는 이중언어 교재를 교육과정과 함께 단계별로 제작해서 시도교육청에 파일로 배부하고, 시도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필요한 수량을 인쇄하여 활용하면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특히 교재를 개발할 때 평가 문항을 포함하여 개발해야 한다. 평가 문항은 지도 강사가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⑤ 이중언어 프로그램 지원

-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운영을 권장하되, 이중언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비롯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의무적으로 이중언어교육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에 삽입해야 한다.
- 이중언어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시·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비의 일부를 확보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프로그램은 수준별로 운영하고, 이주배경 청소년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학생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일반학생만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은 이주배경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과 거리가 먼 관계로 이중언어 교육 지원 사업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 학교에서 이중언어 프로그램 지원 예를 제시한다면 가장 먼저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수준별 학급을 편성하고 수준에 따른 이중언어교육을 지원하고 방학 중에는 수준 높은 이중언어 캠프를 지원하고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매년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 ⑥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교육부가 올해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 5~6년 전만 해도 학교 대회, 교육지원청 대회, 교육청 대회를 통해서 교육부가 전국 대회를 운영했으나 최근에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대회를 생각해도 된다고 하니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대회를 통해서 이주배경 청소년과 일반학생들이 다양한 언어로 이루어지는 대회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배우고 이중언어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학교와 지역청 대회가 생략됨으로써 이중언어교육 확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학교 대회부터 교육부 대회 까지 축제 분위기로 대회를 운영 할 필요가 있다.

#### ⑦ 국외 모국문화 및 이중언어 체험

- 이주배경 청소년이 이중언어를 배우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주배경 청소년 가정의 외국인 부모 국가를 학생들이 방문할 필요가 있다.
- 국외 방문은 해당 국가의 우수한 문화를 통해 외국인 부모에 대한 자부심과 이중언어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학생과의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중언어 사용 능력 향상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언어 능력을 기르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
- 또한 국외 방문을 통해 해당 국가 학생들과 함께 세계적 이슈를 해당 국가 언어로 함께 고민하고 실천 방안을 만들어 세계시민으로서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국외 방문 주관기관, 대상,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 대상: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 및 시도교육청에서 추천받은 중등학생
  - 시기: 이중언어교육이 마무리되는 11월
  - 단구성: 국가별 5명~10명으로 구성하되 대회 수상자를 우선하고 다음 시·도에서 추천받은 학생으로 구성
  - 운영 내용: 해당 국가 문화체험 및 학교 탐방을 통한 세계적 이슈 함께 해결

#### ⑧ 이중언어 자격시험

- 이중언어 자격시험은 '⑤ 이중언어 프로그램 지원'에서 평가 문항을 만들 것을 요청했는데 이 평가 문항은 이중언어 실력을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의 반으로 편성하는 것과 함께 인증서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이중언어 자격시험은 시험 문항과 함께 자격증을 학교장 명의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도록 양식을 파일로 만들어 학교에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이중언어 자격시험은 첫째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이중언어교육을 지원하는 것과 둘째 학생들의 이중언어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한다.

⑨ 이중언어교육 결과 분석

- 이중언어교육 결과 분석은 다문화교육 성과 분석을 할 때 함께 자료를 수합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이중언어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이중언어교육 결과 분석은 초기에 대학에 연구 용역을 주어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면 이중언어 정책 수립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신장으로 그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교육부는 유관기관과 연계, 이중언어 정책학교 지정, 이중언어 교재 개발 보급, 이중언어 프로그램 지원,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국외 모국문화 및 이중언어 체험, 이중언어 자격시험, 이중언어 교육 결과 분석이 포함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이중언어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4. 기대효과

- 이주배경 청소년은 본인이 이중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한국어와 모국어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부모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되고, 스스로는 이중언어를 통해 복수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
- 가정에서 통역이 가능한 이주배경 청소년은 깊이 있는 가족 간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족을 화목하게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이주배경 청소년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이중언어를 가르쳐 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중언어로 인해 이주배경 청소년은 일반학생보다 진로의 폭이 넓고 외국인 부모의 모국에서 삶을 영위 할 수 있으므로 폭넓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중언어교육을 통해 국외의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세계의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하는 기회를 통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과 외국인 부모의 모국과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과 함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중언어 교육은 이주배경 청소년과 일반학생이 함께 함으로써 일반학생들은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 다문화감수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이중언어 교육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향상을 통해 국제교류에 필요한 우리 사회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이중언어 교육은 외국인 부모와 가족에 대한 자긍심, 학교에서의 자존감, 국제교류 인재, 폭넓은 진로 및 세계시민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반학생은 이중언어를 통해 다문화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

<b>정책 제안명</b>	이중언어 교육을 통한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기회 마련
<b>정책 제안자</b>	박옥현(인하대학교 BK21FOUR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이외 언어교육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는 이중언어교육 등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반면, 다문화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교육의 방식은 일방적 학습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다문화 학생은 한국어와 함께 부모 나라(특히,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에 머물러 있다. 반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모국에서 사회화됨으로 인해 모국어에 능통하고,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인가정 학생에게 출신국 언어문화를 소개할 수 있고,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은 어머니의 한국어 학습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반영하여 다문화 학생에게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li> <li>■ 한편 다문화 학생의 강점에 기반한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매해 교육부와 엘지(LG)연암문화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공동으로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본 대회에 참가한 다문화 학생은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중국어, 러시아어 등 18개 언어)로 제시된 주제를 발표한다. 또한 다문화 학생이 가족이나 선후배와 짝을 이루어 이중언어를 발표하는 특별한 무대도 마련되어 있다. 대회 이후 전체 참가 학생에게는 이중언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 프로그램의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예컨대 엘지(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에서 2년 동안 진행되는 언어교육과정에서 1:1 화상 상담(멘토링), 세계적(글로벌) 리더십 캠프,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li> <li>■ 반면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언어교육의 핵심인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의 보완을 위하여 대회 참가자에게 언어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나 이는 언어 학습의 최강점인 상호의존성을 통한 관계 개선 및 교학상장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즉 엘지 사랑의 다문화학교에서 진행되는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다문화 학생에게 일방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강점인 모국어(중도입국 청소년) 또는 한국어(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 능력을 기반으로 한국인 가정 청소년이나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에게 교수할 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하다.</li> <li>■ 또한, 다문화가정에 염연히 존재하는 어머니-자녀 간의 언어장벽(오혜정, 2015:221)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머니와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10.5%)'는 응답은 한국인 가정 청소년의 1.4%보다 월등히 높다(여성가족부, 2019: 498). 부모와의 대화는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고(안정자, 2014: 71), 초기 청소년이 부모와 나누는 대화는 청소년의 시민성에 영향을 미친다(박옥현, 2017: 58-60).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 경험은 심리적 위축을 낳는 반면, 부모와의 대화는 이를 조절한다(유지희, 황숙연, 2018: 185). 특히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높다(신혜숙, 민병철, 2021: 215).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자녀 간의 언어장벽을 깨고 이들의 관계를 개선시킬 소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다문화가정 어머니</li> </ul>	

-자녀 간 탄뎀학습(Tandem Learning)을 통한 이중언어교육일 것이다(박옥현, 김영순, 2021).

- 탄뎀 학습(Tandem Learning)은 서로의 지식을 배우고 싶어 하는 두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을 상대방에게 가르치고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상대방에게 배우는 협동학습의 한 유형이다. 본 제안에서 이중언어 교수-학습자는 다문화가정 부모-자녀(초등 3학년 내외)인데, 이들의 모국어-한국어 능력상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송향근(2004: 57)은 “탄뎀학습 참가자 간에 수준의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으나 각각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관한 한 적어도 해당 학습자보다는 낮기 때문에 생산적인 학습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탄뎀학습을 통한 이중언어교육을 제안한다. 이하 이론적인 배경 등 정책제안에 관하여서는 지면 배분 상 박옥현과 김영순(2022)의 참고를 구한다.

## 2. 기존 정책과 한계점

- 다문화 학생의 언어 교육을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은 각각 「초·중등 교육법」,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근거하여 언어발달, 한국어 교육은 물론 각종 심리, 정서 등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2022)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교육은 한국어 기반 교육 과정에 맞추어 한국어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박영진, 장인실, 2018: 228). 특히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 2009부터 교학력 이주여성의 이중언어 능력과 다문화 역량을 기반으로 다문화 학생의 이중언어를 지원하기 위해 '이중언어 강사' 제도가 시작되었다. 반면 이들의 주요 업무가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중언어 교육보다 다문화 이해 교육이나 일반 학생 대상 제2 언어교육 등으로 변용됨에 따라 이는 2014년부터 '다문화 언어 강사'로 변경되었다(원진숙, 2018: 445-446). 이처럼 다문화 학생의 언어교육을 위한 각 부처의 다각적인 노력과 다르게 현장에서의 접목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한국어 기반 교육과정은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의 언어 지원에 있어 이중언어문화 노출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전제하고, 한국어 지원에 함몰된 부분이 없지 않다(박현선, 이채원, 노현희, 이상균, 2012: 383). 즉 다문화 학생(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강점을 기반으로 하는 이중언어 교육에서 그들이 기존 습득한 모국 언어문화를 활용한 이중언어 교육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에 모국 언어문화를 병용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해력 지도를 제안하며 이에 관한 내용은 박옥현(2022)을 참고하기 바란다.

## 3. 제안내용

### 3.1. 이중언어교육 정책대상

#### 3.1.1. 다문화가정 부모-(국내출생)자녀 간 이중언어교육

- 부모는 양육자이며 최초의 언어교육자이므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 교육은 부모가 그 역할을 담당함이 적합하다. 다만 이들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이들의 한국어 교육은 자녀에게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협동학습으로 유도함이 적합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자녀 간 대화가 필수적인데, 부모-자녀 간 대화는 이들의 심리정서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관계 개선의 여지가 높다. 다만 이들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협동학습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이중언어 학습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및 관리, 감독, 지도 등이 필요하다.

-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운영하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청소년성취포상제를 모델로 함이 요구된다. 즉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운영하는 청소년포상제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활동,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활동으로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포상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자기주도성, 상호의존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모델로 하여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의 관리 감독을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특히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성취포상제에서 요구하는 포상담당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 3.1.2. 중도입국 청소년\_한국인가정 청소년 간 이중언어 교육

- 중도입국 청소년은 모국에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모국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였기에 이들의 이중언어 교육에서 이들은 모국어 교수자의 역할과 한국어 학습자의 역할이 주어진다. 특히 청소년기는 세상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학문의 영역을 넓혀 나아가야 할데, 국내로 입국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증가는 한국인가정 청소년이 넓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인가정 청소년이 서로 언어문화의 차이를 알아보고 학습하는 협동학습반의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 교육부(2022)에 따르면, 다문화학생 비율 30% 이상 학교 수(전교생 100명 이상)는 ('20년) 47교에서 ('21년) 55교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에서는 해당 학교의 다문화학생을 자원으로 한국-다문화 협동학습반(예, 주 1회 CA시간 등)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탄뎀학습을 통한 이중언어문화 학습을 제안한다.

## 3.2. 정책의 내용

### 3.2.1. 이중언어교육 과정

-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자기주도성, 상호의존성 그리고 지속성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성취포상제의 금·은·동장 제도를 활용하여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3단계의 과정(8주, 16주, 24주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각 과정에는 주체 측이 제안하는 기본 과정과 참여자가 제시하는 발굴 과정을 두어 참여자가 모국의 언어문화를 스스로 발굴하고 제안하는 기회를 만들어 줌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중도입국 청소년-한국인가정 청소년이 각자의 언어문화를 소개하고, 교수·학습하며, 관계개선 및 심화 학습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 3.2.2. 탄뎀 학습을 통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소재를 개발하고 단계별로 학습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 동화 관련 사이트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다문화 동화가 제시되는 온라인 사이트 '올리블리 그림동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은 다양한 다문화 도서 자료와 함께 한국어, 영어, 해당 외국어 등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어-모국어 원본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에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가 가정에서 쉽게 자료를 확보하여

단편 학습에 접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한국어-모국어 원본, 단어 및 표현 등)의 개발 및 탑재를 제안한다. 또한 2022년 봄 출간된 '다문화 구비문학대계(신동훈 외, 2022)'는 전 21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내 이주민의 출신국에 맞추어 이들이 발굴한 다양한 구비문학이 제시되었으므로 이를 교재로 활용하여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학습자가 이중언어를 학습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 '올리볼리 그림동화' 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재구성, 확장한다면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추가 자료를 보완하는 데 있어 수월할 것으로 본다.

- 한편 이중언어 교육 참여자들의 단계별 학습 성과를 제출하고 이를 평가하여 금·은·동 3단계마다 승급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구축해 볼 것을 권유한다.

### 3.2.3. 본 이중언어 교육과정 참여 및 단계 도달에 따른 보상 체계 구축

- 이중언어교육은 학습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습 참여자들이 학습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데, 이는 고입, 대입 시 가산점 부여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향상은 TOPIK 급수를 기반으로 점검하여 공공기관 등 취업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이 제출하는 결과물이 출간되고 경제적 보상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더욱 큰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3.3. 유의점 또는 선결과제

3.3.1. 다문화 밀집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권한다.

3.3.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들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관리, 감독하는 포상담당관 역할을 제시하기 전 이들의 업무 역량에 대한 점검 및 사전 조사, 사전 교육 등이 필요하다.

## 4. 기대효과

-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간 소통, 대화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이는 이들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부모와의 대화는 청소년의 심리정서상 안정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의 부담은 경감 될 가능성이 더욱 기대된다.
- 한국어에 묶인 한국 교육과정으로 심리적 위축, 우울 등을 경험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자신을 강점을 기반으로 유능감을 뽐낼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인가정 청소년들은 한국에 함몰된 학습 영역에서 가까이 있는 이주배경 친구들을 통해 넓은 세상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본다.
- 본 단편학습을 통한 이중언어 교육 방안은 몰려드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부족한 준비로 인해 혼돈 속에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다문화 학생 지도 방안의 새로운 돌파구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5. 참고문헌

- 교육부 (2022).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1.11.09.). 두 개의 언어로 표현하는 나의 꿈 - 제9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개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953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박영진, 장인실 (2018).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특성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1(1), 227-260.
- 박옥현, 김영순 (2022).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tandem학습 모델에 관한 연구. 언어와문화, 18(1), 77-102.
- 박옥현 (2022). 모국 언어문화를 병용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해력 지도. 문화와융합, 44(5), 89-118.
- 박현선, 이채원, 노연희, 이상균 (2012). 다문화가정의 이중언어 이중 문화적 양육 환경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 참여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65-388.
- 송향근 (2004) Tandem 언어학습법을 통한 한국어 교육방안 -헬싱키대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국어교과교육연구, 7, 53-72.
- 신동훈, 박현숙, 김정은, 오정미, 조홍윤 외 (2022). 다문화구비문학 대계, 서울: 북코리아.
- 신혜숙, 민병철 (2021). 부모양육태도가 부모자녀 대화시간과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논총, 42(2), 199-223.
- 안정자 (201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 자존감의 관계 연구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대화주제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오혜정 (2015).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특수 아동교육연구, 17(1), 215-237.
- 원진숙 (2018). 한국형 이중언어 강사제도의 현황과 과제-이중언어 강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24, 443-478.
- 유지희, 황숙연 (2018).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대화시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0(4), 169-193.

<b>정책 제안명</b>	'우리들의 book, 콘서트 G!'	
<b>정책 제안자</b>	김지영, 황경미, 유지선(구립 동심어린이집)	
<b>1. 현재 세부적 과제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 수준별 독서지도 프로그램</b>		
1) 현황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한지영, 2021)' 의 연구 결과 및 정책제언을 담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의 영역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표 1] 정책제언의 영역별 과제 <sup>1)</sup>		
영역	과제 - 세부적 과제	
(1)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	(1)-1. 한국어교육의 대상 특성별 체계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한국어교육의 단계별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li> <li>② 수준별 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li> <li>③ 한국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li> </ul>
	(1)-2.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확대</li> <li>- 한국어 강사가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단계적 운영)</li> <li>- 교육청과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센터 등이 정보공유를 통해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하고 교육제공을 협력함</li> </ul>
	(1)-3. 한국어교육의 지역연계 및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한국어교육 대상자 정보 공유</li> <li>- 한국어교육 영역별 연계 협력</li> </ul>
(2) 기초학습역량 강화 (3) 부모역량강화 (4) 지역중심 다문화 청소년 지원정책 추진 시스템 구축 및 강화		
* 출처 :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재구성		
<표 1>에서 제시한 과제들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 한국어교육의 대상 특성별 체계적 운영 중(② 수준별 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 '수준별 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 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p. 422 재구성.		

[표 2] 각 영역별 정책과제<sup>2)</sup>

(1) 한국어교육의 체계화
(1)-1. 한국어교육의 대상특성별 체계적 운영
① 한국어교육의 단계별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 -----.....
② 수준별 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능력 중급 이상인 외국출생자나 국내출생자 중 독해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청소년 독서지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단계별(초급, 중급, 고급), 연령별(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로 나누어 초급은 다문화 청소년끼리, 중급 이상은 일반 청소년프로그램 통합 * 학교, 지역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복지관, 다문화가족센터 등 지역 내 가능한 장소에서 운영 * 찾아가는 독서지도 프로그램 개발 : 일정 인원이 모여 있는 경우 청소년 독서지도사가 학교 또는 지역사회 다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한국어능력별로 독서지도를 함. * 지역 청소년시설이나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청소년전문기관 등이 추진 * 강사: 독서지도사, 다문화청소년이해교육 이수자
③ 한국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 * -----.....

2) 한계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준별 독서지도 프로그램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 (1) 참여자들의 특성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참여자의 다양성이 배제된 채 대부분 전통적인 활동 계획 틀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서지도 프로그램은 참여 대상자들의 한국어 독해력 실력에 따른 수준별 지도가 특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습지도안은 참여자들이 제공된 도서의 문장을 이해하고, 핵심 내용과 느낌 말하기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즉, 참여자들이 이해한 문장을 말하고, 쓰는 다양한 방식(자국어, 이모티콘, 춤, 노랫말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
- (2)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진행자(주체자) 입장에서 기획되었다.  
 참여자가 선정한 학습계획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책'을 선정함에 있어서 책을 읽는 참여자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어떤 프로그램도 참여자가 자율적,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청소년기의 학습적인 부분은 더욱 그러한데, 자신의 수준을 가장 잘 아는 이는 청소년 자신이기 때문에 독서지도사의 책 선정은 참여자들의 흥미를 잃게 하고 시작할 수도 있다.
- (3) 경우에 따라 단계별, 연령별로 나눌 수 있으나, 참여대상의 수준(초급, 중급)을 두고 '이주배경청소년' 만으로 이루어지는 그룹 또는 일반청소년과 통합한 그룹으로 나눈다면 오히려 특별함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다문화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될 수 있다. 20세 이하의 모든 학습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2)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p. 423 재구성.

용을 통한 학습이 매우 중요하며, 학습의 효과 또한 매우 크다.<sup>3)</sup>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로 모은 참여자 집단보다는 또래의 일반청소년과 함께 있을 때 언어실력의 효과가 더욱 크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하고

둘째, 전통적 독서지도 프로그램 방식에 변화를 주고

셋째, 일반 청소년과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통합적 상황에서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확장하고자 한다.

## 2. 프로그램 활동 계획 ('우리들의 book, 콘서트 G!')

이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통적 독서지도 프로그램 방식에 다음과 같이 첫째, 내용 파악 둘째, 활동 주체 셋째, 독후활동에 변화를 주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 독서지도 프로그램과 고안된 프로그램을 비교 설명하면 [표 3]으로 제시할 수 있다.

[표 3] 전통적 독후활동 대 우리들의 book, 콘서트 G! 비교

	전통적 독후활동	'우리들의 book, 콘서트 G!'
내용파악	참여자가 직접 先 책읽기	2회(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 종료 전) 내용파악 - 프로그램 시작(1회) : 또래·교사, 영상등 타인으로부터 先 듣기 - 프로그램 종료 전(2회): 참여자 책 읽기(後읽기)
활동주체	교사 주도	참여자 주도
독후활동	지면을 활용한 그림, 쓰기 등	- 신체의 모든 부분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 (랩, 뮤지컬 또는 노래, 연극, 다양한 퍼포먼스 등)

이러한 방법을 제시한 이유는 첫째, 참여자의 흥미를 증가시켜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고 둘째, 청소년(일반청소년과 이주배경청소년 등)들이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타인의 말을 듣고 기다릴 줄 알고, 이해하는 경험 셋째, 또래 간 협력을 통해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해하기 어려운 또는 책 읽기를 게을리 하는 청소년(일반학생, 기초학력부진 일반학생,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야기 친구(또래, 교사, 영상 등)를 통해 도서내용(줄거리)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고 또래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① 선정도서 내용(줄거리) 알려주기 또는 읽어주기(ex. 이야기 할머니 방식) → ② 작가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 → ③ 자유로운 토의 & 다양한 표현 → ④ 다시 읽는 책, 다시 쓰는 책 → ⑤ 게시하기 \* 학교활동에서 ②는 생략 가능

3) 김민경, 이기정, 2015; 손주미, 남상준, 2018

### 1) 활동계획안 (예시)

활동명	'우리들의 book, 콘서트 G!'		
	대상	중학생	
	선정 책	시리우스에서 온 손님 (글 엄계옥, 출판사 가을비 틴틴 북스)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의 내용 알고 이해하기('고양이와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li> <li>• 찾아낸 방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li> </ul>	
	사전활동	책 읽어 오기(읽기가 어려운 참여자는 읽지 않아도 됨.)	
	활동자료	책, 각종 쓰기 도구, 다양한 소품 등	
도 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또래 학생들이 들려주는 '시리우스에서 온 손님'</li> <li>2. 교사가 들려주는 '시리우스에서 온 손님'</li> <li>3. 영상으로 제작된 스토리로 내용 이해</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을 읽지 않은 학생 또는 한글이 서툴거나, 문장이해력이 낮은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전반적인 책 내용을 먼저 알 수 있게 함.</li> <li>* 활동 시간 배정에 따라 1회기 적용 시간으로 배정할 수 있음.</li> </ul>	
전 개	적용 1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된 도서 '시리우스에서 온 손님'을 또래와 교사에게 내용을 듣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li> <li>1. 내가 '고양이'였다면 어떤 기분일지?</li> <li>2. 고양이와 한 행동들과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li> <li>3. 작가는 왜 시리우스에서 온 손님이라는 제목을 썼을까? 그 함축된 의미는 무엇일까?</li> <li>4. 소재가 된 고양이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li> <li>5. 내가 작가라면 내용 중 어떤 부분을 바꾸어 보고 싶은지?</li> <li>6.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갖는지?</li> <li>7. 공감하는 내용은 어떤 부분인지?</li> <li>8. 작품을 통해 배운 점은 무엇인지?</li> <li>9.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li> <li>*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시리우스에서 온 손님'을 이해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의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아니어도 됨.(수준에 맞게 운용)</li> <li>* 활동 시간 배정에 따라 2회기로 나누어 배정할 수 있음.</li> </ul>
	적용 2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1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li> <li>1. 팀 조직</li> <li>2.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li> <li>- 그림</li> <li>- 극(연극, 뮤지컬 등)</li> <li>- 퍼포먼스(신체표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li> <li>* 다양한 표현의 방식에 따라 지역 사회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멘토 지원함(보컬트레이너, 미술, 댄스학원 등)</li> </ul>
	적용 3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가 다시 읽는 '시리우스에서 온 손님' (개별적으로 갖는 이해의 시간으로 '정독하기')</li> <li>* 나의 book, 콘서트G! : 내가 쓰는 '시리우스에서 온 손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 정독하기(가정에서 과제로 대체 할 수 있음)</li> </ul>
활동평가	우리들의 book, 나의 book 콘서트G! - 인터넷 게시판 또는 학교 오프라인 게시판 홍보, - 책으로 엮음.		

## 2)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

참여자	소속감과 참여자 간 협력심, 문장이해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음.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적학습 의식 욕구 상승.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음.
지도교사	참여자에 대한 이해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음. 교과활동 및 교내행사로 적용할 수 있음.
지역사회	지역구성원들의 생각과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청소년 '북 캠프'로 지역행사로 확장가능.

## 3. 프로그램 확장

### 1) 기존 '북 콘서트' 개념의 변화(직접 체험하며 참여하는 '북 콘서트'로 발상 전환)

책을 매개체로 하는 행사 중 '작가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작가가 자신의 세계관이 담긴 책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활동도 의미가 있겠지만, 콘서트에 참여하는 사람이 생각과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방식이 될 수 있다. 특히 작가의 세계관을 앉아서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작가의 설명 이전에 청소년이 이해한 바를 표현하게 한 후 작가와 소통하게 하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반영한 방식의 참여하는 콘서트가 필요하다. 즉, 지금까지의 북 콘서트 개념에 전환이 필요하다.

### 2) 교육기관의 '북 캠프' 행사

예시된 활동계획안은 최소 3회기~4회기로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캠프(3박4일과 같은 연속된 일정)로 진행되는 청소년 축제와 같은 행사가 될 수 있다.

### 3) 학교 내 타 교과목 수행평가 활동 시 적용

### 4) 교내 행사 적용

- 수상을 목적으로 학급별, 학년별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평가(스티커 붙여주기)

## 4. 프로그램 의의와 제언

### 1) 의의

이 프로그램은 첫째, 전통적인 독후활동 프로그램 적용에서 벗어나 참여자 중심의 독서지도 프로그램이라는 점, 둘째, 앉아서 타인의 말을 듣는 것을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의 특징을 반영하고 셋째, 자기주도적인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자 한 점 넷째, 이주배경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들이 함께 협력하며 할 수 있는 독서지도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2) 제언

첫째,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양계민 외, 2021)의 정책제언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모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정보통신 발달로 변해가는 지금의 사회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특징을 반영한, 직접 체험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5. 참고문헌

김민경, 이기정 (2015). 역할반전 또래교수가 읽기학습부진아의 읽기유창성 및 학업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장애연구, 12(2), 185-201.

손주미, 남상준 (2018). 초등 사회과 수업의 또래학습 대화에 나타난 지식의 사회적 구성. 사회과교육연구, 25(1), 49-62.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한지형 (202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b>정책 제안명</b>	공교육 체계 내 소수자 모어 교육 지원
<b>정책 제안자</b>	도모, 조위수(부산외국어대학교)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어 능력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초등 저학년의 다문화 학생들은 언어 능력이 빠르게 확장하는 발달 단계에 처해 있음. 현지어가 나날이 늘어가면서 모어는 지속적인 교육이 없으면 잊어버리게 됨. 모어의 상실은 제2 언어인 현지어의 습득, 긍정적 정체성의 형성, 가족 간의 유대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li> <li>■ 중도입국 학생이나 외국인가정 자녀 등과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어로 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초등저학년 학생들은 초기 적응 단계에서 갑자기 집중적 한국어 중심의 언어교육으로 인해 정체성 혼란, 학업 부진, 모어 퇴행이나 상실의 경우가 많음.</li> <li>■ 학생들은 단기간에 일상적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습득할 수 있지만, 학업에 필요한 학문적 언어 능력은 짧은 기간 내에(연구에 따라 5~7년 필요) 일반 한국 학생들을 뒤따라 잡지 못해서 학업 성취도가 낮아 학업 부진 확률이 높음.</li> <li>■ 교육부에서 최근 몇 년간 교재 제공과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모어 교육에 관한 정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li> <li>■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에서 산발적인 소수자 언어교육(주로 방과 후 형식으로 운영)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업 참여 인원수, 수업 시수, 수업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대다수의 이주 배경학생들이 학교에서 모어를 유지·신장할 기회가 많이 부족함.</li> </ul> <p><b>2. 해외 연구 및 해외 소수자 모어 교육 지원 사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ESCO, UNICEF 등 국제기구들은 1990년대부터 모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1999년 2월 21일을 '세계 모어의 날(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로 지정해 모어 교육을 권장하고 있음. '세계 모어의 날'을 지정한 취지는 아동의 모어 교육을 기본 인권으로 인정해 학교,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모어 교육의 이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li> <li>■ Fernand(2020)는 소수언어를 모어로 쓰는 아동들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언어(모어)로 교육을 받을 때 더 좋은 학업 성적을 얻고, 중도 탈퇴 확률이 더 낮기에 모어를 익힐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은 물론 공용어나 주요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함<sup>1)</sup>.</li> <li>■ Cummins(1991)는 모어와 현지어의 발달 정도는 상호의존적 관계가 있으며, 모어의 튼튼한 기반이 현지어의 학습에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주장함.</li> </ul> <p>1) 「人权专家：必须让土著人和少数民族儿童用自己的母语学习」, 联合国新闻, 文化与教育 (2020.3.11.). <a href="http://news.un.org/zh/story/2020/03/1052571">http://news.un.org/zh/story/2020/03/1052571</a>에서 2022년 6월 8일 인출</p>	

- 한국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국가에서 다언어 다문화 배경 학생에 대한 언어 교육 정책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주류 언어를 교육하는 것과 동시에 다문화 배경 학생의 모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이중언어교육으로 요약됨.
- 스웨덴은 이민 배경 아동의 모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이미 1977년에 모어 교육을 법으로 규정해 의무화하였고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박현숙, 2018). 이민통합정책의 종합적인 국제기준으로 이주 국가의 정책이 얼마나 이민자를 수용하는지를 측정, 평가하는 정책 측정 도구인 이민통합정책지수(MIPEX,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에서 스웨덴은 인도주의적이고 보편주의적인 다문화 정책을 온전하게 펼치는 소수의 국가로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학령기 아동 8명 중 1명이 모어가 소수언어인 만큼 공교육에서 소수언어를 모어로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분야의 대규모 조사와 연구 성과도 풍부함(나카지마 카즈코, 2012).
- 캐나다는 1967년부터 연방 정부 차원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하는 이중언어 제도를 시행하였고, 공립학교 교육 제도에서 공용어와 비공용어<sup>2)</sup> 모두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교육 제도를 확보하였음(강휘원, 2009). 여기서 말하는 공용어 이중언어교육은 영어와 프랑스어 간의 이중언어교육을 가리키며, 비공용어 이중언어교육은 이민 배경 학생들이 자신의 모어와 하나의 공용어(영어와 프랑스어 중 택일)를 능숙하게 육성하는 교육임. 이것은 소수 언어집단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언어 소수자 모어 교육'(Heritage Language Program) 또는 '계승어<sup>3)</sup> 교육'을 들 수 있음(신선아, 2019).

### 3. 기존 정책과 한계점

-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일회성 행사, 교재의 개발 및 보급은 일시적 지원의 형태로 실질적인 이중언어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중언어교육과 관련성 있는 이중언어 강사 육성 사업도 재정보장과 지원 부족으로 중단됨.
  - 교육부에서 주관한 이중언어 강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이중언어와 관련이 있는 과목은 '다문화 사회와 이중언어 교육'뿐 대부분은 한국 사회,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에 치중되어 있음. 이중언어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이지만 오히려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학습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교육으로 볼 수 있음.
- '이중언어 강사'는 '다문화 언어 강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요 담당업무는 학생들의 이중언어 교육이 아니라, '의사소통(통번역)', '학생 상담', '학습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

- 2) 공용어: 한 나라에서 법으로 제정한 언어로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  
비공용어: 캐나다 국내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언어(박정은, 2009).
- 3) 계승어는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공용어나 주류 언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수언어를 말함.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 그리고 토착민 언어를 제외한 다른 소수집단의 언어를 가리키는데, 한국의 경우 한국어를 모어로 쓰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의 언어, 결혼이주여성의 언어 등이 이에 해당함.

-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는 지금까지 9회 열렸으며 매년 50명 안팎의 다문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음. 2021년에는 무려 18개에 달하는 언어가 참가하였고 수상자에게는 후속 언어 지원을 받을 기회가 주어짐. 비록 정부의 대회 개최의 목적은 격려의 목적이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중언어교육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추진된 성과 위주의 행사라는 지적이 있음(신선아, 2019).
- 최근 5년간 교육부가 발표한 이중언어 교육 정책을 보면 일부 사업이 전개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음. 현재 공교육에서 이중언어교육의 비중은 매우 작고 규모나 체계 구축에서는 앞으로 보완 할 점이 많음.

#### 4. 제안내용

- 동화주의적 방식은 이제 더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으므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해야 함(황진영, 2012). 캐나다, 스웨덴, 미국 등은 공교육 안에서 다문화 배경 학생에게 주류 언어뿐만 아니라 모어 교육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 학생에게 언어적 정의(正義)를 실현하고 모어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면서 개인의 발달을 도모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유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함.
- 소수언어 학생의 모어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이들의 언어권리를 기본 인권으로 존중하고 이들의 모어를 사회적 자원으로 간주하는 것임. 언어권리는 어떤 개인이든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 인권으로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기본권리를 강조함 (Skutnabb-Kangas, 2010).
- 이중언어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이중언어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관건임. 이중언어교육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前) 단계의 이중언어 교육성과는 물거품이 됨. 따라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때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통합된 이중언어 교육체제를 구축해 이중언어교육의 효과를 확보해야 함.
- 다문화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교육을 공교육 체계 안에서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약세에 처해 있는 소수자의 언어와 문화를 보호·신장하고 이들의 언어권리의 존중과 유지를 제창할 뿐만 아니라, 구속력이 있는 법규와 정책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모어가 공교육 체계 안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 할 필요가 있음.
- 공교육 체계 내 소수자 모어 교육 지원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목표	이중언어능력을 겸비하고 국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	
인재상	한국어와 소수자 모어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	
대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	
선결과제	이중언어교육과정 설계	이중언어 교사 양성
	표준화 교재 개발	
시스템 구축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의 장기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이주배경청소년 출신 배경국 관련 부처와 협력해 프로그램 조직과 운영, 교육 자원의 선택 및 제공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특별 전문 시스템을 마련함.	
적용예시	<p><b>초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 적응 단계에서 같은 언어집단의 학생 수가 일정한 인 원수에 도달할 때, 학교 측은 한국어 교육은 별도의 과목으로 설치하고 언어능력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음악, 체육, 미술 등의 교과목은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함. 이외 내용이 복잡한 교과목은 학생들의 모어로 수업을 진행함.</li> <li>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한국어와 소수자 모어로 수업하는 비율을 1:1로 맞춤.</li> <li>초기 단계의 소수언어와 한국어 교육의 비율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거나 전문가, 학부모, 학교 등 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조절할 수 있음.</li> <li>일반 한국 학생 중 희망자의 경우 소수자 언어수업에 참여가 가능함.</li> </ul>	<p><b>중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 단계에 구축된 이중 언어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 시킬 수 있도록 모어 교육을 원하는 학생이 일정 인 원수가 되면, 중학교 측은 의무적으로 해당 언어집단 학생에게 모어 교육을 지원함.(기회제공 의무화)</li> </ul>

**5. 기대효과**

-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모어 교육은 다문화 학생의 모어 및 문화를 촉진하고 모어 상실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방지함. 모어 교육과 주류 사회의 언어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학생들은 정서적 안정감, 긍정적 정체성의 확립, 이주 부모와의 유대감, 학업 성취도, 자신감 및 자존감, 열린 세계관(세계 시민의식)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 장기 비전으로 기획한 체계적인 언어교육은 두 언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켜 양 문화를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중언어 전문가를 양성함. (사고의 유연성, 언어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이 뛰어남, 상대가 처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함, 언어에 대한 인종 편견이 없음.)
- 이렇게 성장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향후 국가 언어 자원을 풍부하게 하며(국가 경쟁력 향상)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음. 또한 청소년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사회의 하위 계층을 형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이들의 빈곤, 실업, 교정 등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공교육 내에서 다문화 학생의 언어, 문화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줄 때 학교 밖의 언어 다양성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맞설 수 있음. 학교 밖의 억압적인 힘과 대항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실제로 다문화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아 인식을 유도하며 미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일반 한국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며 이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교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됨.

## 6. 참고문헌

- 강휘원 (2009). 캐나다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이중언어정책. 국가정책연구, 23(3), 193-223.
- 나카지마 카즈코 (2012). 이중언어와 다언어의 교육-캐나다·미국·일본의 연구와 실천 (이미숙, 조 선영, 장근수 역). 서울: 한글파크.
- 도묘 (2022). 다문화 학생의 모어 교육에 관한 연구-해외 공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 (2009). 캐나다의 언어정책과 다문화주의 -공용어와 계승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 화학, 6(1), 1-27.
- 박현숙 (2018). 스웨덴의 모국어교육. 스칸디나비아연구, 22, 117-148.
- 신선아 (2019). 한국의 이중언어교육 현실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진영 (2012).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중언어교육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 Cummins, J. (1991). Interdependence of first and second language proficiency in bilingual children. Language processing in bilingual children, 70-89.
- Skutnabb-Kangas, T. (2009). The stakes: Linguistic diversity, linguistic human rights and mother-tongue-based multilingual education-or linguistic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an even faster destruction of biodiversity and our planet. Bamako International Forum on Multilingualism, 19-21.
- 「人权专家：必须让土著人和少数民族儿童用自己的母语学习」, 联合国新闻, 文化与教育 (2020.3.11.). <http://news.un.org/zh/story/2020/03/1052571>에서 2022년 6월 8일 일 인출

<b>정책 제안명</b>	이중언어학교 설립 및 이중언어교실 개설
<b>정책 제안자</b>	최은탁(한국교통대학교)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다문화가정 학생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어머니나라언어를 가르쳤는데,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사용할 기회도 없고, 학교 수업에다 학원수업까지 해서 시간도 부족하고, 결정적 원인은 친구들은 배우지 않는데 저 혼자만 배우고 있으니 필요성을 느끼고 못해 결국 포기했습니다.</li> <li>■ 이주배경청소년에게 가장 큰 장점은 부모 나라 언어를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점 이죠. 하지만 현재 정책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부모 나라 언어를 배우게 하는 동기가 부족합니다.</li> </ul> <p><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정책은 이중언어를 집에서 배우고 이중언어 말하기대회에 참가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센터에서 이중언어교실도 운영 하지만 언어가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한정되어있고 청소년이 주 1회 하고 후나 주말을 이용해 센터로 이동해야 하는 점 때문에 교육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친 거 같습니다.</li> <li>■ 주 1회로 외국어 배우기가 시간상 부족하고, 장소도 집에서 센터까지 이동하는데 시간과 교통비 등 불편과 불안전 요소가 있습니다.</li> </ul> <p><b>3. 제안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언어학교 설립을 제안합니다.</li> <li>■ 이주배경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중언어 학교를 설립해서 한국 초중고 교육과정 외에 매일 1교시 외국어 수업을 추가합니다.</li> <li>■ 정규수업 후 외국어 수업 시 각자 언어별로 반을 다시 구성해 부모나라 언어(예: 태국어, 네팔어, 스리랑카어 등)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짐.</li> <li>■ 강사는 결혼이민자 중에서 선발하고, 외대에 해당 언어 전공 학생 중에서 보조강사를 선발해서 한국어 등 기타 학업도 지도.</li> <li>■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외국에 2년 이상 거주한 한국 학생도 선발 대상으로 함.</li> <li>■ 중도 입학생은 외국어 시험을 통해서 입학 후 수업에 지장이 없으면 입학 가능.</li> </ul>	

#### 4. 기대효과

- 이중언어 학교의 설립을 통해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소 언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이중언어학교의 설립을 통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부모 나라 언어를 배우는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교육에도 이중언어 학교의 설립이 긍정적인 효과 기대할 수 있고 이주배경청소년이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고 학교생활에도 자신감을 제고 할 수 있습니다.

<b>정책 제안명</b>	이중언어를 활용한 이주배경 학생 학습 지원 - 이중언어 사용가능한 다문화 전문교사 신설
<b>정책 제안자</b>	박정은(군서미래국제학교)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 적응, 한국어 지도, 심리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교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태임</li> <li>■ 다양한 문화 배경 학생들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상호문화 이해교육과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의 다문화 교육의 스펙트럼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음</li> <li>■ 교사의 주기적인 학교 이동으로 이주배경 학생 지도 경험을 가진 교사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사장 되는 경우가 많음</li> <li>■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 등 상담이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li> </ul> <p><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언어강사, 한국어 강사, 멘토-멘티제 등을 활용하여 이주배경 아동에 대해 개별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해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움</li> <li>■ 다문화 언어강사 지원을 통해 모국어 및 한국어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실 내 통역이나 한글 지도 등 단순 학습 보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li> <li>■ 광주시 교육청, 제주도 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에서 직무연수를 통한 다문화교육 전문교사를 양성하였으나 일반교사에 대한 보수교육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음</li> <li>■ 다문화 특별학급 운영교사가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적응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주배경 학생지도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교사가 기피하고 있음</li> <li>■ 이중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가 있어도 다양한 이유로 이주배경 학생과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li> <li>■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으므로 소수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벗어나 이중언어를 활용한 이주배경 학생의 학습지도, 상담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li> </ul> <p><b>3. 제안내용</b></p> <p><input type="checkbox"/> 이중언어 사용 가능한 다문화 전문교사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 학생 지도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다문화 전문교사로 배치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li> </ul>	

- 이중언어 사용을 자격기준으로 하여 다문화 전문교사를 선발하고 이주배경 학생과의 소통이 원활한 교사를 학교에 배치
- 언어 관련 사범대학에서 다문화 관련 학점 이수 시 다문화 전문교사로 임용 또는 언어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다문화 전문교사로 임용되도록 임용 체제 개편
- 이주배경 학생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에 다문화 전문교사를 의무 배치하고 이중언어를 사용한 수업을 통해 이주배경 학생의 학습 부진이 생기지 않도록 학습지원

#### 4. 기대효과

- 이주배경 학생 지도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이주배경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이주배경 학생의 언어가 가능한 교사의 배치로 한국어가 어려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높이고 학생의 모국어로 학습을 지원하여 이주배경 학생의 학습 부진이 생기지 않도록 학습지원

<b>정책 제안명</b>	부모나라 언어전공자 등록금 전액지원
<b>정책 제안자</b>	여미옥(다문화강사)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다문화학생의 장점을 살려 나라의 인재를 보다 경제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li> <li>■ 현재 우리 사회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장점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부모교육, 이중언어 교실,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등등. 하지만, 다문화가정 부모의 인식은 아직도 한국어를 못해서 학업이 영향을 미칠 걱정이 우선이고, 결혼이민한 부모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li> </ul> <p><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이중언어교육의 지원 대상은 초·중등 학생 위주이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는 지원이 없습니다.</li> </ul> <p><b>3. 제안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대상: 대학으로 진학한 다문화가정학생</li> <li>■ 정책내용: 부모 중 외국인 부 또는 모의 나라 언어를 대학 전공으로 진학할 경우 4년 동안 전액 장학금 지원.</li> <li>■ 담당부처: 여성가족부, 교육부.</li> <li>■ 세부 실행방안: 대학 진학 후부터 전액 장학금 지원하고, 지원기준은 전공언어 성적이 상위 50% 이상 시 전액 지원 실행. 전공언어 성적이 상위 50% 이하 시 성적별로 차감. 예: 상위 70% 시 장학금 30% 지원, 상위 80% 시 장학금 20% 지원.</li> </ul> <p><b>4. 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학금 전액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이 진학 진로를 유도할 수 있고, 취약계층의 다문화학생들이 대학진로의 희망이 생길 수 있으며, 부모나라의 언어대해 관심을 갖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li> <li>■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원인도 있고, 부모의 한국어 및 정보력이 부족한 원인도 있고, 이 정책을 실행하면 결혼이민부모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자녀의 대학전공언어를 어린시절부터 비용 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li> <li>■ 다문화학생들의 진로가 넓어지고, 다문화 인식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li> </ul>	

## ○ — 5. 진로 및 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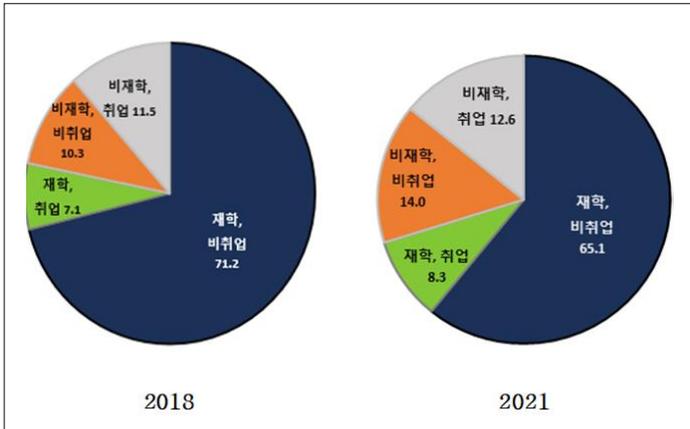
<b>정책 제안명</b>	다문화 청소년 기술직업교육학교 추가 설립
<b>정책 제안자</b>	변경환(한국폴리텍 다승고등학교)

### 1. 현황 및 문제점

#### □ 이주배경 청소년 현황 및 문제점

- (2021 교육통계) 다문화학생은 초등학생 111,371명이며, 중학생은 33,950명, 고등학생은 14,308명으로서 점차 중학생 및 고등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가정 자녀를 포함한 인원임
- 2018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 중 33.2%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음
  - 13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진로·진학·직업 부분에서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었음 (48.2%)
- \*NEET(비재학·비취업) 상태의 증가
  - 2018 조사 : 10.3% ⇨ 2021 조사 : 14.0%(약 3천 명 이상)
  - \* 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진학이나 취업도 안 하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상태)

만 15세~24세 다문화가족 자녀의 재학, 취업 상태



#### □ 첨단산업 기술직 인재 증원 현황 및 문제점

- 교육부, 첨단산업 인재 양성 TF 구성, 관련 학과 정원 5,700명 증원(시사저널 2022.07.19. 외)

- 반도체 인재 양성도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우려(경향신문 2022.07.19. 외)
- 현재 산업계에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메타버스, 프로그램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된 상태임
  - 보다 일찍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선제적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필요함

NEET족을 포함한 다문화자녀들이 주로 고민하는 진로 분야에 최근의 기술인재 수요 트렌드를 접목해 산업계와 다문화자녀들의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2. 기존 정책과 한계점

### □ 기존 정책

-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대안학교 2곳 운영
  - 2010년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학교설립 확정 및 추진기획단 구성
  - 2011년 사회통합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교육청 MOU 체결
  - 2012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충북 제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서울 종로) 개교

#### (충북 제천)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자립 가능한 직업능력 부여 ⇔ 안정된 사회통합 실현
- 고용노동부 산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공공기관)에서 운영, 사립학교
- 교육청 학력인정 각종 대안학교로서 총 135명 정원의 기숙형 학교(전교생)
- 전공학과: Computer기계, Plant설비, Smart전기 [산업 계열 학과]
- 무상교육(학비, 기숙사 숙식비 등)

#### (서울 종로)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 이주배경 자녀 대상 미래 사회에 필요한 전문기술인 육성 ⇔ 안정된 사회통합 실현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학교
- 교육청 학력인정 각종 대안학교로서 총 120명 정원의 비기숙형 학교(통학)
- 전공학과: 관광콘텐츠과, 관광서비스과 [서비스 계열 학과]
- 무상교육(학비 등)

### □ 한계점

- (지역 불균형)다문화 자녀 직업교육학교가 서울 및 중부지역으로 한정됨
  -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모집을 하고 있으나 수도권에서의 접근성보다 남부권에서의 접근성 결여로 남부 지역학생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의 경우, 비기숙형학교로서 서울지역 학생들만 통학하는 한계가 있음
- (전공학과 한계)두 학교는 기초 산업계열 및 서비스계열 학과를 운영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다문화 학생들에 의해 충원할 필요도 있음

- (직업교육 정원 확대 필요) 현재 두 학교 정원은 총 255명임. 전체 다문화자녀 대비 소수에 불과하여 직업교육 대상자를 늘릴 필요가 있음

### 3. 제안내용

#### □ 왜 한국폴리텍인가?

- 전국단위 캠퍼스 40여 개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공공기관)에 주목
  - (노하우) 현재 한국폴리텍 다송고등학교를 운영하여 다문화자녀 기술교육 노하우 축적
  - (첨단기술) 인공지능(AI), 반도체,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 교육학과들을 이미 운영 중

#### □ (제안) 다문화 청소년 기술직업교육학교 추가 설립

##### 가. 정책 대상

- 국내 다문화 가족 자녀(한국태생 및 중도입국자녀 포함)

##### 나. 정책 내용

- 기존의 다문화자녀 직업교육 학교가 남부권에 없으므로 특히 서남부권에 학교를 추가로 설립 하는 안 추진
- 세부 전공 학과로서는 산업계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으로 추진

##### 다. 세부 추진 사항

- (주관 부처) 청와대 및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 등 각 부처 협동 사업으로 추진
- 부처별 핵심 추진 사항

부처	핵심 지원 업무
시민사회수석	(종교다문화비서관) 관련 기관 협의 컨트롤 타워
사회수석	(고용노동비서관) 학교설립 추진 진행사항 감독 및 보고
고용노동부	학교설립 추진 및 조정 역할, 한국폴리텍 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이주배경 다문화 자녀 대상 학교 홍보 지원
교육부-교육청	학교 설립 인가 및 시설 관련 특별교부금 지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학교 설립 세부 진행 사항 추진

- 학교 운영: 고용노동부 산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학교 위치: 전라도권(안-한국폴리텍 광주캠퍼스 유휴 부지 등)
- 학교 형태: 사립 각종 대안학교(고등학교 학력인정)

- 학과 운영: 반도체, AI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 학과 2개 운영
- 교육 대상: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및 취업 여건이 허락되면 외국인가정 자녀도 대상에 포함 고려)
- 학생 정원: 각 학과별 20명 정원, 총 6학급 120명 정원
- 설립 절차: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설립절차와 유사하게 추진

단계	기한	추진 절차
1단계	2022	정부부처 협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사회수석-고용노동부-교육부-여성가족부)
2단계	2022	관련기관 MOU (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한국폴리텍-관련 교육청)
3단계	2023	학교 부지 확보 및 설립 인가 절차 진행, 시설 공사
4단계	2023	교원 확보 및 신입생 모집
5단계	2024	개교

- 학교 운영 방식
  - 전교생 기숙사 생활 및 전국 단위 학생 모집
  -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천 다솜고등학교 교원들을 순회 배치함으로써 개교 후 빠른 학교 운영 정착 가능
- 참고사항
  - 예산 부분1: 학교부지 및 교육시설-한국폴리텍 부담, 기숙사 확보-교육부 부담
  - 예산 부분2: 1년 평균 예산 약 16억8천만 원 소요 예상  
※ 현재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평균 예산 19억(1년) ÷ 135명=(1인당)약 14,000,000원 감안 / 학교 알리미 참조
- 추진 시 유의점
  - 예산 관련 기획재정부 협의 필요. 이에 따라 중앙부처 추진 정책으로 진행 요망

#### 4. 기대효과

- (다문화 청소년) 진학 및 취업 고민을 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애로사항 충족
  - 특히 NEET 상태의 다문화자녀들에게 배움의 동기 제공 가능
  -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 대상 교육기회 제공 확대
- (지역격차해소) 서울 및 중부권에 치우친 다문화자녀 직업교육을 남부지역으로 확대

- (기술 인재 양성) 첨단 산업 기술 인력 수요를 다문화자녀로 일부 충원
  - 남녀 동반 고용 가능한 분야를 전공으로 개설하여 양성평등 교육 및 고용 효과
- (학교 교육) 중도입국 다문화 자녀를 포함한 학교 교육으로서 종합적인 지원 가능
  - 기초학력지도, 인성교육지도, 한국어 및 이중언어교육, 지역사회 연계 교육 가능
- (직업교육) 다문화자녀가 국가에서 받고 싶어 하는 직업교육훈련 수요에 충족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보통신 관련 교육: 남학생 1순위, 여학생 4순위였음
- (전수) 다문화자녀 기술교육 노하우를 여타의 전문계 교교로 확대 전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협업)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처 간 대표적 협업 사업으로 파급 효과 기대

## 5. 참고문헌

경향신문 (2022.07.19.). 반도체 인재 양성도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우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7191541011>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시사저널 (2022.07.19.). “10년간 15만 명 키운다” 반도체 인재 양성에 사활 건 정부.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460>

여성가족부 (2022.06.27.). 다문화가족 자녀의 43.9%가 청소년·학령기에 맞춤형 지원 필요성 커져 -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627](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627)

최윤정,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정해숙, 양계민, 이은아, 황정미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 2019-01). 서울: 여성가족부.

학교알리미. <https://www.schoolinfo.go.kr/Main.do>

<b>정책 제안명</b>	중도입국청소년 고등교육 및 취업지원 정책 방안 <sup>1)</sup>
<b>정책 제안자</b>	채소린(건국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 집단 중 중도입국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낮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결과 중도입국청소년의 재학 상태는 비재학 상태가 56.6%이다. 재학 중인 43.4%의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급 분포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13.8%, 초등학교 10.7%, 중학교 9.8%, 대학교(4년제 이상) 5.9%, 대학교(4년제 미만) 3.1%로 나타났다. 비재학 청소년들은 대부분 18세 이상(56.6%)이었으며, 만 17세 미만의 20.8%, 12~14세의 5.8%, 9~11세의 7.1%가 비재학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학업중단 비율을 보면, 9~11세, 15~17세는 각각 2.5%에 불과하나 18세 이상에서는 10.6%로 네 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더해 9~11세의 4.7%, 12~14세의 5.8%, 15~17세의 18.1%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학령기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특히 학업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이선, 최윤정, 동제연, 신현옥, 2016: 77-79).</li> <li>■ “이주배경청소년의 취업 및 자립”에 대한 연구결과, 15~29세 청년층 전체의 고용률은 내국인에 비해 낮지 않았으나 20대 청년층 고용률은 내국인 청년층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청년층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2017년 기준)를 살펴보면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가 각각 27.4%, 21.7%로 전체의 절반에 해당되는 49.1%를 차지하고 있었고, 서비스 판매종사자 비율은 24.8%, 관리자·종사자 비율은 12.5%로 나타났다. 이주배경청년층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임금분포(2017년 기준)를 살펴보면 100만~200만 원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300만 원 32.6%, 100만 원 미만 9.0%, 300만 원 이상 5.7%의 순이었다 (이규용, 강동우, 김이선, 최윤정, 주수인, 2018).</li> <li>■ 이러한 현실은 가족을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청년기로 진입하면서 점차 부모 세대가 진입했던 단순노무 직종, 기술 및 서비스 직종에 시간차를 두고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이주 후 외국인 유학생, 전문직 외국인의 위치로 이동하기 원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수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이주노동자의 위치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li> <li>■ 최근 발표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40.5%였으며, 이는 전체 국민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71.5%)에 비해 31%p 낮은 수치였고 초등학교(3.1%p), 중학교(2.2%p), 고등학교(1.6%p)에 비해 취학률 격차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자녀를 비롯한 이주배경청소년 집단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정책은 이주민 2시대 해당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르지 않고 주류사회로 통합되는데 중요한 정책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고등교육 지원정책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li> </ul> </li> </ul>	
<p>1) 이번 정책제안은 정책제안자의 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게재한 “채소린(2022). 중국 출신 중도입국청소년의 대학교육 의미와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교육인류학연구, 25(2), 291-328.”의 내용의 일부를 재구성함.</p>	

이번 정책 제안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가운데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기존 정책과 한계점

- 현재 시행되고 있는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살펴보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중도입국자녀의 교육 및 진로지원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중심으로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학 및 학교 적응을 주관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학교밖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표1] 참조).

[표 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sup>2)</sup>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내용	담당부처
한국어교육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수준 제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조기적응을 돕는 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방식 다양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공교육 진입지원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교육부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확대 및 내실화	교육부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 취업사관학교 운영 및 훈련과정 확대	여성가족부

- [표1]을 살펴보면 중도입국자녀 지원정책은 주로 초등과 중등교육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단계부터는 다문화 대안학교 또는 학교 밖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진로·직업 교육과정 정책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정책은 직업훈련을 통한 이들의 취업과 자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결과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지원과 논의는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정책은 이들의 교육권과 학교선택권, 진로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
- 상급학교로 진입할수록 중도입국청소년 교육 및 진로 지원정책이 분리교육, 직업교육, 학교 밖 교육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한국 이주 후 부모 세대가 경험한 이주노동자 위치가 아닌 외국인 유학생, 전문직 외국인의 위치로 이동하기 원하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에서 대학 진학을 시도할 때 국가나 가족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 10대 후기 중도입국청소년에 관한 국가 정책은 대안학교, 직업훈련 등과 같은 분리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었다. 하지만 중도입국청소년 가운데는 한국 이주 후 이주노동자가 아닌 외국인 유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대학 졸업 후에는 전문직 외국인의 위치로 상향 이동하여 한국의 주류사회에 통합되길 원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중도입국청소년에게 교육과 배움, 대학 학력 취득은 자신의 미래를 안정적, 장기적으로 기획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정책 제안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제

2)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p. 21~22 재구성.

안을 하고자 한다.

### 3. 제안내용

- 향후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진로 및 취업지원 정책은 고등교육 영역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표 2] 중도입국청소년 고등교육 및 취업지원 정책 제안사항

중도입국청소년 고등교육 및 취업지원 정책(안)	담당부처
중도입국청소년 대학진학 정보제공	교육부, 여성가족부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대학 내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교육부, 고용노동부
귀화청소년 등 다양한 배경의 중도입국청소년의 대입 특별전형 제도 정비	교육부, 법무부 등
국가의 청년정책에 중도입국청소년을 정책대상자로 포함	관계부처 합동

#### 1) 중도입국청소년 대학 진학 정보제공

- 10대 중·후반에 가족이 있는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국가와 가족의 교육지원의 부족을 경험한다. 특히 고등교육과 관련한 국가와 가족의 정보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대입전형, 대입정보 등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 결과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여행사 등 대행업체에 상당 비용을 지불하며 대입전형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외국인이 주로 운영하는 여행사는 정규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정확하고 합리적인 대입 정보를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도입국청소년들 중에는 자신에게 적합한 대입 지원 전형을 잘못 선택하여 대입 진학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가의 정책지원과 가족의 교육 정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것에 관한 불안과 이로 인한 가족 간 갈등 양상이 심화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 진학 과정에서 겪는 주요 어려움은 귀화 이후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 상실, 대안학교 출신에 대한 제도적 배제, 정확한 대입 정보 탐색의 어려움으로 인한 성공적인 입시전략 구축에 한계를 경험하는 점 등이 있다.
-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기 희망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해당 정책안에는 대입 정보 제공 지원, 대학 후 학습 및 관계 적응에 관한 지원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를 주축으로 하여 여성가족부와 함께 중도입국청소년의 고등교육 지원정책 마련의 기본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지원 정책마련 이후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중도입국청소년 대입 정보제공 및 서비스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도입국청소년의 대학 내 학습 및 생활 적응과 한국 학생들과의 학습격차 완화를 위하여 교육부와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부서가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대학 내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교육부는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집단의 구성이 점차 다양해짐을 각 대학 측에 알리고 중도입국청소년을 포함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대학의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권고하고 이에 관한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 진학한 중도입국청소년 중 본국 생활부터 한국 이주 후까지 누적된 학습 공백을 갖고 학습 격차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한다. 또한 이들 가운데는 한국어와 영어 수업으로 진행되는 대학 수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결국 이러한 현실은 중도입국청소년의 대학 진학 이후 학업적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이 대학 진학 이후 정규 교육과정에서 도태되지 않고 한국 대학생들과의 학습격차 폭을 줄이기 위한 대학 내 학습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다수의 한국학생들과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 관계 등의 요소로 인해 심리·정서상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 진학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역시 대학 내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최근 대학 내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취업·진로 탐색 프로그램,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이 한국 국적 학생, 출생 한국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 대학진학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한국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F4, F5 비자 등)를 취득한 경우가 많고 향후 한국에서의 정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졸업 예정인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통하여 이들이 대학 진학 이후 안정적, 전문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한국의 주류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정책들을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 3) 귀화 청소년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위한 대입 특별전형 제도 정비

- 한국에서의 안정적 체류자격 확보와 부모의 권유로 인해 대학 진학 이전 한국으로 귀화하게 된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귀화 이후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이주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생 한국인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입시경쟁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례 A는 15살에 부모님이 있는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20살에 한 귀화로 인해 이주배경을 고려한 기존의 대학입시 특별전형제도에서 모두 배제되는 경험을 하였다<sup>3)</sup>. 즉, 귀화로 인해 A는 다수의 한국 학생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입시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A의 가족은 '귀화자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법적으로 다문화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화한 A에게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전형 지원 자격은 주어지지 않았다. 중도입국청소년의 대학 진학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A와 같이 10대 후반~20대 초반에 한국으로 귀화를 선택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외국인 특별전형,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전형, 재외국민 전형 등과 같은 이주배경을 고려한 기존 특별전형 제도의 범주에서 모두 배제되고 있었다.
- 귀화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이주배경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국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입 외국인 특별전형 등의 제도가 과연 공정한 제도인지 정책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귀화 청소년들의 이주배경 특성과 귀화 이전 본국에서의 학습경험,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대입 특별전형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교육부,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정책제안자의 학위논문(채소린, “중국 이주청소년의 초국적으로 확장되는 프레카리아트 경험: 성인기 이행과정에서의 미래계획을 중심으로” 국내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1)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참여자의 사례임을 밝힙니다.

#### 4) 국가의 청년정책에 중도입국청소년을 정책대상자로 포함

- 동시대 한국 청년에 관한 연구들은 청년이란 세대 집단 내의 특이성을 언급하면서 청년이라 호명되는 인구집단 내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조문영, 조민서, 김지현, 2021: 315). 그러나 한국 국적자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주배경청년을 청년정책의 범위에 포함하자는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사회적, 정책적 공간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최근 국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년희망적금 외국인 지원 반대 청원이 등장한 사례(한경닷컴, 2022.2.5)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 사건은 아직 한국 사회가 청년집단 내의 다양성에 대해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주배경청년들의 시민권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 하지만 정책적 차원에서는 한국에서의 정주 가능성이 높은 이주배경청소년이 점차 증가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이후 한국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 및 영주비자 소지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청소년기 자녀가 국내로 이주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이주자의 가족생활이 정주로 이어지는 일반적 경향을 고려한다면, 2015년 기준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의 80.2%, 영주권자의 78.6%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점은 이주자의 한국에서의 정주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김이선, 최윤정, 동제연, 신현욱, 2016: 36-45). 이러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청년정책에 있어 한국 국적의 청년들에게만 정책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들은 사회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향후 한국의 청년정책은 국적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한국에서 정주할 가능성이 높은 이주배경청년 집단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이주배경청년들의 시민권 보장에 관한 논의를 사회적, 법적인 차원에서 시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기대효과

- 이주배경청소년 고등교육 지원정책 구축을 통한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권, 시민권 확대
- 고등교육 및 취업 지원 정책제공을 통한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과 사회통합 가능성 증진
-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 고등교육 지원 정책 및 취업 정책 강화를 통해 저출산 인구감소 시대 한국 사회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확보, 국가경쟁력 증대
- 청년정책 내에 이주배경청소년과 이주배경청년을 정책대상자로 포함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청년의 권리 향상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 범위 확대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비가시적으로 존재하는 청년 집단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5. 참고문헌

- 김이선, 최윤정, 동제연, 신현옥 (2016).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여성가족부 (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6.27.). 다문화가족 자녀의 43.9%가 청소년...학령기에 맞춤형 지원 필요성 커져 -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627](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627)
- 이규용, 강동우, 김이선, 최윤정, 주수인 (2018). 이주 배경 청소년의 취업 및 자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편).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 분석, 229-338.
- 조문영, 조민서, 김지현 (2021). 안전의 열망과 기여의 의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자들의 서사. 한국문화인류학, 54(1), 307-358.
- 채소린 (2022). 중국 출신 중도입국청소년의 대학교육 의미와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교육인류학연구, 25(2), 291-328
- 한경닷컴(2022.02.25.). “돈 다 퍼주다니”... ‘청년희망적금’ 외국인 지원 반대 청원 등장.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22592537>

<b>정책 제안명</b>	지역사회 다문화 청소년 대상 현직 전문가와 함께하는 1:1 컨설팅
<b>정책 제안자</b>	김나원, 박수빈(대구한의대학교)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보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격차로 발생하게 되는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부족하여 전문적 인재 양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나 한국 입시 체제 정보 이해 부족과 부진이 있으며,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통해 진로 기초 교육과 한국 입시 체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 학생이 선호하는 직업군에 해당되는 현직 전문가와의 1:1 컨설팅을 통한 직업윤리 및 직업 정신 확립을 시킬 수 있는 경험 제공의 필요성이 드러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다.</li> <li>■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정책을 제안하는 학생 중, 실제 2022-1학기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근로를 진행한 학생의 경험에 따르면 원거리를 감안하여 통학 시간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경험적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었다고는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습 부진을 가지고 있는 멘티를 상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초 교육부터 실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여되었고, 대상 학생인 멘티가 청소년 후기가 아닌 초등학생임을 고려하여도 실질적으로 돌봄과 케어에 가까운 멘토링 진행이었으므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기에는 어려움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대학생 신분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다문화·탈북학생을 상대로 정보 제공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상담 정도로만 가볍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다고 한다. 이에,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사업은 멘토인 대학생의 수입 측면에서만 고려가 될 것이 아니라 멘티 학생의 점진적인 변화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멘토를 상대로 진로, 학업, 상담 측면에서 심층적인 멘토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li> <li>■ 또한 기존 정책 중에서 2020년도에 제안된 다문화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의 시도는 좋으나, 전문 분야별 상담 진행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다시 말해, 다문화 청소년은 하나의 분야에서만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나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대인관계, 진로 및 직업, 지역사회 격차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상태 파악이 필요한 상황임으로 상담 분야를 체계화하여 전문 인력이 실적을 내는 방식으로 구조화된 모습을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li> <li>■ 이와 같이 기존 정책에서는 4차 산업시대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시대 변화의 흐름을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 청소년보다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을 더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습득력과 적응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보통신기술 영역을 가르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시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영역이 대두되어 새롭게 정책적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영역은 현대사회에서 필수 요소로 작용함으로 필요성이 더 나타날 수밖에 없다.</li> </ul>	

## 2. 기존 정책과 한계점

### (정책 1)

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처: 교육진로팀 진로지원

정책: 꿈다리 상담실

### (정책 2)

부: 한국장학재단

처: 대학취업장학부

정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정책 3)

부: 코오롱 그룹, 아이들과미래재단

처: 코오롱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사업

정책: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

- 정책 1은 안산, 수원, 화성 등 경기도 지역에서만 진행되어 타지역 및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정책 2와 3은 대학생 청소년과 초, 중, 고등학생 이주배경청소년들 사이의 '멘토-멘티'의 관계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문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실제 대표 정책 제안자가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학업 및 진로 정보에 대해 제공하고 자 시도해 보았으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학생에 불과하였고 다문화 청소년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면 온전히 멘토의 재량에 무게를 두어 큰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무언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닌 멘티 학생이 다문화 학생임과 동시에 장애를 가진 학생이었기에 일방적인 돌봄에 가까운 멘토링 활동이라 볼 수 있다는 점에 한계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은 실제 전문가와의 1:1 컨설팅을 진행한다라는 점에 전문성을 가진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으며 제안하는 정책과 정책 1의 내용 및 정책 2, 3의 내용을 종합하여 대학생 멘토와 전문 인력의 기술을 총합하여 전문성을 지닌 1:1 전문가 컨설팅 & 대학생 다문화 청소년 멘토링 형식으로 보완하면 더 나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 3. 제안내용

- 정책 대상: 19~24세의 후기 청소년
- 정책의 내용: 다문화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업군에 해당되는 현직 전문가와 1:1 컨설팅을 통해 관심 직업군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직업 체험
- 세부 실행방안: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 전국에 있는 다문화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희망 직업 및 체험하고 싶은 직업군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선택지를 좁혀 분야를 나누고,

지역별로 해당 전문 직업군을 모집하여 선별한다. 담당 부서는 멘토와 멘티를 매칭하기 위해 선택지를 제공한다. 멘토인 전문 직업 종사자는 멘티를 최대 세 명 전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실시 기간은 6개월로 진행하여 한 달에 최소 8시간~최대 20시간, 총 최소 48시간~최대 120시간의 직업체험 및 정보전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0,000~12,000원가량의 시급을 활동 시간에 따라 멘토에게 제공하며 담당 멘티와 시간, 장소 등을 조율하여 최소 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멘토는 컨설팅을 할 시에 인증 사진 첨부 및 활동 내용을 회기마다 한글 파일 보고서를 필수로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담당부처: 이주배경청소년 무지개센터 - 사업운영부 혹은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진로지원 프로그램)
- 추진 시 유의점 또는 선결과제: 제안 프로그램에 지원자를 선별하는 기준점과 제한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제안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실행하여 인재 양성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전문 직업군의 인력에 경제적 지원 등과 같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다문화 청소년이 선호하는 전문 직업 종류를 다양하게 구축시켜 놓아야 한다.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시켜 줄 기회 제공은 필수 요소지만 전문 분야의 한계성을 두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기대효과

- 우리나라 청소년을 비롯하여 특히나 이주배경청소년은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에서 관심 있는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입수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하여 희망 진로를 쉽게 결정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제안하는 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다문화 청소년이 선호 직업군에 해당되는 현직 전문가와 컨설팅 활동을 통해 진로에 대한 경험적 가치를 쌓을 수 있으며, 직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정보 전달성에서 명확함을 가질 수 있다. 현직 전문가가 다문화 청소년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직업 정신을 강화하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에, 장기적인 만남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전달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미래 희망 직업군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1:1 컨설팅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에 기존의 집단 프로그램이나 다수를 상대로 실시되는 프로그램보다 직업군의 현재 상황까지 세세하게 알 수 있다는 효과성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것을 제공하고 있기에 제안하는 정책의 홍보 효과적일 부분에서도 뛰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 제안하는 정책이 이주배경청소년에게 나타날 영향 및 파급효과로는 현직 전문가와 1:1 컨설팅으로 진행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효과가 뛰어날 수 있다는 반면에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지원이 많아지게 되면 현직 전문가 인력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 지원이 부족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행되는 것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현직 전문가 인력 및 재정 자원 총량 보유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력 및 재정 보유에서도 한계가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신청한 모든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원자 중 선발 모집 인원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한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자를 선별하는 기준점, 제한점을 정하는 데에 있어 이주배경청소년들을 비롯한 이주배경청소년 학부모에게 불만 사항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여 최대한 많은 이주배경청소년에게 기회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안하는 정책은 지역별 교육 격차 및 지역사회 지원 격차를 줄이고자 지역별로 전문 인력 및 전문 직업군을 다양하게 배치하여 많은 이주배경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고 자원 총량 보유를 가져와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 청소년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필요성이 있지만, 사실상 한국 청소년들 대상으로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탐방, 견학,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입시 교육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에게는 매우 소중한 경험일뿐더러 학교에서의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명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닌, 제안하는 정책과 같이 별도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국 입시를 비롯한 전문 분야 및 직업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안하는 정책은 학교에서 모집 인원을 선발할 때 '이주배경 청소년 한정'이라는 미묘한 문장 사용을 통한 기회 제한을 줄 수 있는 어휘보다는 '한국 입시 체제 및 직업 가치관에 대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싶은 이주배경청소년'과 같은 문장을 사용하여 한국 청소년과 교육 과정을 무조건 동등하게 볼 것이 아닌, 습득력과 정보 입수 부분에서 차이점을 두어 이주배경청소년에게 무한한 기회 제공이 필요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동시에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주배경청소년과 자신들에 있어 차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및 직업 체험과 상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가장 크게 재정적인 부분에서 전문 직업군에 해당되는 인력에 경제적 지원이 투자가 많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제안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실행된다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분야별로 세세하게 인력을 모집하여 인원 파악을 하는 등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직업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주배경청소년을 전담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지도자의 양성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와 청소년지도사, 예비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진행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b>정책 제안명</b>	이주배경청소년의 고유한 정체성 발달을 돕는 개선된 진로지원 프로그램 정책
<b>정책 제안자</b>	신솔샘(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특별회))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의 고유한 정체성 발달을 돕는 개선된 진로지원 프로그램 정책을 제안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대한민국의 전체 청소년(9세~24세) 인구는 814만 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8%이다. 여기서 다문화 청소년의 수는 8.6%나 증가한 16만여 명을 기록했다.<sup>1)</sup> 전체 청소년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 청소년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5만 5,780명이었던 다문화 청소년의 수가 지난해 16만 58명으로 2013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전체 청소년의 3.0%나 차지하고 있다.<sup>2)</sup></li> <li>■ 하지만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 선택 및 취업 현황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 미래 직업 결정 여부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의 47.5%가 미래 직업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경제적 요건, 부모의 학력 등 다문화 청소년이 처한 환경에 따라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진로역량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고등학교 1학년 다문화 청소년 대상의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이 미래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 35.5%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몰랐다고 답했고 20.8%는 좋아하는 것은 있지만 잘할 자신이 없다고 답했다. 18.1%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직업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sup>3)</sup> 이처럼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모르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 선택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li> <li>■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으로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지원 프로그램은 이주배경의 특성과 고유한 정체성을 발달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sup>4)</sup>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의식과 진로선택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주배경을 가졌다는 점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이주배경을 강점 또는 약점으로 보는 것에 따라 진로 선택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li> <li>■ 이주배경청소년의 고유한 정체성 발달을 돕는 개선된 진로지원 프로그램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고유한 정체성 확립과 발달이 진로설정 및 준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해 적응하는 것을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이다. 이주배경청소년에게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를 줘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이 고유의 언어,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공유할 권리를</li> </ul>	
<p>1) 여성가족부 (2022.05.25.). 2022 청소년 통계. 장래인구추계 p. 6.  2) 여성가족부 (2022.05.25.). 2022 청소년 통계. 교육기본통계조사 p. 8.  3) 양계민, 황진구, 연보라, 정유미 (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최보람, 유진이 (2016).</p>	

보장하도록 진로지원 프로그램에서 가르쳐줘야 할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만을 교육 하였던 지난 교육과는 달리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발달시켜 본국의 문화와 언어 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강점을 발휘한다면 향후 진로 성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기존 정책과 한계점

- 현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진로지원 프로그램(무지개job아라, 내-일을 잡아라)이 2021년 기준 서울·경기 5개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로지원 프로그램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고유 정체성을 발달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과정은 '무지개 job아라'에서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진로 탐색 및 설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심화 과정으로는 '내-일을 잡아라'에서 진로 소양 및 자립 역량 강화 교육, 현장 기반 직업 실습을 통한 예비 사회인 성장 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의 기초 과정에 해당하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 '무지개 job아라' 활동에서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직업 탐색 단계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강점으로 살릴 수 있는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찾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자면 직업 빙고 게임에서 활용하는 참고 자료로 초등 고학년 수준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실력을 고려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직업에 대한 자료는 단순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직업 선택의 폭이 좁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정보는 더욱 찾기 어렵다.
- 또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서는 소개되는 직업은 이주배경의 특성 또는 비자 문제 등 실제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취업이 가능한 직업들인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간과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목표, 즉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sup>5)</sup>
- 또한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의 심화 과정에 해당하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 '내-일을 잡아라'에서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심화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바리스타, 미용, ITQ(정보기술 자격시험), 드론 등 직업 실습, 진로 소양 교육, 고급 한국어, TOPIK 대비 수업이 진행된다. 자격증 취득 후 인턴십과 취업도 알선해준다. 교육비는 없지만 중식비와 교재비를 교육생이 부담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sup>6)</sup> 또한 현장 기반 직업 실습을 통한 예비 사회인 성장 지원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예비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더 폭넓은 직업에 대한 실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진로 지원 교육은 한정된 교육이다. 실제로 대학 진학이나 여러 스펙이 필요로 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한정적인 교육이다. 현재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의 진로지원 프로그램은 기초 과정에서 세운 진로 탐색 및 설계 교육이 심화 과정에서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진로를 정하고 설계하더라도 그 꿈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심화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직업군의 현장 기반 실습이 이

5) 여성가족부, 무지개청소년센터(2011). 무지개 job아라 운영 매뉴얼. 서울: (재)무지개청소년센터. p. 22, 27-31.

6) 연합뉴스 (2020.05.12.). 무지개청소년센터 "중도입국 청소년에 무료 진로교육 해드려요".

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자격증 교육의 폭도 넓혀야 한다.

### 3. 제안내용

-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지원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주배경청소년의 고유한 정체성 발달을 돕는 개선된 진로지원 프로그램 정책’을 제안한다. 정책 대상은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어 진로지원이 필요로 하는 19세~24세의 이주배경청소년이다.
- 이주배경청소년의 고유한 정체성 발달을 돕는 개선된 진로지원 프로그램 정책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이주배경을 강점으로 하여 본국 언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사용에 도움을 주고 어느 한쪽 문화에 종속되지 않고 두 문화 모두가 공존할 수 있고 노동시장과의 활발한 연계를 위해 개선된 진로지원 정책을 말한다. 기존의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의 진로지원 프로그램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이주배경 특성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본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이주배경청소년일 경우 본국에서 인정받는 능력을 한국에서도 적극 활용하여 진로에 연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진로지원 프로그램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후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을 포기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적지 않게 있다.
- 기초과정의 진로지원 프로그램 ‘무지개 job아라’에서의 교육내용에서는 진로 탐색 및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지만 진로 탐색 과정에서 한국 청소년들 대상의 진로교육과 이주배경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소개되는 직업은 한국 사회와 언어를 완전히 적응한 한국인 청소년들의 진로 준비과정과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준비과정을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진로지원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직업들을 소개하고 꿈을 정하고 진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주배경의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갖춰야 할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비자 문제라든지 학력 사항 등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로 정보를 제공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이주배경의 특징을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직업도 함께 소개한다면 이중언어의 장점과 본국에서 습득한 문화나 교육을 활용하여 노동시장과 연계할 방법들을 교육해준다면 정확한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심화 과정의 진로지원 프로그램 ‘내-일을 잡아라’에서는 직업 실습과 진로 소양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 기반 직업 실습을 통한 예비 사회인 성장 지원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선택의 폭이 좁다. 꼭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지원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평생교육기관 등 비슷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꿈꾸는 직업들을 실습해보고 예비 사회인이 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교육 지원 프로그램과는 달리 직업 준비를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사회법에 따른 직업준비 교육 방안으로는 전문 직업상담사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성검사 및 면담을 실시하고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추천하여 이에 적합한 교육 방안을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 성격의 교육 운영자가 다양한 직업분야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민간기관이 정부나 지자체에 예산을 받아서 교육하고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처럼 해외 직업준비 교육 정책의 사례에서도 교육과 노동시장을 통합하여 민간기관에서 직업 실습교육을 운영하여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세부적으로 진로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빌둥스케테 정책은 이주배경으로 불리한 여건의 청소년들의 진로 지원을 위한 독일 내 효과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 연결되어있다. 그중 잡스타터(JOBSTARTER)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을 확보하고 지역 직업교육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직업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학급의 기업 견학을 조직도 하고 있다. 각종 상공회의소와 직업학교도 협력하여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직업교육 진입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sup>7)</sup>
- 정리하자면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의 진로지원 프로그램 기초과정에서 전문 직업상담사의 개별 상담이 진행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고유한 정체성과 적성을 파악한 후에 진로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이 자신의 이주배경 특성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추천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줘야 한다. 또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과정에서 설정한 진로 목표와 계획을 심화과정에서 실천해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과정에서 정한 진로에 관련된 직업을 현장 실습해볼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지원 교육은 더 효과적이고 진로 및 취업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 더 나아가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직업 현장 실습 후 국가인증 수수료등을 제공한다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경험과 능력이 노동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형식적인 진로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이주배경의 특성을 강점으로 활용하여 진로 선택 및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직업 현장 실습도 다양하고 폭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직업 현장 실습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본국 언어를 가르치거나 문화를 활용하여 직업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장점을 직업적으로 연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본 정책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과 직업 훈련 교육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한다.
- 본 정책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담당 부처로 맡아 협업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 4. 기대효과

- 이주배경청소년의 고유한 정체성 발달을 돕는 개선된 진로지원 프로그램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

7) 정수정, 최순중(2015).

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 진로 결정성의 영향 요인에서 정책적 지원의 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다문화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정보 획득, 목표 선택, 미래 계획, 진로 결정 효능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김민경, 2015). 또한,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진로 체험 활동이 진로개발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김재희, 2019). 따라서 본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결정성을 향상할 수 있다.<sup>8)</sup>

- 싱가포르의 중학생 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의 학업 능력에 따라 진로 목표를 정하도록 도움을 주고 대학 진학 또는 직업 훈련을 할지 선택하게 된다. 이후 각자의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데 이러한 싱가포르의 성과주의가 바탕이 된 교육방식이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싱가포르가 다문화 사회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sup>9)</sup> 본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 목표를 정하고 직업 현장 실습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과를 국가에서 인정해준다면 이주배경청소년들도 폭넓은 진로 선택과 취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도 보다 더욱 평등하고 원활한 다문화 사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정광선 해남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말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다문화 국가이다. 체류 외국인 수는 236만 명 이상이며 총인구의 4.6%에 속한다.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 시대의 주역은 다문화 청년 2세이다. 이들이 국제 교류의 주역이 될 주인공들이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강점들이 국가 경쟁력에 한몫할 수 있는 한국의 자산이 될 수 있다.
-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의 말에 따르면 다문화 2세 청년의 주특기나 이주배경을 잘 살린 직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중언어 전문가, 통역사 및 번역사, 국제 변호사, 국제의료코디네이터, 공적개발원조 활동가, 지구촌 문화예술 전문가 등 가족 배경을 살려 성장할 기회를 높일 수 있다.<sup>10)</sup>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에도 효과적이고 국가 간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이루며 고령화, 저출산 국가인 한국의 미래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 이주배경청소년의 고유한 정체성 발달을 돕는 개선된 진로지원 프로그램 정책이 시행된다면 첫 번째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결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직업 훈련 교육을 통한 성과를 인정하여 평등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고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미래의 자산이 될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이주배경을 살려 사회적, 경제적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5. 참고문헌

김민경 (2015). 진로역량강화프로그램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

8) 유두호, 최정윤(2022). p. 218.

9) 동대신문(2018.10.29.). 싱가포르의 다문화 사회를 유지하는 힘은 무엇인가.

10) 해남신문(2019.10.28.). 청년 다문화 2세, 우리의 청년이고 우리의 자산이고 미래야 한다.

- 항. 아동복지연구, 13(3), 147-171.
- 김재희 (2019).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활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효능 감의 매개효과, 다문화교육연구, 12(1), 111-146.
- 동대신문 (2018.10.29.). 싱가포르의 다문화 사회를 유지하는 힘은 무엇인가. <https://www.dg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57>
- 양계민, 황진구, 연보라, 정윤미 (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22.05.25.). 2022 청소년 통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72](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72)
- 여성가족부, 무지개청소년센터 (2011). 무지개 job아라 운영 매뉴얼. 서울: (재)무지개청소년센터.
- 연합뉴스 (2020.05.12.). 무지개청소년센터 “중도입국 청소년에 무료 진로교육 해드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2041600371>
- 유두호, 최정윤 (2022). 진로준비와 진로지원정책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지역규모별 분석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4(1), 211-233.
- 정수정, 최순종 (2015).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정책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청소년연구, 26(3), 77-101.
- 최보람, 유진이 (2016).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의식과 진로선택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다문화이동청소년연구, 1(1), 87-111.
- 해남신문 (2019.10.28.). 청년 다문화 2세, 우리의 청년이고 우리의 자산이고 미래여야 한다. <http://www.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942>

<b>정책 제안명</b>	이주배경청소년 취업디딤돌
<b>정책 제안자</b>	Yousefi Rizi Houra(한양대학교 경영학과)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SIS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7,625명의 등록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구직(D-10)으로 변경했다. 이 비자는 유학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국내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과정을 수료한 후 국내 기업 등에 취업하기 위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구직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구직 자격의 체류 기간은 1회 상한 6개월이지만, 만일 기간 내에 취업하지 못하였다면 체류자격 연장이 1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연장신청 시에는 구직활동 여부 등을 철저히 심사하기 때문에 연장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점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이주 배경 청소년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구직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 학생들이 구직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취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li> <li>■ 7월부터 직접 이주 배경 청소년 대상으로 벌인 연구는 구직을 못 한 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체류자격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 비자 없이 한국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다.</li> <li>■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이주 배경 청소년 중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들의 국내 정착에 대한 논의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 한국 유학 저널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이 불과 1% 수준으로 추정되는 것과 대학 정보공시센터 취업 자료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률은 통계 섬식에서 제외된 현실을 미루어볼 때, 이들의 진로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과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을 파악할 수 있다.</li> </ul> <p><b>1.1 연구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진출 및 취업 현황을 조사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워 국내에서 구직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기 위해, 내러티브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이들 개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실증적이고 탐색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준비 방법과 경험에 대한 탐구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과제를 살펴보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데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li> </ul> <p><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취업 준비하는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레인보스쿨(진로형)과 글로벌센터의 취업캠프가 있다. 직접 레인보스쿨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연구 목적으로 2022년 7월 26일에 글로벌센터의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을 위한 취업캠프 2기'에 참여하였고 직접 경험한 것과 취업 준비를 하는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각 사업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li> </ul>	

- 레인보스쿨은 2~3개월간 평일 16:00부터 18:00까지 진로교육 한국어,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진로 교육, 직업 교육과 같은 교육을 진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레인보스쿨 모집 인원수는 제한적이고 모집 기간이 짧아서 많은 유학생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 반대로, 글로벌센터에서 진행된 취업캠프의 모집 기간과 모집 인원은 적당한 반면에 프로그램 기간이 1일이었다.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이 좋았지만 짧아서 깊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취업 캠프에 참여한 구직 중인 유학생들과 이야기를 들어보니 체계적인 취업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 3. 제안내용

- 정책 대상: 만19~24세 이주배경청소년
- 정책의 내용

1. 양복과 정장 무료 대여: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구직비용 절감을 위해 구직자들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2회까지 무료로 면접용 정장을 빌려주는 서비스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취업 날개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 날개 서비스'는 고교 졸업 예정자부터 만 39세 이하 내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 글로벌 센터 취업캠프에 만난 단은 정장이 없어서 티셔츠를 입고 면접하러 갔다고 했다. 몽골에서 온 바투는 공감하면서 매번 한국인 친구한테 빌려야 해서 면접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 사업들은 이주배경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정장 무료 서비스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였다.

실행방안: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사이트에서의 '참여·신청' 페이지에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면접 사실 확인 자료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예약한 날짜에 종로구에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센터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개인에 맞는 정장을 대여할 수 있다. 1회 대여 기간은 3박 4일이며, 연체 시 연체료가 발생한다.

2. 비대면 면접 공간 제공: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사람인'이 구직자 1,683명을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57.4%가 화상이나 AI 등 비대면 면접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 면접이 부정적이라고 응답자도 36.3%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웹캠 장비, 장소 마련 등이 부담스러워서'가 45.8%로 1위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취업캠프에 참여한 23세 호양은 친구 4명과 함께 작은 투룸에 산다. 집에 책상을 놓을 공간이 없어서 면접 볼 때 카페 가야 한다고 했다. 호양과 같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면접을 볼 수 있는 조용하고 깔끔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행방안: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사이트에서의 '참여·신청' 페이지에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면접 사실 확인 자료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예약한 날짜에 종로구에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센터를 방문하고 지하층에 있는 다독다독 카페에서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면접을 본다.

- 취업 부트캠프:
  - 프로그램 기간: 매년 1~2월, 4~5월, 7~8월, 10~11월

- 프로그램 내용:

1주차: 진로적성검사, 직무탐색

2주차: 자기소개서 작성법

3주차: 취업플랫폼 활용법, 이력서 작성법, 포트폴리오 만들기

4주차: 면접 준비

- 1주차: 구직자와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은 취업을 준비하는 첫걸음을 시작하는 것이다. 진로적성 검사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을 파악하고, 각 개인의 성격과 흥미에 맞춰 이주배경청소년이 희망하는 직업 세계와 연결해본다. 진로적성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을 알아보고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각 직업에 요구되는 주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을 세운다. 필요자격/임금수준/직업만족도/전망 등 상세한 직업정보를 확인하고 계획을 구체화해줄 목표를 정한다. 전공 및 적성관련 직업을 토대로 다양한 직업을 탐색해보고, 원하는 목표 직업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목표 선택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 선택한 목표의 주요 가치 및 비전을 명시하는 활동을 한다.
- 2주차: 1주차에 명시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 이를 위해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경험을 나열하고 카테고리화하는 방법을 배운다. 경험을 3C4P를 이용해 재해석하고 성공경험, 직무경험, 도전경험, 팀워크 경험 등으로 분류한다. 다음으로 자기소개서 기본 문항 쓰는 법을 배운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서로의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이자 동반자로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 피드백을 준다.
- 3주차: 자기의 흥미 적성과 목표 직업을 설계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은 구체적인 목표로 이어 지듯 적성과 목표하는 직업을 실현할 목표 기업을 선정한다. 선택한 3가지 희망 직업에 대해 직 종별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작성한다. 그다음으로 한국의 대표 취업플랫폼 에 가입해서 플랫폼 활용법을 배운다.
- 4주차: 최근 실시하고 있는 모든 면접 유형을 소개하며 주요 면접 유형들은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겪을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제시하며 대체하는 방법과 대비전략을 배운다. 1분 자기소개 와 같은 예상 질문들을 위한 나만의 답변을 만든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서로 모의면접을 해보 고 면접 연습을 한다.

#### 4. 기대효과

- 국내 학생들과는 다르게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특화된 진로 설계 및 지도가 필요하나, 현재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기본적인 진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유학기간 동안 취업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학업하며 찾아가게 되었던 대학 내 관련 기관에서조차 이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기에, 연구참여자의 유학생들은 대부분이 진로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본국으로 귀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유학생 진로 지원과 관련한 대학 체제를 점검하고 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정책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진로 방향 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5.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20.08.12.). 구직자 10명 중 6명 화상이나 AI 등 비대면 면접 부담스러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26141?sid=101>
- 김경남, 김남희 (2021).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동기와 국내 취업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과학연구*, 52(3), 27-52.
- 김윤정 (2021). A Study on an Immigrant and an International Student's Literacy Transfer. *언어과학*, 28(2), 177-196.
- 이데일리 (2020.09.11.). “화상면접 어디서 해야 하나요?” 장소 찾아 삼만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3286625899136&mediaCodeNo=257>
- 조은희, 유기웅 (2017). 아시아 유학생의 진로선택 및 일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교육학연구*, 23(2), 77-111.

<b>정책 제안명</b>	희망 취업분야 선배 멘토링 서비스를 통한 성공 진로 지원
<b>정책 제안자</b>	간석영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다양성과 적극성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위주 정책 안정성에 비해 이용자·서비스 중심의 지속성에는 다소 의문.</li> <li>■ 특히, 청소년 시기에 진로 및 취업의 경우 차별화된 맞춤형 제도가 목적을 벗어난 방식으로 미흡한 상황.</li> </ul> <p><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이하 맞춤형 교육 및 정책사업에 비해 진로 및 취업에 특화된 기존 정책은 제시되지 못한 상태.</li> <li>■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을 동등한 위치가 아닌 수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아 진로나 취업 목적에 맞는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 요소 다분.</li> </ul> <p><b>3. 제안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 취업분야 선배 멘토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이 희망하는 직업군 관련 제작 및 퇴직자를 중심으로 한 멘토·멘티 연결.</li> <li>- 이를 통한, 한국 사회에서 진로, 취업의 현실 파악 및 실현 가능한 계획 제시.</li> </ul> </li> <li>■ 세부 실행방안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멘토의 경우,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대표 멘토와 함께 퇴직자, 지역, 신청자를 중심으로 한 전문 멘토로 구성.</li> <li>-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인력 데이터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인력 인프라 활용.</li> <li>- 분야별 대표 멘토는 직접 접근.</li> </ul> </li> <li>■ 세부 실행방안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멘토 구성 이후 시범운영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 인원을 선발하고 이를 진로에 특화된 멘토·멘티로 연결.</li> <li>- 대표 멘토는 전체 대상 강의 형식으로 그리고 전문멘토는 실제 이주배경청소년이 원하는 진로 내용 구성.</li> <li>- 진로 및 취업 교육 구성 시 관련 교육 기관의 지원.</li> <li>- 시범운영 이후 개선을 통한 전국 확대 사업으로 진행.</li> </ul> </li> </ul>	

#### 4. 기대효과

- 진로, 취업이라는 현실에 맞는 경험자 및 대표 멘토를 통한 적극적인 진로·취업 모색.
- 언어, 교류, 학습 수준 등을 모두 완벽하게 보완 후 이루어지는 불가능한 정책이 아닌, 이주배경 청소년 직접 원하는 진로를 정하고 이를 위해 제공하는 멘토 방식의 이용자 목적 중심의 정책 실현.
- 멘토·멘티 구성으로 빠른 개선과 효율적 예산 활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멘토 관점에서 이주 배경청소년을 이해하는 정책 진행 과정.



## ○———— 6. 기초학력제고



<b>정책 제안명</b>	외국인/이주배경 아동 어린이집 학비 지원
<b>정책 제안자</b>	김윤수(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이지환(ACS(Internatioanl) 싱가포르 국제학교)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아동 학비 지원제도/유아 지원금제도는 몇몇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 내용과 지원대상이 각각 천차만별로 다르고, 특히 주로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외국인/이주배경 출신의 아동들은 한국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소외 계층이 되거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이에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아동 학비 지원정책들을 점검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바라며 본 정책을 제안합니다.</li> </ul> <p><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교육청은 한국 국적이든 외국 국적이든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공립은 월 최대 15만 원, 사립은 월 35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안산시만 0~2세 22만 원, 만 3~5세 24만 원을 지원하고, 경기도 시흥시는 만 0~5세 26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부천시 등 지역마다 시행기관마다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다르기에 지역에 따라 외국인 아동 /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격차와 복지 공백이 발생합니다.</li> <li>■ 특히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복지 사각 지대를 발생시키는데,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보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 아동 /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더 시급하게 필요한 문제는 보육, 즉 돌봄입니다.</li> </ul> <p><b>3. 제안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저희는 “외국인/이주배경 아동 어린이집 학비 지원”을 제안합니다.</li> <li>■ 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는 우선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아동 학비 지원 정책을 정리하고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구과제로서도 다룰 수 있는 규모 있는 주제로 본 정책 제안서에서 모든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전국 약 6개 교육청과 일부 지자체에서 아동 학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황을 조사해 정리해보아야 합니다.</li> <li>■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3세 외국인/이주배경 아동입니다. 여기서 외국인은 한국에 영주권을 둔 자로 한정합니다. 대상을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가정의 아동이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인 가정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보유했다 함은 한국에 거주하며 근로와 납세를 수행하는 자로서 응당 한국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li> </ul>	

- 다음으로 예산/재정상의 문제를 고려하고, 어린이집 원생들이 유치원보다 다소 낮은 연령대를 포함하여 보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을 만 0세~3세로 설정하였습니다. 시행 이후의 추이를 관찰하며 연령 확대 및 축소를 논의합니다.
- 지원내용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월 10만 원~25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초기 설정 금액으로, 외국인/이주배경 가정의 아동이라 하더라도 그 생활수준이 가정마다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의 규모 차이를 두었으며, 앞서 서술한 선결 과제를 통하여 각 지역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시행 이후의 추이를 관찰하며 규모의 확대 및 축소를 논의합니다.
- 담당 부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입니다.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의 단독 행정력과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짐작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부처가 합작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조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외국인/이주배경 아동 원생 현황 등을 점검하고, 여성가족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확정하여 집행합니다.

#### 4. 기대효과

- 본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한국인 아동과 외국인/이주배경 아동과의 교육격차가 조기에 감소하고 사회적응을 도움으로써 조기에 해결되지 않은 격차 등의 문제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감소, 방지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이주배경 가정은 한국 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소외감을 감소시키는 정서적인 효과로 인해 외국인/이주배경 아동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며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향후 차별 등으로 인한 탈선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신뢰를 비롯한 사회적 자본의 토대 또한 마련됩니다.
- 본 정책은 주 담당 부처가 중앙정부이므로 지역사회와 일선 행정기관의 부담을 덜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앞으로도 전국 단위 혹은 중앙-지방간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정책 입안과 집행에 있어서 본 정책의 시행을 통해 미리 그 기반을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b>정책 제안명</b>	더함(+) 멘토링
<b>정책 제안자</b>	장유민(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발간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은 비(非)이주배경청소년과의 성장 기회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li> <li>■ 이주배경청소년은 심리사회적응, 사회적지지 체계, 진로정보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li> <li>■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에 따라 중고등학생 및 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발전될 필요가 있음.</li> <li>■ 현재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는 레인보우스쿨을 통해 심리사회·문화적응과 진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중언어와 이중민족 사회화를 지원하기보다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li> <li>■ 이주배경청소년이 이중언어와 이중민족 정체성을 개발한다면 진로 설계와 사회 진출에도 이점을 가질 수 있음.</li> <li>■ 또한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심리사회 적응 지원 및 언어교육을 전문 상담가, 학교 교원, 전문 한국어 강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사회적지지 체계를 확장하고 가까운 롤모델을 설정할 수 있는 대학(원)생 멘토링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li> </ul> <p><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는 ‘레인보우스쿨(일반형)’과 ‘레인보우스쿨(진로형)’을 통해 각각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 정보, 한국어 교육, 사회적 관계 향상 프로그램,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li> <li>■ 또한 심리상담전문가가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함.</li> <li>■ 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의 이중 언어 발달을 위한 명시적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음.</li> <li>■ 또한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담당자는 주로 전문 상담가, 학교 교원, 전문 한국어 강사로, 이주배경청소년의 가까운 롤모델이 되기에는 거리가 있을 수 있음. 실제로 청소년 멘토링의 대상자인 청소년들은 멘토 연령이 자신과 10세 미만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가장 선호함(정무성, 남석훈, 2005).</li> </ul>	

### 3. 제안내용

- 정책 대상은 이주배경청소년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중에서도 이중민족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 정책 대상의 연령은 18세 이하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 정책의 내용은 중·고등학생 이주배경청소년과 대학생 중 해당 청소년의 민족 배경 출신의 유학생 및 같은 이중민족 배경을 가진 대학(원)생과의 멘토링을 진행함.
- 멘토링 내용은 이중 언어 교류 및 교육, 심리사회적응 지원, 진로 교육 등을 주로 함.
- 구체적인 멘토링 내용은 자율성을 주어, 해당 멘토-멘티가 정하도록 함.
- 기본 멘토링 활동 기간은 6개월로 설정하고, 정책 시행 결과 및 추이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장기적인 멘토링으로 발전시킴.
- 멘토에게 근로 장학 형식 등으로 사례비를 제공하고, 멘토와 멘티가 함께 식사 및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활동금을 따로 제공함.
- 담당 부처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무지개청소년센터 등 산하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함.

### 4. 기대효과

- 본 정책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멘티는 이중 언어를 계발할 수 있으며, 상위의 이중민족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됨.
- 가까운 롤모델을 통해 대학 진학 및 진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건강한 심리사회적 적응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됨.
- 이는 이후 진로 설계 및 사회 진출의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 및 가족의 정착과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5. 참고문헌

양계민, 정윤미, 정윤선 (2021).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정무성, 남석훈 (2005).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선호와 참여의지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 (2), 27-51.

## ○———— 7. 심리사회적응



<b>정책 제안명</b>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서조절을 위한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
<b>정책 제안자</b>	나기쁨, 이운정(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코칭전공)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2012년 4만 7천 명이던 다문화 학생은 2020년, 14만 5천 명으로 약 214% 급증했다. 전체 초, 중, 고 학생 수가 2012년에 비해 2020년 20% 감소한 것을 반영하면 다문화 학생은 매우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처럼 다문화 배경의 아동·청소년들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아직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자리 잡지 못한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비교적 빠르게 정책의 방향을 잡았고,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시기에 있는 학생들은 여전히 낯설고 새로운 환경과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힌다. 교실 내의 따돌림이나, 차별 등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문화화정의 학생들을 ‘다문화 학생’이라고 구분 짓는 것 또한 다문화 감수성이 부재한 태도이다.</li> <li>■ 본 제안서는 학생들을 특징짓거나 특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며 또래 환경에 융화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li> <li>■ 청소년들은 우울감이나 불행감, 외로움을 아동기에 비해 빈번하게 느끼며 이 밖에도 공포나 불안, 죄책감, 분노, 수치심 등의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정책제안은 특별히 청소년기에 정서 조절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청소년들의 정서 조절 능력이 높아지면 다양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대처를 가능케 하고, 심리적 문제를 감소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한 적응 수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것들은 발달 단계상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이다.</li> <li>■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정서지원으로는 크게 상담 및 사례관리, 상담환경조성, 상담 통역 지원사업, 심리사회 적응검사 보급 등이다. 그러나 보다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심리정서지원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상담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일상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환경 및 사람들과의 융화를 위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li> <li>■ 우선 청소년의 정서 조절을 위한 방법으로 ‘공감’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감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향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이주배경청소년은 뇌 발달 및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정체성과 감정의 혼란을 겪는 ‘청소년’ 시기라는 것에 집중하였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신의 모든 감정을 수용하고 상대방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하며, 친구 및 부모, 선생님 등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과 다름을 인정, 수용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아니라,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으로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과 심리적 문제들로부터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정서 조절 훈련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li> </ul> <p><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으로는 레인보우스쿨, 사회적응 프로그램, 상담 및 지역사회연계 프</li> </ul>	

그럼, 상담통역 지원,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심리정서지원 사업으로 는 상담 및 사례관리, 상담환경조성, 상담통역지원사업, 심리사회적응검사 보급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가장 큰 핵심은 프로그램 구성 자체가 오로지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심리정서지원 사업만 특정지어 보았을 때 이주배경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대면, 비대면, 온라인 상담 등을 진행하고,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 사회성 증진, 가족 탐색 등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집단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본 제안은 이러한 특성을 뛰어넘고자 한다. 심리정서의 문제들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속해있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름'에서 시작된 '비교'가 융화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진행 중인 사업들의 한계점은 실생활에서 그들이 또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 이후 혹은 문제적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일시적, 단기적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정책제안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융화되어, 다름을 인정하고 인정받으며 평범하게 살아 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 그들의 정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이주배경청소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안정된 청소년기를 보냄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제안내용

- 본 정책의 대상은 Borba의 공감 발달단계에 따라 추상적 공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되는 12세 이상 이주배경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기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추상적 공감을 발달단계에 맞게 구체적으로 변형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다. 본 정책의 핵심은 '공감'으로 모든 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들과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우선 자신의 감정 및 바람을 인식, 수용, 표현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타인의 감정을 인식, 공감, 수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에 있다.
- 공감은 복합적인 것으로서 인지적이거나 정서적인 하나의 측면으로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로 보는 시선이다. 공감 능력은 개인의 기질, 사회적 학습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발달한다. 즉, 정서적으로 동기화되어서 반응하는 개인의 인지적 추리능력과 자신과 타인의 심리적 속성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교육함으로써, 공감의 발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감정 코칭은 감정 인식하기, 감정적 순간을 좋은 기회로 삼기, 감정을 말할 수 있도록 돕기, 감정을 공감하고 경청하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의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핵심 배경과 감정 코칭 5단계를 바탕으로 이주청소년 공감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 본 프로그램은 '공감은 지능'이라는 Jamil Zaki의 이론을 바탕으로 공감 능력이 학습에 의해 발달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은 각 단계 내에서 '순환적 공감모형'의 순서를 따른다(Barrett-Lennard, 1981). 2~3단계에서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해 Kristin neff의 자기자비, Paul Gilbert의 Compassion Focused Therapy를 반영한다. 청소년의 정서지능을 높이는 감정코칭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인 행동에는 명확한 한계를 두고, 그 안에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도록 하는 것이다.

전제 프로그램			비고
1단계	감정의 이해	1) 자기소개 2) 감정의 정체와 다양한 감정 이해	- 도입, 마무리 포함 5단계 - 주1회, 총 12회 - 회기별 90분
2단계	나에게 공감	3) 나의 감정 인식 4) 나의 욕구 및 바람 인식 5) 나의 감정 및 바람 표현하기 6) 나의 감정 및 바람 수용 및 공감하기	
3단계	너와 공감	7) 경청, 너의 감정 인식 8) 너의 감정 이해 및 수용 9) 공감 연습하기	
4단계	공감의 확장	10) 갈등상황에서 공감 연습 11) 사이버 공감	
5단계	다짐 및 마무리	12) 공감 잘하기 다짐	

#### 1단계: 감정의 이해

##### 1) 자기소개 “*꼬덕이고 토닥일 준비됐나요?*”

- ① 목표: 프로그램의 이해 및 친해지기
  - 프로그램의 목적, 구성, 진행방법, 최종목표, 규칙 알기. 참가자들과 친해지기
- ② 활동: 선서식 및 자기소개
  - 다 함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선서식
  -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별칭 짓고, 별칭을 통한 자기소개

##### 2) 다양한 감정 이해 “*마음의 색깔은 셀 수 없어요!*”

- ① 목표: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기
  - 감정카드를 통해 다양한 감정이 발생한 상황 이해하기
- ② 활동: 감정카드
  - 일상에서 감정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리고 감정카드를 이용해서 그때의 감정을 친구들에게 말해보기
  - 다양한 감정에 이름 붙이기

#### 2단계: 나에게 공감

##### 3) 나의 감정 인식 “*내 마음의 거울*”

- ① 목표: 나의 감정 인식
  - 나의 변화하는 감정 인식하기
  - 힘든 마음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기
- ② 활동: 감정카드
  - 표정맞추기 게임을 통해 나의 감정과 그 상황 이야기해보기
  - 오늘 하루 나의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순서대로 감정카드를 통해 그 상황과 함께 얘기하기

-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이야기 나누기

#### 4) 나의 욕구 및 바람 인식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 ① 목표: 나의 욕구 및 바람 인식
  - 바람을 인식하고 방해요인 알아보기
- ② 활동: 바람풍선게임
  - 풍선에 나의 바람을 써서 떨어뜨리지 않는 게임을 하고, 풍선을 방해하는 요인 이야기하기
  - 친구의 바람을 듣고 나와 다른 바람과 같은 바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나누기

#### 5) 나의 감정 및 바람 표현 *“나는 소중한 사람”*

- ① 목표: 나에게 공감하기
  - 나의 감정 및 바람을 수용하고,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 나의 아픔과 고통 위로하기
  - 따뜻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통한 안정감 느끼기
- ② 활동: 자기자비를 위한 활동들
  - 나 위로하기: 힘들었던 상황의 '나'에게 위로하는 편지쓰기
  - 지혜로운 나 상상하기: 힘들었던 상황을 잘 극복했던 나를 떠올려보기, 또는 잘 극복하는 나를 상상하기, 바람이 이루어진 나의 모습 상상하기
  - 나에게 자비로운 느낌을 주는 것 찾기

#### 6) 나에게 공감하기 *“난 있잖아...”*

- ① 목표: 감정표현
  - 감정표현의 중요성 이해하기
  - 나 메시지 전달법을 통해 나의 감정 표현하기
- ② 활동: 나 전달법
  - 감정표현을 하지 않아서 곤란했던 상황 이야기 나누기
  - 나 전달법 연습하기
  - 감정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조별로 짧은 대본을 써서 연극하기

### 3단계: 너와 공감

#### 7) 경청, 너의 감정 인식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게”*

- ① 목표: 공감 경청
  - 공감 경청의 중요성 알기
  - 말하기+바꾸어 말하기+질문하기를 통하여 경청 연습하기
- ② 활동: 마음에 대해서 질문하기
  - 경청미로찾기 게임: 눈을 가린 후, 친구의 말만 듣고 미로 탈출하기
  - 말하기+바꾸어 말하기+내용 질문하기+마음 질문하기: 친구의 말을 듣고 이해한 후, 다시 말하기,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기, 마음에 대해서 질문하기

8) 너의 감정 이해, 수용 *“아, 그랬구나.”*

- ① 목표: 너의 감정 이해
  - 감정을 느낀 상황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 동화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감정 이해하기
- ② 활동: 비경쟁 독서토론
  - 오늘 학교에 오기 전에 느낀 감정 이야기 나누기
  - 마거릿와일드의 ‘여우’ 동화책 함께 읽고 비경쟁 독서토론

9) 너에게 공감하기 *“끄덕이고 토닥이기”*

- ① 목표: 말과 행동으로 공감 표현
  - 공감하는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기
  - 또래상담 이해하고 참여하기
- ② 활동: 또래상담
  - 공감하는 행동 표현 찾아보고 친구와 공감대화하기
  -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고민쪽지를 써서 제출하기
  - 친구들이 낸 고민쪽지 중 하나를 뽑아서 공감을 표현하며 또래상담자가 되어보기

4단계: 공감의 확장

10) 갈등상황에서 공감 연습 *“화가 많이 났구나.”*

- ① 목표: 갈등상황에서 공감하기
  - 갈등상황에서 나와 타인의 마음 이해하기
  - 공감으로 갈등상황 변화시키기
- ② 활동: 갈등상황에서 공감적 배려 연습
  - 갈등 경험을 이야기 나누고 감정카드를 통해 그때의 감정 찾아보기
  - 화가 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찾아보기
  - 친구에게 칭찬, 감사, 위로의 말 해주기
  - 갈등상황을 실제로 재현해보고,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변화시켜보기

11) 사이버 공감 “😊 😢 😊 😊 😊”

- ① 목표: 온라인 공간에서의 공감
  - 온라인 공간에서 공감의 의미를 이해하고 바르게 표현하기
  - 사이버불링(Cyber Bulling)을 경험하고 이해하기
- ② 활동: 스마트폰 공간에서 공감 연습
  - 실시간 채팅 쪽지를 쓰고, 쪽지를 받은 느낌 이야기 나누기
  - 악성댓글을 긍정댓글로 바꿔보기
  - 사이버불링 앱 체험하고 느낌 이야기 나누기

## 12) 바람에 공감하기, 다짐 및 마무리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 ① 목표: 나와 타인에 공감하는 생활을 위한 다짐
  - 더 잘 공감하며 살아가기 위한 다짐하기
- ② 활동: 다짐 및 마무리
  - 마무리를 통해 소감을 나누고 말, 표정, 몸짓으로 공감 표현하며 마무리 인사
  - 공감을 실천하겠다는 다짐 선언

## 4. 기대효과

- 공감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행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본 제안에서의 공감은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먼저 적용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공감 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봄으로써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정하고 수용 및 공감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의 감정 및 바람을 올바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것은 결국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공감하는 바탕이 되므로, 자신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까지도 발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고 훈련된 공감능력은 서로 간에 정서적 갈등을 해소하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정서 조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과 함께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적응도를 크게 향상할 수 있다.
- 또한 청소년의 외현적인 문제에 대한 인지적, 행동적 교정 향상에 초점을 둔 기존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부적응을 예방하고 또래관계 및 부모님,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보다 안정되고 적응적인 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감정과 바람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율성의 증진 효과를 포함한 감정코칭 프로그램으로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나아가서 이 제안서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적응을 위한 감정코칭 프로그램이 그들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를 변화시켜줄 것이라 기대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감정도 훈련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많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제안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한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이 이주배경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그저 자신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청소년’이라는 이름만으로 살아가길 기대한다.

## 5. 참고문헌

- 조성애, 조벽 (2012). 청소년 감정코칭. 서울: 해냄출판사.
- Barrett-Lennard, G. T. (1981). The empathy cycle: Refinement of a nuclear concep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2), 91-100.

<b>정책 제안명</b>	중도입국청소년 정착지원 상담사 배치
<b>정책 제안자</b>	이승봉(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 그중 중도입국청소년들은 국내 출생 이주배경청소년에 비해 이주의 원인, 국적, 체류 조건, 청소년의 이주 준비도 등 개인이 놓인 상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li> <li>■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주해 새로운 환경과 사회문화에 정착해야 하는 힘겨운 적응 과정과 청소년기 발달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놓여있지만, 한국사회에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해 초기 적응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li> <li>■ 이주 후 학교는 어떻게 입학해야 하는지, 교육제도와 입시제도는 어떻게 다르고 대응해야 하는지, 한국어는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적응에 필요한 도움은 어떻게 요청해야 하고, 진로와 취업 관련한 정보는 어떻게 접하는지 등 적응과 청소년기에 필수적으로 제공받아야 할 사회적 지원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매우 취약하다.</li> <li>■ 특히나 우리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은 각기 다른 부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통합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국적과 체류자격, 청소년 자신이 놓인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서비스 대상 여부 또한 구분되어 있어 어떠한 사업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li> <li>■ 청소년 사업 현장에서 또한 국가의 정책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통합한 정보를 제공할 전문기관 혹은 전담 기관이 부재하여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자원과 정보를 연계해주지 못하고 있다.</li> <li>■ 결국 현장에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적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 중심의 단편적인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으며 이주배경청소년의 통합적 욕구와 상황에 맞는 체계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li> <li>■ 현재 이주 후 청소년들의 적응 어려움의 책임은 오히려 이주배경청소년 가정과 보호자의 대처 역량에만 맡겨지고 있으며, 이들이 가진 사회적 자본 수준 차이에 따라 한국사회 적응의 편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li> <li>■ 어떠한 가정은 운이 좋아 필요한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응의 도움을 받는가 하면,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가정은 지원으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되어 적응을 위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한국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li> <li>■ 사실 많은 경우 이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자체가 부족한 경우 보다 그 서비스를 어디에서, 어느 시점에, 내 상황에 맞는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li> </ul>	

- 만약 지역 내 흩어진 정책과 자원을 통합하고 이주배경청소년 초기 정착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하는 전담 기관 혹은 전담 상담사(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면 이주 초기부터 청소년 상황과 욕구 분석에 근거한 효과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 2. 기존 정책과 한계점

- 이주배경청소년의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해서는 이주 초기에 청소년이 놓인 상황과 준비도, 그리고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정착지원계획을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 하지만 현재 우리 제도와 정책에서는 이러한 이주배경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불안정하며 이들을 담당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관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지자체 단위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주배경청소년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 또한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외국인 부서, 교육담당 부서, 아동청소년 부서, 다문화가족 부서 등에서 일부 사업의 형태로만 분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과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 및 외국인 지원의 하위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을 중심으로 그 성장과 발달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이주배경청소년 성장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그 확장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사업 주요 추진단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특성상 다문화가족이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어, 다양한 체류 조건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욕구를 담아내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또한 이주배경청소년 성장지원체계 사업은 청소년이 실제 생활하는 개인과 학교, 지역사회 기관, 가정 등의 정보를 통합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청소년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이 핵심으로 반드시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지원체계 구축 부분은 취약한 상황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중심의 정책 전달체계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결국 이주배경청소년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정책은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게 된다.
- 예를 들어, 이주 초기 한국어 준비가 되지 않은 청소년은 지역 내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 특별학급 혹은 예비학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입학담당 교사나 보호자가 그 정보를 알지 못해 일반학급에 입학하여 학업과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거나, 학교 내 교사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지역 내 어느 자원과 연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연계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또한 이주 후 학교 적응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로 연계, 그리고 학교 밖으로 나왔을 경우 레인보우스쿨, 학교밖지원센터 등에서 지속적인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정보는 보호자나 담당자 등도 쉽게 알지 못하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다양한 정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지원센터에서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 즉, 국가의 노력으로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현재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가의 전달체계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
- 만약 이주 초기에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적절한 정착지원 상담이 제공된다면 이주 과정에 겪게 되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행되는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 3. 제안내용

- 제안과제 :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착지원 상담사 배치(정착지원사업)
- 정책대상 : 한국사회 적응지원이 필요한 중도입국청소년(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외국인 가정 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 등) 및 그 가족
- 주요내용 : 중도입국청소년 정착지원 상담사 배치, 이주배경청소년 정착지원 상담서비스 제공,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 담당부서 : 지자체 아동청소년 담당부서(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업과 연계 운영)
- 세부 실행방안
  - 지자체 내 이주배경청소년 담당 부서 지정, 담당 부서 지정 시 기존 다문화 담당 부서가 아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자원 연계의 효율화를 위해 청소년 부서가 주무 부서가 되는 것을 권장함.
  - 이주배경청소년 맞춤형 정착 상담을 진행할 정착지원 상담사(코디네이터) 선발
  - 정착지원 상담사는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현장경험이 풍부한 실무 전문가로 의뢰된 청소년이 놓인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연계를 제공하는 사례관리 전문가
  - 정착지원 상담사는 지자체 부서에 직접 배치하는 방법과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혹은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 지자체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관련 창구를 정착지원 상담사로 일원화하여 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지역자원 접근성을 높이고 원스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 이주배경청소년 정착지원 상담은 직접사업 운영이 목적이 아닌 이주 초기 청소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
  - 정착지원 상담사는 이주배경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문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드러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
  - 정착지원 상담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욕구파악뿐만 아니라 한국어 등 기본 정착을 위한 준비도,

심리 정서적인 위기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지역자원 및 서비스와 매칭될 수 있도록 한다.

- 정착지원 상담사는 이주배경청소년이 놓인 개별상황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정착지원 상담사는 단순한 학교 입학절차와 준비서류 등 기본적인 정보제공부터 학업중단, 가정폭력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따른 위기 지원도 가능한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 이를 위해 지자체 담당 부서는 정착지원 상담사가 효과적으로 지역자원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안전망 사업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4. 기대효과

-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이를 통한 정책 및 지원 서비스 수혜자의 확대
- 이주배경청소년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청소년들의 심리사회 적응력 향상
- 체계적인 정착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학교 및 지역사회 정착, 학업중단 예방 및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

<b>정책 제안명</b>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지지 강화
<b>정책 제안자</b>	주홍화(성균관대학교 카운슬링센터)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 중에서도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생활 적응은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았고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장임숙과 김희재(2014)는 많은 학생들이 친구나 선생님과과의 관계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Wang, Zhang, Liu와 Xu(2021)는 교실 분위기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와 한지형(2021)은 부모의 자녀 양육관, 부모의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등 다양한 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li> <li>■ 서영석, 백근영, 이상학, 이정윤과 황인지(2017)는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회적 차별로부터 어떻게 회복하고 성장하였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아픔을 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래 친구의 지원, 가족의 관심과 개입, 교사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 전문적인 서비스의 활용 등이 중재적 조건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또한, 양계민 등(2021)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가 이주배경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주변 친구, 가족, 교사 등 사회적지지가 다문화 청소년들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대안이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li> </ul> <p><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양육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자녀 양육 관련 요인이 이주배경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부모에 대한 양육방식,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식, 자녀와의 관계 강화 등 양육 관련 교육은 필수적이다.</li> <li>- 양계민 등(2021)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한국어 실력은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어려움을 보고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학업 관련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부모의 한국어교육이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li> <li>- 많은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부모 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많다. 그러나 많은 부모님들이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동반하는 양육자로서의 미숙함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떻게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조언과 부모님의 양육 관련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모 상담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li> </ul> </li> </ul>	

■ 교사:

- 서영석 등(2017)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청소년들은 교사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고맙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교실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다문화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가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교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도 진행되어야 한다.
- 교사가 다문화 청소년을 도와주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학교에서 상담사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을 고려한다면 상담이 끝난 후 교사와의 면담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친구:

- 많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주로 또래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하지만, 차별로 인한 상처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함께 하면서 치유된다고 보고하였다(서영석 외, 2017).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상담도 중요하고,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해 진행되는 집단상담도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도 일반 청소년들이 포함된 반 친구들과 함께 진행되는 집단상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집단상담은 주로 다문화 청소년들만 포함된 집단에서 진행되고 있어 본 제안서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집단상담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며 다양성을 통해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3. 제안내용

3-1. 부모님 역량 및 부모-자녀 관계 강화 (1)

- 대상: 18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양육자
- 내용: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이해하고 양육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제공
- 실행방안:

1. 모집	- 18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 모집
2. 교육자료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양육방식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교육자료를 만들고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3. 교육	- 1개월 1회, 총 4회 주기적으로 교육 진행 - 주기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양육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직접 실천해보고 피드백을 받는 등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
4. 평가	- 교육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내용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음

### 3-2. 부모님 역량 및 부모-자녀 관계 강화 (2)

- 대상: 18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부모
- 내용: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한국어교육 진행
- 실행방안:

1. 모집	- 한국어가 부족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부모님을 모집 - 자녀의 한국어가 어려울 경우 자녀와 함께 모집 ※ 자녀와 함께 공부할 수 있다면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교육	- 매주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한국어교육 진행 -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한국어교육 진행
3. 평가	- 정해진 시험을 통해 성장을 확인하고 동기부여 받는 과정을 가짐

### 3-3. 부모님 역량 및 부모-자녀 관계 강화 (3)

- 대상: 18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부모
- 내용:
  - 자녀의 개인 상담이 끝난 후 부모상담 진행
  -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족상담 진행
- 실행방안:

1. 모집	- 이주배경청소년의 개인 상담을 의뢰받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모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모님도 정해진 시간에 방문
2. 상담사 풀 (pool)	- 부모 상담과 가족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 풀 구성 - 청소년의 모국어로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상담통역사 풀 구성
3. 부모상담/ 가족상담	- 매주 청소년의 개인 상담이 끝난 후 부모 상담을 진행 -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족상담 진행
4. 사례 회의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부모님의 상담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사례 회의를 진행하여 모니터링해야 함

### 3-4. 교사와의 관계 강화 (1)

- 대상: 18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사
- 내용: 18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제고 프로그램을 진행

■ 실행방안:

1. 모집	- 18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를 모집
2. 교육자료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특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교육자료를 만들고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3. 교육	- 1개월 1회, 총 4회 주기적으로 교육 진행 -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직접 실천해보고 피드백을 받는 등 체계적인 다문화 감수성 제고 프로그램을 진행 - 직접 아이들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 대처 방법을 배움
4. 평가	- 교육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내용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음

3-5. 교사와의 관계 강화 (2)

- 대상: 18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교사
- 내용: 18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상담이 끝난 후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 진행
- 실행방안:

1. 모집	- 일반적으로 많은 기관에서 개인 상담을 진행하듯이 다문화 청소년의 어려움 때문에 개인 상담을 신청했을 때 담당 교사도 정해진 시간에 방문 - 직접적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면담 진행
2. 상담사 풀(pool)	- 이주배경청소년의 개인 상담을 진행하고 적절하게 교사와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 풀 구성 - 청소년의 모국어로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상담통역사 풀 구성
3. 교사 면담	- 매주 청소년의 개인 상담이 끝난 후 담당 교사와 면담을 진행 ※ 담당 교사와 면담을 진행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어려움을 다 보고하는 것은 아님. 청소년에게 허락받고 면담을 진행하되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 위주로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함.
4. 사례 관리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상담 및 교사 면담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사례 회의를 진행하여 모니터링해야 함

3-6. 또래 관계 강화

- 대상: 18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일반 한국인 청소년
- 내용: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일반 청소년을 포함하여 집단상담 진행

■ 실행방안:

1. 모집	-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포함하는 다양한 집단을 모집
2. 상담사 풀 (pool)	-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집단상담사 풀 구성 - 청소년의 모국어로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상담통역사 풀 구성
3. 상담 내용	- 학업문제, 대인관계, 진로탐색 등 다양한 주제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집단상담 진행 - 18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만 초점을 맞춘 집단 상담이 아니라 모든 집단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진행
4. 상담 진행	- 해당 집단이 필요한 주제로 매주 8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상담 진행
5. 사례 회의	- 집단 상담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사례 회의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여 감독해야 함

#### 4. 기대효과

-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음으로써 어려움으로부터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이겨낼 수 있는 자원을 얻는다.
- 주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심리적 어려움을 이겨냄으로써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주배경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성장하고, 교사와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다문화사회에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 5. 참고문헌

- 서영석, 백근영, 이상학, 이정윤, 황인지 (2017).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아픔과 분투 : 사회적 차별로부터의 회복과 성장. 파주 집문당.
-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한지형 (202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임숙, 김희재 (2014).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지원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60, 50-67.
- Wang, C., Li, B., Zhang, L., Liu, Y., & Xu, P. (2021). Prosocial Behavior and Teachers' Attitudes Towards Bullying on Peer Victimiz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Examining the Cross-Level Moderating Effect of Classroom Climate. School Psychology Review, 1-14.



## ○ — 8. 다문화 수용성



<b>정책 제안명</b>	‘호안끼엠’에서 다문화와 다양성 체험을!
<b>정책 제안자</b>	최홍길(서울 선정고등학교)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위 다문화(초중고 유학생 포함) 학생은 이후에도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임.</li> <li>■ 시도교육청별로 연초에 ‘다문화정책학교’를 선발해 담당교사가 각종 행사를 교내외에서 시행하고 있음.</li> <li>■ 학교의 교실이나 대강당, 교외 체험 등 통해 다문화 특강과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li> <li>■ 학교에서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과 어울리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다문화 학생들이 꺼리는 게 사실임.</li> </ul> <p><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교육청마다 10여 년 정도의 다문화정책학교 연구결과물이 축적돼 있음.</li> <li>■ 코로나19 이전에는 연말의 정책발표회 때 우수학교의 사례를 공유해 참고했음.</li> <li>■ 교육부 주관으로 매년 11월경에 열리는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는 시의적절하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권장할 만한 행사임.</li> <li>■ 아직도 우리의 다문화 인식에 대한 지표가 높지 않기에, 거시적 차원에서 다문화와 다양성 그리고 세계시민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li> </ul> <p><b>3. 제안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대상 : 다문화 학생(초등학교 고학년, 중고생)</li> <li>■ 정책의 내용 : 겨울방학 또는 봄방학 중 해외 체험(5박 6일)</li> <li>■ 세부 실행방안 : 다음 쪽의 연수 일정표 참고</li> <li>■ 담당부처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li> <li>■ 참고사항 : 시도별 학생 선발과정의 투명성</li> <li>■ 추진 시 유의점 또는 선결과제 등 : 대기업 협찬은 필수</li> </ul> <p><b>4. 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학생으로서의 자긍심 배가</li> <li>■ 매년 이어지는 행사이기에 지원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임</li> <li>■ 전국의 학생들이 모여서 체험하는 행사이기에 이후 긴밀한 유대감 형성 가능</li> </ul>	

### ‘호안끼엠’에서 다문화와 다양성 체험을!

저는 학교에서 창의체험부장을 하면서 ‘다문화’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정책학교 업무를 10년째 담당하고 있어서 미립이 트였습니다. 2016년에는 베트남 하노이의 현지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어서 좋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후원하고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사교류 프로그램’인데 태국·베트남·몽골·캄보디아·인도네시아 등 7개국에 교사를 3개월 정도 파송해 현지 학생들에게 주로 한국문화 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매우 아쉽지만 짧은 기간 동안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권장할 게 많겠지만, 제가 직접 체험한 베트남은 정말로 ‘다문화’와 ‘다양성’을 체험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베트남은 75개의 소수민족이 있어서 다민족 국가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가 요소요소에 상존합니다. 저는 운 좋게도 호안끼엠(還劍)이라는 하노이의 유명 관광지 인근의 중학교에 배치되어서 수업 후나 주말에는 바로 코앞의 호안끼엠으로 나가 동서양에서 관광 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관광지이기에 주말 같은 때에는 소수민족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굳이 소수민족을 만나러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까지 없는 곳이 호안끼엠과 그 주변입니다.

여기에 36거리가 있습니다. 거리마다 의류, 커피, 맥주, 인형, 꽃시장, 철물점, 액세서리 등으로 특화돼 있어서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다양한 음료와 먹거리가 풍부하기에 여행의 참맛을 느끼고도 남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호안끼엠의 요지에서 K-pop을 즐기는 학생들의 공연이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밤까지 3일 동안 이어지기에 여러 나라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베트남 학생들 수십 명이 우리의 최신음악을 틀어놓고서 율동하는 모습을 보면, 기쁨의 눈물이 흐를 정도입니다.

연말이나 적당한 때(특히 1월이나 2월의 방학 때) 적절한 선발 기준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을 뽑아서 하노이 일대에서 ‘다문화 체험’을 한다면 참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물가가 싸기에(직장인 월급이 30만 원 내외) 국내가 아닌 해외연수를 추진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40여 명, 중등학생 40명 정도를 선발해 다양성과 세계시민 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 다소 위축된 다문화 학생들이 이런 체험을 통해 확실하게 세계화의 의미를 각인할 것입니다.

아래 프로그램을 보시면 체험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베트남의 현지 학교에 파송된 한국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모습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 지역에서 태국 못지않게 한류 열풍이 강하기에 따라서 한국어를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아주 많기에 이런 체험은 학생들에게 평생 잊지 않을 것이며, 이는 다문화 학생으로서 자긍심까지 생기리라 확신합니다. 베트남은 작년 9월 신학기 때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를 제1외국어(영어, 일어, 중어, 노어, 불어, 한국어)로 승격시켜서 학교에서 희망 학생 누구에게라도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트남이 우리에게 무서울 정도로 가깝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노이와 호치민 그리고 다낭 등으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을 찾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이 국제결혼을 한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그 자녀들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에도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통념 때문에 선뜻 다문화라고 나서지 않는 현실이라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가 중요시되고 있어서 요즘은 다문화 학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줄 수 있는 하노이의 호안끼엠 부근은 다문화 체험과 다양성과 세계시민 교육의 최적지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베트남 체험 일정표

	일정	비고
1일차	인천공항 출발 - 하노이 도착	숙소에서 저녁 다문화(세계시민) 특강
2일차	문묘 관람, 자매학교 방문	현지학교 수업참관 등 -탕롱중, 응오짜뜨 중학교 등
3일차	하노이 출발 - 목쩌우 도착	몽족(소수민족) 마을 탐방
4일차	목쩌우 등 관광 후 하노이 도착	수상가옥 등 관광지 탐방
5일차	박닌 삼성공장 견학	하노이에서 50분 정도 소요
6일차	하노이 호안끼엠 관광 후 입국	

6일을 줄여서 5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호안끼엠 주변에서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밤까지 각종 행사가 열리기에 일정에 금토일이 하루라도 겹쳐야 합니다. '목쩌우'를 '마이쩌우'나 '하롱베이'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관련 사진들



K-마트 앞을 지나는 독일 관광객들(호안끼엠)



야간 장터(호안끼엠-금토일)



한글 배우는 베트남 학생(응오짜뜨 중학교)



소수민족이 사는 목퍼우의 풍광



한국 서울 선정중-베트남 하노이 탕롱중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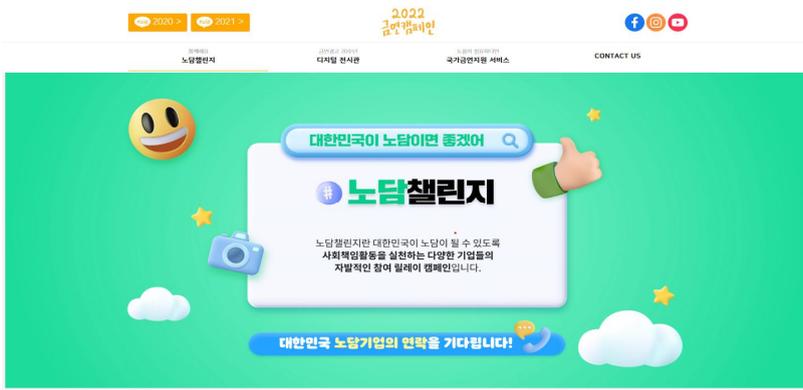
<b>정책 제안명</b>	2022년 #다감 캠페인
<b>정책 제안자</b>	박유경(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b>1. 현황 및 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공존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즉 보다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개인의 시민 의식이나 공동체 의식 등과 다문화 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의 관련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다문화 수용성의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미진, 김경은, 2018). 이때,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형식적인 교육 과정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형성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조성 등 잠재적 교육 과정 역시 절실하다(이지영, 2013). 현재 청소년 대상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가감(多加感)’이 있으며, 개별 학교별로 차체 시간에 다문화감수성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가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의 신청을 통해 강사가 파견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 다양성, 편견 해소, 소통과 협력, 세계시민의식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주배경인구에 대한 차별이 일상생활의 대인관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장지원, 2012) 다문화 사회에 대한 개방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는 그 주체가 청소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감수성 증진 캠페인, ‘#다감’을 제안한다.</li> <li>■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이고 지속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기존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방안은 초등, 중등, 고등의 학교급별로 차이가 없는 획일화된 강의식 교육 혹은 개별 학교에 따른 일회성의 특강 형태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세대가 경험한 다문화교육이나 다문화활동, 미디어에서 노출된 긍정적 이미지의 콘텐츠, 해외여행/거주 경험, 외국인 지인 여부 등과 같은 ‘다문화 접촉’이 타문화에 대한 거부감이나 편견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장수지, 2021). 이는 캠페인을 통한 지속적인 노출이라는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뒷받침한다.</li> </ul>	
<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 매뉴얼, 동영상 자료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를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시, 질 높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학교급별, 학년급별 구분이 없는 획일화된 자료라는 점과 연도별 자료 업데이트가 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li> <li>■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연계된 다누리 배움터는 대상에 따른 온라인 다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에 한하여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 30분가량의 영상을 4차시로</li> </ul>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8가지의 주제가 존재하며 주제별로 2시간가량이 소요됨을 밝히고 있다.

- 종합하였을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범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신청자에 한하여 대면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역별, 학교별 사각지대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존 정책 및 서비스의 한계는 미디어, 버스 등 광고판을 활용 및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감’ 캠페인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 3. 제안내용

- ‘#다감’ 캠페인은 18세 이하 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캠페인을 제작 및 ‘다문화감수성 지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존에 존재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포털인 ‘다누리’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홈페이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캠페인 속 주체는 청소년이 되며, 이주배경청소년과 이주배경청소년이 아닌 청소년이 겪는 다문화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과 장면을 포함한다. 이때, 초등, 중등, 고등의 학교급에 따른 영상 및 장면을 구성할 수 있다. 가령 #우리는 세계시민이야 #이주배경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해소하자 #이주배경을 알리고, 이해하는 용기를 갖자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다감’ 캠페인에 대한 효과성 연구를 매해 진행하는 방안이 고안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 ‘#다감’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2020년부터 청소년 대상으로 #노담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의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그림 1 참조). 실제로 SNS로 소통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 청소년들의 특징을 반영한 참여형 이벤트인 ‘노담(NO담배) 태그 캠페인’을 통해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라는 건네기 힘든 말을 서로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효과가 밝혀지고 있다(그림 2 참조). 무엇보다 금연문화가 자리 잡힌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례와 같이 ‘#다감’ 캠페인 또한 일회성 혹은 일부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1]



[그림 2]

#### 4. 기대효과

- 가장 큰 효과로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견남 외 (2013)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은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을 통해 개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다감’ 캠페인에 동참하는 챌린지 진행 등을 통해 개별 청소년의 참여와 문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에서 공통으로 공동체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된 변인은 학교에서의 인간관계로 나타났다(구정화, 2015). 청소년 주도의 캠페인을 통해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감’ 캠페인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으로써 성인의 인식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조화로운 사회로의 움직임을 드러냄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

## 5. 참고문헌

- 2022 금연캠페인 홈페이지 (2022). <https://nodam.kr/services>
- 구정화 (2015). 공동체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초등학교 5, 6학년의 차이 연구. 시민교육연구, 47(1), 1-24.
- 김미진, 김경은 (2018). 국내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1(1), 1-27.
- 다누리배움터 (2022). 청소년과정. <https://www.danurischool.kr/online/onCourseList.do>
- 여성가족부 (2022). 다문화이해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cVUazfj0q29pPqapM+p8AaE.mogef11?mid=plc503&bbtSn=642145](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cVUazfj0q29pPqapM+p8AaE.mogef11?mid=plc503&bbtSn=642145)
- 이건남, 김영은, 이기용 (2013).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6(3), 1-14.
- 이지영 (2013).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수지 (2021). 다문화 접촉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 연령집단 별 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70, 5-27.
- 장지원 (2012). 다문화 수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전문가 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b>정책 제안명</b>	The World in Korea, 우리가 미래다!
<b>정책 제안자</b>	황진주, 송연순(부천시주노동복지센터)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 동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으로 필요한 장치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li> <li>■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여러 방면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그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li> <li>■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지원 중 그들의 가능성을 열어주어 한국인, 이주민, 다문화인이 어우러져서 함께 미래를 그려보며 서로를 이해하고 시각을 넓혀보고자 함.</li> </ul> <p><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의 다름이 차별과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정책 중 이중언어 소통방법을 교육하고 있지만, 이중언어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li> <li>■ 인식개선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이 필요함. 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교과·비교과 활동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서로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기엔 지극히 적은 시간이라고 생각됨.</li> </ul> <p><b>3. 제안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대상 : 부천시 내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 부천시 내 청소년</li> <li>■ 정책의 내용 : 이주배경청소년과 선주민청소년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세계문화를 연구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존감 향상.</li> <li>■ 세부 실행방안 : 이주배경 청소년의 각 나라 대사관·문화원 방문, 세계문화 역사탐방 및 연구 발표.</li> </ul> <p><b>4. 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과 한국청소년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가 됨.</li> <li>■ 이주배경청소년과 한국청소년들이 진로탐색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됨.</li> <li>■ 이주배경청소년의 학력격차 해소 및 진로지도를 통해 이중언어 역량강화 할 수 있음.</li> <li>■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함으로써 이중국적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됨.</li> <li>■ 이주배경청소년이 이주배경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양국 간의 대한 진로를 탐색하게 됨.</li> </ul>	

<b>정책 제안명</b>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원
<b>정책 제안자</b>	윤정원, 박지수, 이예서(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3.30.)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52.27점으로 청소년(71.39점)에 비해 19.12점 낮게 나타났다. 2018년에 비해 성인은 낮아지고 청소년은 소폭 상승해 성인과 청소년 간 격차가 0.71점 더 확대된 결과이다. 이처럼 성인과 청소년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지만, 연령이 올라갈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별 다문화수용성은 20대 54.40점, 30대 52.98점, 40대 52.77점, 50대 51.80점, 60대 이상 49.98점이었으며, 청소년은 중학생 73.15점, 고등학생 69.65점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중 중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은 상승한 반면, 고등학생은 하락해 그 전 조사에 비해 학교 급별 격차가 0.31점에서 3.5점으로 확대됐다. 언뜻 보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추론해볼 수 있으나 자아정체감, 지역사회인식과 공동체 의식 및 자아존중감을 변인으로 한 연령별 다문화수용성 변화연구(오서진, 2021)에 따르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점차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문화이해교육과 다문화교류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li> <li>■ 또한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문화 개방성과 상호 교류 행동 의지 측면에서는 한국인이 응답한 수용성 수준보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수용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이 되는 자격 기준에 대한 다양성 인정 정도를 알아보는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 일반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측면에서는 모두 한국인이 응답한 수준보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인의 수용성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주민들은 한국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증가하고 이주민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 한국인이 개방적이라고 느끼지만, 이주민이 한국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동화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인이 응답한 수용성 수준만큼 이주민이 한국인을 수용적이라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li> <li>■ 이주배경청소년의 입장에서 측정된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에 대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높은 사회적지지(본 연구는 해당 변인을 부모 및 가족의 지지로 측정)와 높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다문화수용성이 증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가족과 부모의지지 수준이 낮더라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건전한 다문화 수용성을 기대할 수 있기에,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사회 정책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즉,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지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이나 외부 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또래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더라도, 사회 전반의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진다면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결과적으로 낮아지는 것이며 이주배경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해당 결과는 공교육 적응 이탈, 학업 포기, 단순 노무직 취업 등 생애 전반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이주배경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또래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뿐만 아니라, 성인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통해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li> </ul>	

- 2022년 2월 진행된 여성가족부 정책 브리핑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다문화수용성 교육에 대한 효과는 입증되었으며 다문화 이해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입증되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 확산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구축의 노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지지할 수 있는 근거의 법령은 전무하다. 언급된 법안 의무화의 경우 다문화 이해교육을 공교육에서 연 2시간 시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5조 6항에 따른 법령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 2. 기존 정책과 한계점

- ① 여성가족부의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지원계획에서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에서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정책의 한계는 다문화 이해와 공존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주민과 선주민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대상이 포괄적이다. 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쌍방향 교류, 융화지원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지만 그 지역과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 ② 여성가족부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을 위해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이해 및 수용성 제고 정책에서 다문화중점학교의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 사회를 적응하고 이해하기 위한 일방적 교육 기관이며, 교류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그 대상이 이주배경청소년보다 해외 청소년 또는 교포청소년과 같은 대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해 교류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교류의 장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 방안>에 대한 한계점은 다문화수용성 제고 부문에서 다문화 학생과 또래 학생이 함께하는 봉사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다는 방안은 다양한 종류의 청소년활동 영역에서 교류활동을 봉사활동으로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소년을 학생으로 한정 지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3. 제안내용

### 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보완 제안

- 정책대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직원과 학생담당부처
- 정책내용: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중, 국제결혼·외국인가정 청소년의 또래 청소년과의 교류활동 확대 및 발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세부 실행방안: 다문화인식개선 교육을 필수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 담당부처: 여성가족부

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1항을 바탕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중 다문화가족 자녀와 외국인근로자 자녀와의 교류에 대한 제도적 여건을 추가적으로 마련

- 정책대상: 만 13세~18세 청소년
- 정책내용: 남·북청소년 교류증진에 대한 조항에서 이뤄지는 '통일교육'과 같이 이주배경청소년과 교류를 위해 법적 근거와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다문화 이해교육과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 세부 실행방안: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전반적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장 제59조에서 지원하는 남·북청소년 교류에 대한 제도적 여건 마련과 같이 이주배경청소년 중 다문화가족 자녀와 외국인근로자 자녀와의 교류에 대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
- 담당부처: 여성가족부

③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대한 정책 내용 보완 제안

- 정책대상: 만 9세~24세 모든 청소년
- 정책내용: 다문화청소년과 함께하는 교류·협력 프로그램 개발, 일반 청소년과의 교류 촉진을 지원한다.
- 세부 실행방안: 다양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교류체험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이주배경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에서 교류와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촉진을 지원한다.
- 담당부처: 여성가족부

④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 방안> 보완 제안

- 정책대상: 다문화가족 자녀인 다문화청소년과 또래 청소년
- 정책내용: 다문화청소년과 또래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 영역에서 교류경험을 통해 개인·사회적 역량을 함양한다.
- 세부 실행방안: '다문화 학생과 또래 학생이 함께하는 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 교류 활동의 범위를 '봉사활동'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역사탐방, 과학정보, 문화예술, 환경보존 등의 '청소년활동'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동으로 확장하고, 학생보다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 담당부처: 여성가족부

#### 4. 기대효과

- 이론적 학습만이 아닌 직접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의 소통과 협력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유대감 및 시민성 증진에 기여한다.
-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한국 사회 다문화 수용성 정도의 괴리' 격차를 해소한다.
- 전반적인 사회 내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연령별 다문화수용성 수준의 차이를 좁혀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에 기여한다.
-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자주성 및 시민성이 고취되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기여한다.
- 다문화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제안을 통해 사회규범과 가치관에 대한 이해 및 적응을 돕고, 사회구성원과의 조화 및 조정을 실현한다.

#### 5.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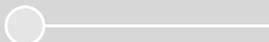
경제정보센터 (2022.02.17.).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62570&issus=&pp=20&datecount=&pg=>에서 2022년 7월 30일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3.30.). '다문화 수용성' 연령 낮을수록 높아... 성인·청소년 격차 더 커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0348>에서 2022년 7월 30일 인출.

오서진 (2021). 가족,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8차)를 중심으로. *여가복지경영연구(여가복지)*, 2(1), 1-19.

이은형, 박철옥 (2021). 연령에 따른 청소년 다문화수용성의 변화양상: 자아정체감, 지역사회인식과 공동체의식 및 자아존중감을 변인으로 한 다층모형 분석. *청소년학연구*, 28(11), 59-85.





## 9. 지원정책시스템 및 전달체계



<b>정책 제안명</b>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한국사회 안정된 생활과 정착지원
<b>정책 제안자</b>	송인선(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 유입에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들도 상당수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교육기관에서는 이들의 수요와 교육에 따른 핵심정책을 찾아볼 수 없음.</li> <li>■ 초등학교에서는 그나마 다문화가정 아동,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들을 다문화 학생으로 분류하고 다문화 교육의 연장선으로 방과 후 학습이나 이중언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는 마음에 상처만 안겨주는 교육이 되고 있음.</li> <li>■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교육이 없는 것이 특이함. 그리하여 한국어를 몰라도 학교 밖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학교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li> <li>■ 여기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각 학교 선생들이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들이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또래 친구가 없는 가운데 한국 사회 적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심리정서적 고통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임.</li> <li>■ 여기에 이민자 학부모들 역시 한국어 언어능력 미숙으로 취업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들의 심리적 고통을 헤아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도 큰 문제임.</li> <li>■ 특히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데 비하면 이민자 가정들은 각국의 가정문화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한국 사회 적응에 다방면으로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그 피해는 결국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들 즉, 자녀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음.</li> </ul> <p><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 처음으로 입국한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들이 공교육기관에 진입하려면 예를 들어 ○○○○시는 ○○교육청에 연락하여 전문 장학사가 지역학교를 배정해 주고 입학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학교 관계자가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학교가 소수이며 담임 교사 역시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예다가 이후 학생 고통과 심리 정서 지원 역시 전무하다시피 함.</li> <li>■ 한편 00도는 각 지역 학교장이 입학 및 편입학 여부를 결정 담당하고 있다 보니 처음으로 한국에 온 이민자들은 자녀를 공교육기관에 입학 및 편입학을 시키고자 하면 먼저 여러 기관단체를 찾아 다니며 입학 및 편입학정보를 얻은 후 이곳저곳을 수없이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 현실임.</li> <li>■ 또 한 각 학교 외국인 학생 입학 및 편입학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학교가 불과 몇 곳에 불과함.</li> </ul>	

- 그리하여 민간 단체에서 해당 학부모를 동반하여 학교를 찾아가 입학 및 편입학 업무를 안내하고 있으나 이 역시 최종적으로 입학 및 편입학 허가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기에 학교장의 다문화 이해 및 수용성 여부에 따라 며칠간의 시간이 소요되든지 아니면 입학 및 편입학이 불허되는 경우도 종종 있음.
- 우여곡절 끝에 공교육에 진입한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어 언어능력에 가로막혀 학교 수업시간에 선생의 가르침에 10%~30% 정도 알아들을 뿐이지만 공교육기관 내에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음.
- 물론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 특별반을 운영한다거나 방과 후 한국어 교육실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중학교부터는 이마저도 없음.
- 소수 일부 중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 대학생 멘토를 붙여서 학교 밖에서 주 2회~3회 정도 지도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한국어 교원 자격도 없는 이들이 국어라는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임.
-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국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국어 언어능력 기초향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기관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고 있음.
- 특히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심리 정서 갈등 고충 상담 지원이 한국어 언어능력 향상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고 있는 공교육기관도 역시 전무하다시피 함.
- 그리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한국어 언어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다문화 위탁대안학교로 보내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안학교가 학생의 주거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개 시·군에 한곳 정도 있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다 보니 이주 배경 중도입국 학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원거리까지 보낼 수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까운 공교육기관에 그냥 보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한국어 언어능력이 부족한 이주 배경 중도입국 학생을 위탁대안학교에 보내줘야 하지만 학교 관계자가 이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음.
- 이로써 공교육 현장에서는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학교 부적응으로 나타나 자퇴를 하거나 집 안에서 은둔생활을 하게 되는 이주 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3. 제안내용

- 관할 교육청이나 아니면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 지원 경험이 있는 민간 단체 위탁사업으로 최초 이민자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 공교육 진입에서 적응까지 원스톱 안내 및 지원 운영기관 필요
- 이민자 아동 청소년들이 입국하여 공교육에 진입하는 경로와 절차를 자세히 안내한 후 최소 3년 초기 6개월은 주 1회, 6개월 후부터는 1개월에 1회 정착 모니터링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지원, 학습멘토링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으로 한국사회 안정된 생활과 정착지원 필요.

-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 학부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한국사회 공교육 정보전달과 가족 관계 소통법 등 교육으로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 및 교육하게 하여 아동 청소년들이 가정에서부터 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지원해야 함.
-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과 후 학습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방과 후에 한국어 교육과 학교 교과 과목을 상시 지도받을 수 있는 학습센터 운영 지원이 필요함

#### 4. 기대효과

- 이민자 자녀들이 최초 입국에서 공교육기관 진입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불편함도 없이 한국사회 적응이 가능함
-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들이 학업을 위하여 이곳저곳 찾아다니지 않고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어려운 고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대응 및 대처할 수 있음.
- 특히 이로써 공교육기관 부적응학생 및 홀로 은둔생활 하는 아동 청소년들을 상당수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임.
-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안정된 생활과 정착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 됨.

<b>정책 제안명</b>	이주배경청소년 가치 '한국사회적응학교' 위탁운영제도 의무화
<b>정책 제안자</b>	장희선((사)함께하는공동체 원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 1. 현황 및 문제점

- 과거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고 지칭되어졌던 국내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국내출생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들 외에도 현재 한국 사회에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포함한 국외출생 국제결혼자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미등록자를 포함한 국외출생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외국인가정 자녀 등 다양한 배경의 이주배경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부 역시 다문화가정을 형성 배경에 따라 국제 결혼가정 및 외국인 가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출생지에 따라 국내출생자녀 및 중도입국자녀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배경의 이주배경청소년은 다음 현황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2020.11.01	266,321	105,939	107,265	34,440	18,677
2019.11.01	264,626	117,045	104,064	26,524	16,993
2018.11.01	237,506	114,125	92,368	16,164	11,849
2017.11.01	222,455	115,085	81,826	15,753	9,791

출처: 행정안전부 2017~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 하지만 이처럼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생활, 정서 지원 서비스는 일부 외국인주민이 많은 소수의 지역에서 대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를 실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현재의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가족센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차원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살펴보면 과거에 시행해왔던 제한적 사업 위주 서비스만을 답습하고 있는 현실이다.
- 예를 들어 시·도 교육청에서 각 초·중·고등학교의 재량에 맡겨 실시하고 있는 소위 '다문화학생 한국 어지도 강사모집' 매년 강사를 모집하여 강사로 하여금 이주배경청소년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주 배경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이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체적인 교육, 생활 정서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담교사일 것이다. 또한 주로 지방자치단체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족센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한민국 국민 자녀들만을 서비스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등록 외국인가정자녀와 더불어 미등록 외국인가정 자녀들은 복지 및 교육 사각지대에

높이며 다양한 교육, 생활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 2. 기존 정책과 한계점

-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를 기초로 하고 있기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의 제고가 필요하다. 2022년 강원도 교육청이 발표한 모두를 위한 다문화 교육 계획안 중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요구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요구

도내 다문화학생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사회 본격 전개

※ 다문화학생 10년 간 2배 이상 증가('12) 2,422명→('21)4,926명

다문화학생의 성장배경(국제결혼, 중도입국), 학생의 출생지(국내, 국외) 및 거주지(도시, 농촌), 부모의 국적, 학교급(초, 중, 고)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복잡한 교육수요 고려 필요

중도입국 학생의 증가로 인해 공교육 진입 지원 원스톱 서비스 정책 필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철학 아래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내실화 필요

다문화학생의 교육소외 방지 및 교육복지 차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 강원교육의 5대 정책 기본 방향 중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통합지원체제 구축

(강원도 교육청 2022 모두를 위한 다문화 교육 계획안 중)

-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이주배경청소년에만 집중되어 있던 정책의 한계를 느끼고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복잡한 교육수요 고려 필요성, 공교육 진입지원 원스톱 서비스 정책의 필요성, 고른 교육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기술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 가정에서 출생한 등록, 미등록 이주배경청소년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보수집의 미비로 실제 현장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다문화 청소년 정책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이주배경청소년정책이 필요한데, 비수도권인 강원도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도내 면적 당 인구수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숫자는 수도권이나 기타 외국인 밀집지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시, 군 단위의 정책이 아닌 도 단위의 정책제안과 거점 지원센터의 설립이 시급한데, 도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요구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시도 교육청이나 개별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각 학교 내에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업무를 맡는 교사가 있기는 하나 공교육 교사의 특성상 전출, 전입이 수시로 일어나 지역 사회 내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민간 기관과 연계의 지속성이 교사 개인의 의지에 따라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

### 3. 제안내용

#### 가. 정책 대상

18세 이하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포함한 국외출생국제결혼자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국외출생외국인가정자녀, 국내출생외국인가정 자녀(미등록자 포함)

#### 나. 정책의 내용

- 도 교육청 차원이나 개별학교 차원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 교육, 진로진학지도, 한국생활 지도를 전담해 줄 전담 공교육 교사의 즉각적인 배치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간 위탁을 통한 가칭 '한국사회 적응학교'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공교육 진입을 돕고, 이미 공교육에 진입한 대상자들과도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자립을 이끌어 낸다.
- 언어, 문화 이해의 한계로 공교육 진입이 어렵거나 이미 공교육에 진입했으나 적응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한 '한국사회적응학교'의 운영을 각 시도별로 의무화한다.
- 중앙 정부에서 공표한 대상자 수요에 의거하지 않고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위탁기관 수와 지역을 결정한다.
- 가칭 '한국사회적응학교'의 운영은 민간 위탁으로 하되,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와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지역 교육지청, 지역기초단체 여성가족과, 지역출입국관리 사무소 담당자 변동 시 업무 인수인계의 체계화 구축)
- 가칭 '한국사회적응학교'에서는 해당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문화적응, 진로지도, 학습 지원, 정서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공교육 진입 원스톱 서비스 및 공교육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 배경청소년들이 수업시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의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지원프로그램이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사회 청소년들에게 거점 기관을 마련하는 것을 법제화한다.

#### 다. 세부실행방안

가칭 '한국사회적응학교' 특별전담조직(T.F팀 구성)- 유관 민,관 기관 전문가 및 현직 교사 등으로 구성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광역지자체 혹은 기초지자체 차원의 적절한 위탁운영주체수 및 운영 가이드라인 설정

민간 위탁 운영 주체 수탁 공고

민간 위탁 운영 주체 선정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가칭 '한국사회적응학교'개교

#### 라. 참고사항 및 추진 시 유의점

- 국내출생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한국에서 성장한 이주배경청소년은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할 때 지역 사회 내 유관기관을 충분히 조사한 후 관련 업무에 전문가 그룹을 선정한다.(가족센터에만 국한되지 않은 지역사회 내 기타 거주 외국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 전문가 및 현직 다문화 업무 담당 교사를 반드시 포함시킴)
-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광역지자체 차원의 위탁운영지역 및 주체 수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 마. 선결과제

- 통학이 어려운 지역적 특징이 있는 지역에서는 기숙사 건립과 운영이 필요함.
- 국비, 도비, 시비가 결합된 예산 확보의 어려움.
- 부처 간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불충분함.
- 개별 학교의 다문화 업무 전담교사의 잦은 이동과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 및 이해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원스톱 시스템 단절의 가능성.

#### 4. 기대효과

- 대상 이주배경청소년의 다양한 특성과 어려움을 정확히 인지하여 입국 후 공교육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 및 이주배경청소년 전담 위센터의 역할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특화 거점이 마련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에게까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대상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교육, 문화적응, 사회적응, 체류자격 등에 대한 창구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청소년과, 지역 외국인출입국 사무소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효과적인 단일 창구를 제시할 수 있다.
- 지역사회 내 개별학교에서 과도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직 교사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공식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이주배경청소년 학부모의 심리적 접근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 외국인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 5. 참고문헌

강원도교육청 (2022.02.03.). 2022년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 계획. [https://gwe.go.kr/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1371629&boardSeq=1463322&id=kr\\_031302000000](https://gwe.go.kr/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1371629&boardSeq=1463322&id=kr_031302000000)

행정안전부 (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2019).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202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202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b>정책 제안명</b>	이주배경 청소년 적응을 위한 ‘통합형 맞춤 지원’
<b>정책 제안자</b>	정영찬(인천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김미현(인천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 유철민(인천산곡북초등학교)
<p><b>1. 현황 및 문제점</b></p> <p>가. 이주배경청소년의 학교 적응 및 한국 사회 적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의 한국어 사용 능력과 가족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의 어려움에서 기인함</p> <p>나. 특히, 27만여 명의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 중단율과 학교 부적응은 점점 증가하는 추이 *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 중단율<sup>1)</sup>은 2018년 기준 △초등학교 0.87% △중학교 1.34% △고등학교 1.91%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진학률이 낮아지고 있다.</p> <p>다.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이 될 이주배경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차별 금지를 위한 적응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p> <p>라. 기존 정책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지원이 학교 기관의 단순한 일괄적인 제공 및 중심학교 등을 통한 학교 자체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p> <p>마. 특히, 학교 내 다문화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 편성과 각 교과목의 다문화적 요소를 포함하여 교사의 자율적인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다문화교육 주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타 문화 체험 등의 노작 활동, 그리기 활동 등에 대한 이해 활동에 국한되어 있음</p> <p>바. 정책 제안 이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존의 선발된 프로그램들의 체계화 및 정립을 통해 효율적인 프로그램 제공</li> <li>②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협의체를 구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완성</li> <li>③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직로, 직업 멘토단 및 통번역사 운영</li> <li>④ 지역 군·구와 교육청의 다문화 관련 센터들의 활동을 하나로 묶어 운영이 필요함</li> </ol> <p><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주배경 청소년은 여러 명칭 혼용으로 인해 더 소외감을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 청소년이 관련 정부 부처와 법령에 다양한 명칭으로 불림</li> <li>- 행정안전부(외국인 주민 자녀),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 자녀), 교육부(다문화 학생)</li> <li>- 명칭 혼용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이주 청소년 발생</li> </ul> </li> <li>② 기존 탈북학생,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기회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고입 및 대입 특별전형,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 * 탈북학생 수<sup>2)</sup>는 2005년 421명에서 2019년 2,531명으로 급격히 증가</li> </ol> <p>1) 문경연 (2021). '문턱'을 넘다: 한국 내 이주배경 청소년의 현황과 과제. 2021 세계이주민의날 기념 정책 심포지엄. 2) 김나영 (2021). 2021년 1월 이슈통계 통계로 본 교육격차의 현황.</p>	

- 탈북학생 학업 중단율은 초등학교 1.4%, 중학교 3.2%, 고등학교 4.7%로 전체 학생 학업 중단율 (초 0.7%, 중 0.7%, 고 1.6%)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음
  - 교육청에서도 학업 중단과 다문화 관련 업무 부서가 나뉘어 있고, 학업 중단율 대책 수립 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요인은 중요시하게 고려되지 않음
- ③ 기존의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교육은 교과에 산재되어 있는 다문화 교육 요소를 언급하고 넘어가거나, 세계문화체험 수준의 노작 활동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음. 교육부 차원의 부서 TF팀을 구성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도안, PPT 등 교육 자료가 필요함
- ④ 이주배경 청소년 등을 위한 지역 협의체가 있긴 하나 정책의 공유 차원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가정의 학부모, 학생들이 각각 산재되어 있는 지원, 정보들에 대해 소외됨.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플랫폼에 교육정보, 번역 정보, 다문화 정보, 진로 정보, 상담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3. 제안내용

#### 가. 지역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센터 구축(가칭)

- ① 군·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교육청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다양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광역시·교육청의 도서관에서 장소를 협조 받아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 거점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 구축
- ② (예)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별 번역, 통역 지원  
 2. 교육청 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장소 및 프로그램 협조: 광역시·교육청의 도서관
- (예) 현재 인천 지역 다문화 교육, 지원 센터 협의체를 실무 형태로 묶어 구축함  
 ※ 현재 인천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
-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미추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인천지역 도서관(인천광역시 관리, 교육청 관리) 20여 곳
  -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https://kr.allim2.kr/html/index.html>)

#### 나. 다문화가족 청소년, 다문화학생, 탈북 청소년 등을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명칭 통일

- ① 다문화학생 등의 명칭을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통칭하여 사용(부처별 의견 통일)
- 행정안전부(외국인 주민 자녀),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 자녀), 교육부(다문화 학생)
- 1) 다문화가족 청소년: '다문화'의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 되는 부분임
- 2)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의 경우 합법적 체류 신분인 경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음

- 3)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 무연고 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과 제 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데려온 경우를 포함
  - 4) 탈북청소년: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청소년, 새터민청소년 등 다양한 표현으로도 불리고 있음
  - 5)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란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뜻함. 다만, 이들을 '비보호청소년' 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청소년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님. '비보호청소년' 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보호 정책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자정이 필요한 용어라고 할 수 있음
- ② 이주 배경 청소년 명칭의 통칭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한 부서의 칸막이 행정을 방지하고, 명칭 혼용으로 인한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이주 청소년 구제

**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예방 및 진로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 확대**

- ① 기존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이 높음, 따라서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없고, 컨설팅도 받기 힘든 상황임.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를 많이 구하면서 부적응의 악순환이 반복됨
- ② 초등학교부터 한국어, 생활 적응 훈련 등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광역시별로 통역사(아랍어, 제3국 언어)를 배치하고 배치가 어려울 경우, 단기 통역사 인력POOL을 구축하여 이주배경 청소년 가정의 도움 필요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함
- ③ 중앙 센터에 고문통역사를 배치하여 원격화상을 통하여 어디서나 쉽게 사회생활 적응(처음학교로 신청, 아이돌보미 신청 등)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④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예방 및 진로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거나 방과후 바우처를 지원하여 초등학교 시절부터 기초학력 저하로 인한 학업 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 ⑤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정서·심리 상담을 위해 권역별로 고문상담사 등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함. 상담사의 경우 청소년이 기존에 했던 상담사를 의지하는 경우가 높고, 관계성이 높은 상담사를 선호하며 마음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근무가 가능한 고문상담사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 ⑥ 권역별 대학생 멘토단을 모집하여 학생들의 멘토-멘티 연결이 필요함. 권역의 대학생, 예비교사 등을 모집하여 학생들에 대한 1:1 멘토-멘티단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학업, 친구관계, 진로에 대한 고민과 설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멘티단 구성이 필요함

**라. 기존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① 통합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 차원 단위에서 학급 차원 단위로 확대, 교과연구회 중심의 학급 운영을 위한 다문화 학급을 운영한다면 다양한 사례를 나누고 공유하며,

기존의 정책학교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됨

- ② 유치원, 초중등, 한국어학급(유초중등)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형 운영을 위한 사례 나눔 및 인력풀 구축(이중언어 강사, 한국어 강사, 상담사 등)하여 학급 단위, 거점 단위의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③ 기존의 다문화교육 사례에서 일반 학급과 타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운영 수업 자료 개발하여 보급이 필요함

#### 4. 기대효과

- 가. 지역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센터 구축으로 이주배경 청소년 및 가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 지원으로 일상 및 학교생활 적응에 기여함
- 나. 다문화가족 청소년, 다문화학생, 탈북 청소년 등을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명칭을 통일하며 부처 간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소외지대 이주배경 청소년을 발견할 수 있음
- 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예방 및 진로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으로 다양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학생의 적성 및 소질 계발에 따른 직업 선택 능력 신장함
- 라. 기존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에서 학급으로 확대되고, 인력풀이 구축되면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의 실현

#### 5. 참고문헌

김나영 (2021). 2021년 1월 이슈통계 통계로 본 교육격차의 현황. [https://kess.kedi.re.kr/post/6716609?itemCode=03&menuId=m\\_02\\_03\\_03](https://kess.kedi.re.kr/post/6716609?itemCode=03&menuId=m_02_03_03)

문경연 (2021). '문턱'을 넘다: 한국 내 이주배경 청소년의 현황과 과제. 2021 세계이주민의날 기념 정책 심포지엄.

<b>정책 제안명</b>	스쿨 ON 프로젝트
<b>정책 제안자</b>	주해란(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안태구(사단법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 김한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마미나(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조한나(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교육에서 다문화 학생은 16만 명으로 2020년에 비해 8.6%나 증가하였고, 중도 입국 자녀와 탈북청소년까지 포함한 이주배경아동은 27만명 정도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내 노동시장 변화 및 결혼 형태 다양화 등의 이유로 이주배경아동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주배경아동은 지난 5년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5천여 명이 학업을 중단하였다. 이들이 학업중단 배경을 살펴보면 약 30% 이상의 동일한 경험을 하였다.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하였거나, 어려운 가정 형편과 학습결손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이외에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주배경아동들 또한 국적, 외모, 언어와 학습의 부진함으로 인해 학교에서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li> <li>■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 형성되고 극단적 정서변화가 일어나는 불안정한 시기이며 또래 친구에 대한 관심과 또래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다. 하지만 이주배경아동의 청소년기 양육 환경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모의 한국문화 부적응, 방임 등으로 가정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주배경아동 중 많은 아동청소년들은 이중언어 사용으로 인해 언어 발달 지연의 문제를 겪었고, 이는 다양한 이차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언어발달 지연은 학교 학습을 따라가는 한계를 느끼게 하고, 친구들과의 소통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회성이 저하되는 경험을 하였다. 청소년기는 성인기 성장하는 과도기 시기인데, 복합적인 문제는 이주배경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없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li> <li>■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넘어 국가와 공교육의 개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그로 인해 이주배경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대상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지원정책이 모든 이주배경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바로 공교육이 앞장서야 한다. 학생에게 학교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자 역할을 한다. 학교에서 하루 1/3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래 관계를 형성되고, 교육과정 및 체제를 사회의 통상적인 지식을 배우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기술들을 배우게 된다. 아동청소년기에 학교는 아동청소년기에 필요한 발달과업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다. 이주배경아동이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것은 또다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주류 문화로 접어들게 된다.</li> <li>■ 공교육은 다양한 학생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학교에 적응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즉, 학생들에게 학교는 배울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주배경아동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업을</li> </ul>	

중단하는 사유가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차별이나 배려 부족으로 인해 중단하게 되는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 학교가 이주배경아동의 입장에서 제도와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데 앞장선다면 어떤 정책보다 실천적이며,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시기에 자리 잡은 올바른 인식은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내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인식과 배려,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므로 건전한 또래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며, 이는 초저출산·고령화시대에 이주배경아동을 대한민국의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 2. 기존 정책과 한계점

### □ 정책명 :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다가감’

- 정책의 내용 : 일반 청소년(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생 전학년)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전문 강사 양성 및 파견을 통한 찾아가는 교육 지원
- 담당 부처 : 여성가족부
- 한계점 :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은 필요에 의해 신청한 학교에만 강사가 파견되므로 학교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교육에서는 제외된다. 강사 파견은 단기 교육에 그친다. 이런 파견 교육은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나 학교 상황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 이수 교육으로 지정하거나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한 신청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학생들을 위한 교육 이외에도 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육이 별도로 제공되어야 한다.

### □ 정책명 : 돌봄정책

- 정책의 내용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및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 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 지원), 문화 서비스(체험활동, 공연)를 제공함으로써 이주 배경 아동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 한계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상태의 이주 배경 아동들은 원천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에 입소한다고 하더라도 정원 외로 입소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없다. 또한 현장 학습으로 국내여행을 가는 경우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데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현장 학습에서 제외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들은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 □ 정책명 : 레인보우스쿨

- 정책의 내용
  - 일반형 :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한국어, 특화프로그램, 교과목 교육, 진로지도 등

- 진로형 : 진로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진로교육 기초 과정(진로교육 한국어, 진로 탐색 및 설계, 현장체험활동, 단기직업체험), 직업실습 및 소양교육 등을 포함한 진로교육 심화 과정(직업실습, 이론교육, 경제교육 등)

■ 담당 부처 : 여성가족부

- 한계점 : 특화된 프로그램과 다양한 진로, 직업 프로그램들을 전국 28개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여 제공하지만, 전국적 분포도가 주로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 때문에 효과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또한 시범사업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되기에는 시간적 어려움이 있고, 동일한 교육과정의 한계가 있다. 또한 교육이 다문화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아닌, 교육을 받는 교과서나 교육 전달 방식에 미숙한 한국어를 가르쳐가며, 한국어로만 소통하는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했다.

□ 정책명 : 상담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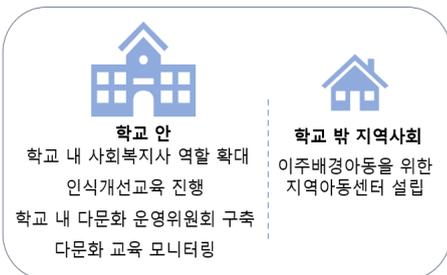
- 정책의 내용 : 이주배경아동 대상 대면상담(내방상담, 찾아가는 상담), 비대면 상담(화상상담), 온라인상담(전화상담, 문자, sns상담)등 심리상담 실시

■ 담당 부처 : 여성가족부

- 한계점 : 어린 연령의 이주배경아동들이 자신들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스스로 깨닫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에게 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주변에 주어진 많은 상담프로그램과 의사소통 기기들의 활용은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한국사회의 체계 속에서 그 문화에 적응이 채 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혜택을 찾지 못한다. 또한 다양한 인종이 함께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의 중심에 있지만, 소통이 되는 언어는 국한되어 있어, 내면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언어적 소통의 문제는 더욱 그 문을 막는다.

### 3. 제안내용

- 이주배경아동이 학교에서 소외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학교 내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이주배경아동이 학교 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이주배경아동이 공교육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돕는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 학교 내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전용 사회 복지사 의무 배치 및 역할의 확대
-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인식 개선 교육
- 학교 다문화 교육 운영위원회 운영
- 학교 다문화 교육 학부모 모니터링단 구축
- 이주배경아동 전용 지역아동센터 구축

□ 3-1 학교 내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전용 사회복지사 의무 배치 및 역할의 확대

- 정책 대상 : 이주배경아동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 정책의 내용 : 학교 내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전용 사회복지사 의무 배치 및 역할의 확대
- 세부 실행 방안 : 학교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정서적 부적응 징후를 나타내는 학생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주배경아동이 학교 내 10% 이상 재학 중일 경우, 이주배경아동 20명당 사회복지사 1인 의무배치를 진행하여, 학교 내 사회복지사는 이주배경아동 부모와 학교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이주배경아동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지원한다. 사회복지사가 학교 내 근무하므로 학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주배경아동의 학교생활을 모니터링하므로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취약계층아동도 원인이나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담임교사나 사회복지사가 모든 영역에 있는 아동들을 세심하게 관찰 지원할 수 없다. 하지만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전용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게 된다면, 비슷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이주배경에 대한 이해와 외국어 사용가능한 사회복지사가 충원된다면 청소년기 발달 특성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에서 오는 정서적인 불안정은 청소년 자신의 내재화 문제를 예방하고 학교 내 적응을 도울 수 있다.
- 담당 부처 : 교육부&보건복지부
- 추진 시 유의점 : 이주배경부모와 언어소통이 가능한 전문 사회복지사로 마련되어야 한다.

□ 3-2. 모두가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와 다양성에 관한 인식 개선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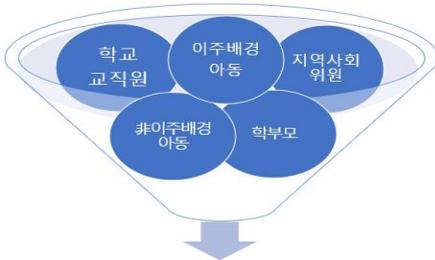
- 정책 대상 : 학교 내 전체 아동 및 이주배경아동(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교사, 학부모
- 정책의 내용 : 학교 내 구성원들에게 다문화 이해와 다양성에 관한 인식 개선 교육
- 세부 실행 방안 : 학교 내 구성원들 모두에게 다문화와 다양성을 고취하는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한다.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보건복지부 조사를 시행했을 때 예년보다 배타적인 인식이 높게 나왔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예멘 난민 입국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이주민에 대한 포용적 시적이 부족한 면도 있다. 이주배경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적 체계가 이뤄져야 하고 그 체계를 갖추기 위해 인식개선 교육이 기반이 되어 이주배경아동 및 청소년 스스로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이들 또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인식은 이주배경아동 당사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비이주배경아동, 학교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함께하는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다문화청소년은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가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주배경아동들이 학교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非이주배경아동	이주배경아동	학교 교직원	학부모
다름을 인정하고 배척하지 않는 인식개선교육	낮아진 회복 탄력성 및 자아정체성 인식개선교육	이주배경이해 및 민감성 높이는 지도방법교육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정연계 학부모교육

- 담당 부처 : 교육부 및 단위 학교
- 추진 시 유의점 : 전체 학생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이주배경아동들의 스스로 인식이 개선되는 프로그램이 구분되어 진행되고, 환영받는 이미지와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하며, 차별적 발언이나 인식이 고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선결 과제 :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등록아동이 출생신고 등의 문제로 인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 □ 3-3. 학교 다문화 교육 운영위원회

- 정책 대상 : 학교 교직원, 이주배경아동, 비이주배경아동, 이주배경 및 비이주배경 학부모, 지역위원
- 정책의 내용 : 학교 내 이주배경아동이 10% 이상 재학 중이면, 다문화 교육 운영위원회를 구축
- 세부 실행 방안 :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주배경아동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중도 탈락하지 않는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이주배경아동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한다. 즉, 교육부나 교육청 단위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보급되더라도, 지역의 특성과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상황에 맞도록 진행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축하고, 교직원, 지역사회위원, 학부모, 당사자와 비이주배경아동으로 구성한다. 교육 운영위원회 주요 기능은 학교 시스템에서 차별되는 조항 검토, 이주배경아동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선정,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제언 및 건의, 이주배경아동 학교 적응프로그램, 이주배경아동 중도탈락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주배경아동의 학교 소속감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다. 이는 부모의 이주배경에 의한 것이 아닌 부모가 교육적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를 다양한 학교 참여자로 참여시켜 부모가 교육적 관심 갖게 하므로, 이주배경아동의 학교 소속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주배경아동과 비이주배경아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학교

- 학교 다문화 교육 운영위원회 역할
  - 학기 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통해서 이주배경아동 학교적응을 돕는 모니터링을 진행 함.
  -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진행: 다양한문화 체험 교육, 다양한 문화음식을 경험하는 급식 제공 등
  - 이주배경아동 출석율 모니터링, 학교 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정기적으로 추이 확인

- 담당 부처 : 교육부 및 단위 학교

### □ 3-4. 학교 다문화 교육 학부모 모니터링단 구축

- 정책 대상 : 이주배경아동이 10% 이상 재학 중인 단위 학교.
- 정책의 내용 : 학교 내 이주배경아동이 10% 이상 재학 중이면, 다문화 교육 학부모 모니터링이 다문화에 대한 학교의 정책 및 실현성을 파악하여 교육청 학교 평가에 반영.

- 세부 실행 방안 : 이주배경아동이 10% 이상 재학 중이면, 다문화에 관한 교육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되는가를 평가한다. 학교 평가는 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단위 학교에서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려면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면 정책이 효과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 교육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축할 때는 전문가와 이주배경학부모가 팀이 되어 평가한다면 이주배경학부모가 학교 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학부모의 관심은 학생이 학교 내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문화 교육 학부모 모니터링 주요 기능은 교육과정에서 이주배경아동 차별유무, 담임교사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교육 및 다양성을 높이는 다각도의 노력, 상담일지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추진 시 유의점 : 평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때는 표준화된 정량 지표를 통해서 전문가와 학부모가 한 팀이 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서 정량지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담당 부처 : 교육부 및 교육청

- 선결 과제 :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단위 학교 평가 항목이 개선되어야 하고, 다문화 교육 모니터링의 역할과 평가 항목이 선행되어야 한다.

□ 3-5. 이주배경아동 전용 지역아동센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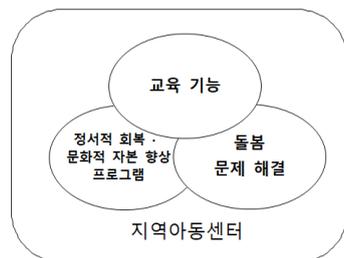
- 정책 대상 : 이주배경아동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 정책의 내용 : 이주배경아동 전용 지역아동센터 구축

- 세부 실행 방안 : 청소년은 학교를 중심으로 또래 집단이 형성된다. 또래 집단은 무리에 속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데, 비슷하지 않으면 배척하는 경향도 높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는 또래 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학교 이외의 장소인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또래 집단을 구성해줌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학교 내에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주배경아동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 의무적으로 이주배경아동만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를 구축하여 이주배경아동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주배경아동들이 겪을 수 있는 정서적인 문제와 이주배경아동을 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 지역아동 센터는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숙제 및 학교 내 기초 학력 보완 프로그램 진행
- 자아정체성 및 회복 프로그램 등 심리적 안정감 및 사회적· 문화적 자존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 돌봄 문제 해결 및 균형 잡힌 석식 및 간식 제공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 시 유의점 :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이해가 높고, 부모와 언어소통이 가능한 사회복지사 선발 하고, 이주배경 학부모를 교사나 보조 인력으로 채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 선결 과제 : 소득 수준 상관없이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아동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 및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 4. 기대효과

- 학교 내 적응 및 또래 문화 이질감 문제 극복 : 공교육에서 이주배경아동들이 교육 불평등 및 교육 소외현상을 경험하였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다문화 교육위원회가 구축·다문화 교육 학부모 모니터링 운영할 때, 이주배경학부모를 직접 정책 결정권자, 의사결정자로 참여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은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에 관심을 높이고, 학부모가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학생은 더 이상 학교에 소속감이나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 이외에도 이주배경아동을 배척하지 않는 문화 및 더불어 살아가는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주배경아동이 한국과 학교에 소속감을 느낌으로 학교 중도 탈락률을 낮출 수 있다. 학교 사회복지사의 확대, 학교 내 다문화 인식개선교육 등 학교에서 이주배경아동을 환영하는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차이 없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 건강한 자아관 확립 및 건전한 성장 : 청소년기는 또래에게 의존하고 또래 문화에 속함으로 안정감을 얻으며 정서·사회성이 발달한다. 이때 학교 내에서 이주배경아동을 배척하지 않는 교육과 풍토를 만듦으로 청소년기에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며 또래 안에서 놀이 문화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긍정적인 자아정체성감을 갖게 하고 진로 탐색으로 이어져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문화를 구축한다.
- 교육 불평등 해소하여 경제활동인구 수 증가 : 학교는 위기 청소년을 안정적으로 학교에 정착시켜 학교의 목적과 책무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학교 내 사회복지사, 이주배경아동 전용 지역아동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우수 인재를 발굴한다. 또한 이주배경부모에게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도 이주배경 당사자들을 의사결정권자 정책참여자로 참여시켜 소속감을 높이고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지역사회위원회 위촉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 학교 외 지역사회까지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외에도 이주배경아동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초저출산 및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킨다.

#### 5. 참고문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08.27.). 2021년 교육 기본통계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b>정책 제안명</b>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지역사회 또래친구를!
<b>정책 제안자</b>	장상윤, 이강애(나섬공동체 재한몽골학교)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의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최윤정 외, 2019)에 따르면, 장기 정착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라 1세대의 차별은 감소하고 2세 자녀들이 겪는 차별 문제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문화 1세대인 결혼이민자·귀화자 중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30.9%로 2015년(40.7%)보다 약 10%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반면 다문화 가정 자녀 중 사회생활을 하면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9.2%로 2.3%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중 학교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8.2% 나타났으며, 학교폭력을 경험해도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참는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 정도(48.6%)입니다.</li> </ul> <p><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착단계의 다문화가족과 학령기로 접어든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위해 '다문화 수용성 제고, 청소년기의 심리·정서 위기 지원,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 지원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2022년 현재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은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li> <li>■ 5년을 단위로 하는 정부정책위원회의 다문화 가족 정책의 방향은 그 주기가 적극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짧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 틀 안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단발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한계점이라고 보입니다.</li> </ul> <p><b>3. 제안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래친구 맺어주기' 프로그램을 정기화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섬공동체는 2018년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중도입국청소년과 한국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첨부. 1 참조)</li> <li>- 이것은 광진구 소재 한국청소년과 몽골 출신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함께 다양한 동아리를 구성해 일정한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li> <li>- 그러나 이러한 공모사업은 정기적이지 못하여 한 번 하고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 돈독해진 이주배경청소년과 한국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li> <li>- '또래친구 맺어주기' 프로그램같이 긍정적인 반응이 생긴 것은 적어도 다문화 가족 정책 방향 주기인 5년은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li> </ul> </li> </ul>	

#### 4. 기대효과

- 또래집단 특유의 연대감 형성

같거나 비슷한 연령대에서 같은 동아리에서 일정 기간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특유의 연대감이 생깁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평생친구를 찾을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한국사회에 한층 더 공고하게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주배경청소년의 리더십 고양

동아리에서 같은 취미를 갖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다 보면 다양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겪어 보기도 합니다. 서로를 돕고 함께 이끌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동아리 활동에서 생기는 리더십은 향후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향후 진로 모색의 기회 부여

같은 또래의 누구나 그렇듯이 고교 졸업기에 접어든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 모색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층 더 친밀한 시간을 나눈 동아리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이주배경청소년들로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역주민의 따뜻한 시선

지역주민들에게 낯설게 보이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동아리 활동으로 같은 취미와 취향을 가진 한국 친구를 사귀으로써, 그들의 부모가 되는 지역주민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 5. 참고문헌

최윤정,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정해숙, 양계민, 이은아, 황정미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 2019-01). 서울: 여성가족부.

<b>정책 제안명</b>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가칭)“글로벌아동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b>정책 제안자</b>	이희용, 박효진(다애다문화학교)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다문화가정의 88%는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40.5%로 전체 국민(71.5%)과 비교하여 31% 포인트나 낮은 상태여서 다문화가정 자녀 및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력 신장 문제 해결이 시급함</li> <li>■ 중도입국 아동 및 청소년에게는 한국생활 정착을 위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교육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인정되는 공교육 내 다문화교육기관의 수가 적고, 공교육 기관 내에서 제공되는 한국어(KSL)교육 및 한국문화이해교육이 매우 부실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음</li> <li>■ 현재 여가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교육부는 다문화학생(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인 다문화 가정 학생, 외국인 자녀, 북한이탈학생 등)을 위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지원은 정작 다문화 학생들의 학력 신장 및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미래 개발 및 교육을 위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li> <li>■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력을 신장하고,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육(KSL) 및 한국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가칭)“글로벌 아동청소년 센터”가 설치 운영되어야 함</li> <li>■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의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을 통해 민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다문화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중도입국학생들을 위탁하고 있는 바 ① 자발적 다문화교육의 지속성 및 연속성 확보, ② 소규모 다수의 다문화교육기관의 지역 안배를 통한 다문화교육서비스의 안정적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 위탁을 통한 다문화교육의 확대가 필요함. 이에 대하여는 2021년에 연구 진행된 ‘중등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의 운영 모형 제시를 위한 기초연구’(연구책임자 김명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를 참고.</li> </ul> <p><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다+온센터’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및 학적 생성을 돕고 있음. 그러나 국제결혼에 의해 다문화가정을 이룬 부모 및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의 공교육 제도에 진입하기 위해 본국 및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번역 및 공증업무 등과 같은 취학 업무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얻기가 대단히 어렵고, 어느 기관을 상대로 문의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함. 또한 정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구비서류를 갖춰 일선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고 학적이 생성되기까지는 매우 오랜 기간 자택에서 대기해야 함.</li> </ul>	

-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다문화 특별학급, 중점학교, 연구 학교 등)'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중 다문화 중점학교 및 연구학교는 정주민인 우리나라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이주배경청소년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교육 즉, 세계 시민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일회성 다문화관련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주배경 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간접적인 도움에 그치고 있음
- '다문화 특별학급', '이중언어교실'은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한국어(KSL)교육 및 한국문화이해교육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나
  - ① 자발적으로 정책학교에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정규학교의 수가 매우 적고
  - ② 각 단위 학교에서는 가이드라인 및 자율권의 부재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③ 정책학교로 지정된 특정 학교 주변에 외국인이 밀집하는 경향이 발생하여 여러 가지 다른 사회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커짐(예; 서울 대림동, 경기도 안산 등)
  - ④ 전국적으로 400개 이상의 다문화 특별학급이 지정되어 있으나 서울, 인천 등 대도시 지역의 중·고등학교의 경우 다문화 특별학급으로 지정된 학교와 학생 자택 간의 접근성이 떨어짐
  - ⑤ 중도입국 학생의 경우 정규 학교 편입에 필요한 학적 관련 서류가 준비되기까지 공교육을 받을 수 없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다+온센터', '한빛마중교실' 두 군데만을 지정한 상태임
  - ⑥ 교원이 일정 기간 단위로 순환하는 공립형 다문화교육정책학교의 경우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반해 배정되거나 정기 인사에 따라 순환 배치되고 있어 다문화 학생 교육의 지속성 및 연속성 보장이 어려움
  - ⑦ 다문화 특별학급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특별학급에서 학습한 내용과 일반 학생이 치르는 정기고사에 출제되는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배우지 않은 내용을 평가받는 불합리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다문화학생들이 학업성적 평가점수 획득에 절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바 상급학교 진학에 내신 점수가 반영되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매우 중대한 학습권 침해에 해당함
- 다문화 특별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학교에 배정된 대다수 중도입국학생의 경우 한국어 교육의 기본이 되는 한국어교육과정(KSL)을 제공받지 못한 채 일반 한국 학생과 통합수업을 받고 있어, 다문화가정 부모의 특별한 배려로 사비를 들여 한국어학원이나 과외 수업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학령(學齡)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생활 한국어 및 교과 한국어 사용 능력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게 됨

### 3. 제안내용

- 정책의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인 다문화학생
  - 학령기 중도입국 아동 및 청소년으로 외국인등록 대상인 자
- 정책의 내용
  - 여성가족부 또는 교육부는 법적 근거 마련 (가칭 '이주배경아동청소년지원법')

- 여성가족부 또는 교육부는 공공기관 형태의 '(가칭)글로벌아동청소년센터'를 설립하고 다문화 지원사업을 주목적 사업으로 하는 민간 비영리법인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를 지원
-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대안교육기관법」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근거하여 다문화교육 관련 대안교육기관을 학력인정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맞춰 지급하고 학력인정에 필요한 각종 지침에 대한 장학지원을 시행함 (2022년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를 통해 44개 기관을 위탁 지정 운영 중임)
- 각급 초·중·고등학교장은 각 학교의 다문화학생 중 기초학력이 심히 낮은 학생 및 중도 입국학생 중 한국어(KSL)교육이 필수적인 학생을 위 센터의 대안교육기관에 적극 위탁하여 기 시행 중인 국가수준 한국어 진단보정시스템에 의한 한국어 사용능력을 취득하도록 함

■ 세부 운영 내용

- 설치 및 운영 : (가칭) 글로벌아동청소년센터는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함
  - 1) 학생 정원 : 학생의 출신국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60명 이내로 함(학생 간 분쟁 및 폭력 사고 예방 목적)
  - 2) 다문화대안교육기관은 직영 또는 임대 시설에서도 운영 가능함
  - 3) 센터 내 교육기관의 법적 지위 : 학교법인(각종학교), 비영리 사단법인에 의한 대안 교육기관이 가능함
- 조직 : 글로벌아동청소년센터는 상담지원팀, 교육지원팀, 행정지원팀으로 구성함
  - 1) 상담지원팀은 중도입국학생의 학부모 및 학생을 상대로 중도입국학생의 공교육 진입 방법 (학적생성 방법) 안내 및 상담 업무, 미학적 상태로 학령기를 지내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공교육에 진입시키는 발굴 업무, 한국의 교육제도 안내 및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함
  - 2) 교육지원팀은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 편제를 편성 운영하되 보통교과뿐 아니라 대안교과로 한국어(KSL)를 운영하며,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 한국문화 이해교육 및 진로직업 교육을 수행함. 교육지원팀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 소지자, 문체부의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 기타 특정 분야의 전문 이력 소유자 등으로 구성함
  - 3) 행정지원팀은 시설 관리, 예산 수입 지출 업무, 교육용 물품 공급 업무 등을 수행함

■ 선결 과제

-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을 위한 학력인정 공교육을 제공하는 만큼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과 연계하여 외국에서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이 입국하는 경우 법무부가 본 센터를 안내하여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이 지체 없이 학력인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함

4. 기대효과

- 중도입국아동청소년이 학력인정 상태에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한국어(KSL)를 배우고 한국어 사용 능력을 진단보정시스템에 의해 검증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토익 시험을 통해 급수를 획득할 수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은 다문화학생의 학력신장 및 진학 관련 상담을 마음 편히 받을 수 있게 됨
- 일반 학교에서 한국어 사용 능력 부족으로 일반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중도입국학생들은 한국어 사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임
-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학생 중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1:1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각자의 취미와 적성을 따른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해질 것임
- 일반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외국인 학생을 센터에 위탁함으로써 외국인 학생에 대한 교육 부담을 벗을 수 있음
- 교육청에서 반(半)강제로 다문화 특별학급 지정을 받던 학교들은 다문화정책학교 운영부담을 벗을 수 있고 교육청은 다문화특별학급 및 이중언어교실 운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됨
- 교육청이 센터를 폐교나 분교에 설립하도록 협조할 경우 운영비 부담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아동청소년센터는 학력 인정 교육 및 다양한 한국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에서의 이민 생활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미래를 향해 성장해 나가도록 돕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할 것임

## 5. 참고문헌

최윤정, 전기택,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양계민, 최영미, 황정미 (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b>정책 제안명</b>	<b>Together, Go!!!</b>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학업 및 진로 문제를 교육부(중·고등학교 관리)와 여가부(지역센터 관리)가 함께 풀어가는 연계 정책 제안								
<b>정책 제안자</b>	김미정(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협력부)								
<b>1. 현황 및 문제점</b>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시대 다문화자녀 증가세 지속)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17년 대비 '20년 국내 출생 자녀의 증감률은 제로인데, 귀화와 국외출생 자녀의 숫자는 '17년 23만 명에서 '20년 26만 명으로 약 13%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li> <li>■ (이주배경 청소년 증가세 지속) 최근 10년간('12~'21년) 국내출생 다문화자녀는 4만여 명에서 12만2천여 명으로 3배 증가한 반면,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자녀는 6천9백여 명에서 3만7천 9백여 명으로 5.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li> </ul>									
□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교육정책 미비) 다문화 자녀 수가 증가하고, 특히 14~18세에 해당하는 이주배경 중·고등학교 청소년에 대한 증가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학교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이 미비한 상황임</li> <li>■ (교육계 인식 및 학교 인프라 부족)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일선 학교에서의 이해 부족 및 교육 인프라 부재로 인한 입학 꺼림 현상 발생함</li> <li>■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포기)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낮은 학업성취도는 학교생활 부적응을 초래하여 결국 학업 중단에 이르게 됨</li> <li>■ (학생에서 단순근로자로 전환) 학교 자퇴, 한국어 소통 곤란 등으로 사회적으로 미숙한 청소년들이 공장 단순근로자로 전환되고 있음</li> </ul>									
<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정책대상</th> <th style="width: 25%;">기존정책</th> <th style="width: 45%;">한계점</th> <th style="width: 15%;">담당부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이주배경 청소년 (14~18세)</td> <td style="vertical-align: top;">(정책)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 제공 (목적) 한국인 학생과 동일한 교육 목적으로 운영</td> <td style="vertical-align: top;">(언어장벽)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수업 곤란 (학업부진) 학습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 (적응곤란) 언어장벽 및 학업부진으로 인한 학교생활 적응 곤란 (학교필요성 퇴색) 학교 및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 태도 (교육부 자체 해결 역부족) 이주배경 청소년 등 다문화 자녀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현 교육정책 운영의 한계</td> <td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교육부</td> </tr> </tbody> </table>	정책대상	기존정책	한계점	담당부처	이주배경 청소년 (14~18세)	(정책)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 제공 (목적) 한국인 학생과 동일한 교육 목적으로 운영	(언어장벽)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수업 곤란 (학업부진) 학습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 (적응곤란) 언어장벽 및 학업부진으로 인한 학교생활 적응 곤란 (학교필요성 퇴색) 학교 및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 태도 (교육부 자체 해결 역부족) 이주배경 청소년 등 다문화 자녀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현 교육정책 운영의 한계	교육부	
정책대상	기존정책	한계점	담당부처						
이주배경 청소년 (14~18세)	(정책)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 제공 (목적) 한국인 학생과 동일한 교육 목적으로 운영	(언어장벽)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수업 곤란 (학업부진) 학습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 (적응곤란) 언어장벽 및 학업부진으로 인한 학교생활 적응 곤란 (학교필요성 퇴색) 학교 및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 태도 (교육부 자체 해결 역부족) 이주배경 청소년 등 다문화 자녀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현 교육정책 운영의 한계	교육부						

### 3. 제안내용

- 중학교·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진로 문제를 지역사회와 연합하여 함께 풀어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정책대상	정책내용	세부실행방안	담당부처	선결과제
이주배경 청소년 중학생 (14~16세)	(정책) 이주배경 청소년 중학생에 대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별도 한국어수업 운영  (목적) 학생중심 한국어 교육 제공을 통하여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도 향상 제고	(수업시간) 국어수업시간 등 정규 수업시간 내 (수업장소) 학교 내 교실 (반생성) 언어권별 별도반 구성 (진행방법) 지역사회에서 파견된 이중언어사 또는 통번역사와 한국어교사가 함께 주단위 정기적 수업 진행	교육부 여가부	(정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향후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고등교육 정책 필요</li> <li>• 국가,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한 보다 폭넓은 접근으로의 이주배경청소년 교육정책 마련 필요</li> </ul>
이주배경 청소년 특성화고 학생 (17~18세)	(정책) 이주배경 청소년 특성화 고등학생에 대한 직업군별 지역사회와 연계한 별도 수업운영  (목적) 학생별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등 제반사항을 도와줌으로써 개인별 경쟁력 강화	(수업시간) 정규 수업시간 외 (수업장소) 지역센터 (반생성) 언어별·직업군별 반 구성 (진행방법) 방과후 또는 별도시간을 지정하여 단체로 지역센터에 방문, 직업군별 자격증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이중언어사 또는 통번역사가 수업 진행		(제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단위별 교육목적, 교수방법 별도 마련 필요</li> <li>• 정규학교 과정이수시 사회적 처우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마련</li> </ul>
				(예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 및 진로 교육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 필요</li> <li>• (여가부)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역연계사업 예산 추가 확보 필요</li> </ul>

### 4. 기대효과

- 제안하는 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지속적 교육정책 추진을 통하여 향후 한국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

□ 제안하는 정책이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나타날 영향 및 파급효과

- 이주배경 청소년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을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로 보완해줌으로써 학교를 떠났던 이주배경 청소년이 학교제도권으로 다시 편입될 것이며 사회적 처우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활용으로 학교 밖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의 추가 유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제안하는 정책이 학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 본 제안을 통하여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교육정책 및 제도, 인식 또한 개선되어야 함을 학교현장은 재인식하고,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학교만이 아닌 지역사회, 국가가 모두 연합하여 풀어가면 성공적인 해법(안)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함.

<b>정책 제안명</b>	후기 이주배경청소년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b>정책 제안자</b>	임주왕(한양대학교)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의 국제결혼이 지속되고 다양한 이주 경로를 통한 이주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규모 또한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li> <li>■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자립 실태와 정착 현황을 바탕으로 초국가적 환경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li> <li>■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촘촘하게 구성하는 일이 중요함. 이주배경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진로, 취업 등의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li> <li>■ 이주배경 청년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이들이 처한 조건, 진로·취업·자격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주배경 청년들에게 '맞춤형 안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li> </ul> <p><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의 기초학습능력과 관련한 학습지원을 위한 방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li> <li>■ 지금도 학습지원, 멘토링 등은 시행되고 있으나, 인력 수급의 문제로 인하여 중소도시 이상에서만 시행 가능</li> <li>■ 지방자치단체,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시행 중</li> </ul> <p><b>3. 제안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기청소년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한 기관이나 단체, 시설에 우선적으로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달체계 전문 인력 인증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li> <li>■ 전달체계와 관련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역 자원과의 코디네이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기대</li> <li>■ 학령기 이후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학령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후 취업까지도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li> <li>■ 다양한 형태의 전달체계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수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와 워크숍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li> </ul>	

#### 4. 기대효과

- 본 정책을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영향, 이주배경청소년활동에 관한 영향, 후기청소년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등 실제적인 정책과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연구가 될 것으로 전망함

#### 5. 참고문헌

서미, 정익중, 이태영, 김지혜, 윤민지 (2018). 후기 청소년 심리·정서적 지원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6(1), 207-232.

신현옥, 윤상석, 이슬기, 김도혜, 이향규, 오수연 (2012).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여성가족위원회.

이새롬, 함승환 (2021). 청소년이여, 교육포부를 키워라?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능력주의' 가설과 '기회구조' 가설 비교. 교육학연구, 59(1), 309-335.

이수인, 이순미, 최지훈 (2019). 지역사회 기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정책연구 2019-06). 전주: 전북연구원.

최영미, 송영호 (2022). 이주배경청년의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 경험과 대처에 관한 질적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5(2), 171-204.

<b>정책 제안명</b>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 레인보우스쿨 등 우선 설치
<b>정책 제안자</b>	김윤성(시흥세움센터)

### 1. 현황 및 문제점

- 시흥시는 외국인주민이 5만 4천여 명으로 시 인구의 11.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음에도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운영 중인 레인보우스쿨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교육 및 심리정서 상담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2. 기존 정책과 한계점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2022년 2월 3일(2022년 7월 21일 추가 공모 중)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공개 모집한 레인보우스쿨 거점기관의 심사기준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표 1] 심사기준

구분	항목	최저/최고점
운영기관 제반능력 (50%)	1. 기관 설립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지역 운영기관으로서의 전문성	1점/10점
	2. 전담인력 적정성 및 전문성 조직 및 직원체계 구성의 합리성	1점/10점
	3. 사업 진행 장소 확보 여부 및 적정성	1점/10점
	4. 기관의 관련 사업 추진실적	1점/10점
	5. 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 분포 지역 내 연계서비스 구축 여부	1점/1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50%)	6. 사업목적의 이해(사업 의도와외의 부합도)	1점/10점
	7. 사업계획의 합리성, 타당성	1점/10점
	8. 관련 전문인력(한국어 강사 등) 확보방안	1점/10점
	9. 대상자 모집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지역의 이주배경청소년 분포	1점/10점
	10. 사업비 구성의 구체성 및 적정성	1점/10점
총점(100점)		10점/100점

(자료출처 : 2022년도 이주배경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레인보우스쿨 운영 기관 모집 공고문)

가. (표 1) 심사기준에 의하면 구분란 '운영기관 제반능력(50%)' 항목 '4. 기관의 관련 사업 추진 실적' 배점의 최저/최고점은 1점에서 10점으로 신규 기관이 진입하기가 불리한 배점이다.

나. (표 1) 심사기준에 의하면 구분란 '운영기관 제반능력(50%)' 항목 '5. 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 분포'는 운영기관의 제반능력과 관련 없는 항목이다. 또한 '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 분포/지역 내 연계서비스 구축 여부' 항목의 배점은 최고 10점인데, 두 항목의 각각 배점에 대한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역 내 연계서비스 구축 여부 항목의 경우 연계서비스가 잘 구축되어 있을 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불명확하다. 만약 지역 내 연계서비스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의 점수가 높다면 환경이 잘된 곳으로 쏠리는 현상이 될 것이다.

다. (표 1) 심사기준에 의하면 구분란 '사업계획의 타당성(50%)'의 항목 '6. 사업목적의 이해(사업 의도와와의 부합도)', '10. 사업비 구성의 구체성 및 적정성' 항목이 다른 항목과 같은 동등한 배점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

라. (표 1) 심사기준에 의하면 구분란 '사업계획의 타당성(50%)'의 항목 '9. 대상자 모집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지역의 이주배경청소년 분포' 항목 중에서 '지역의 이주배경청소년 분포'는 '운영기관 제반능력 5. 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 분포'와 중복된다.

### 3. 제안내용

- 심사기준 항목 5호 및 9호에 있는 '이주배경청소년 분포'는 '운영기관 제반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관련이 없기에 (표 3)과 같이 구분란에 신설 후 배점 기준을 명확히 함

[표 2] 심사기준 현행

구분	항목	최저/최고점
운영기관 제반능력 (50%)	1. 기관 설립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지역 운영기관으로서의 전문성	1점/10점
	2. 전담인력 적정성 및 전문성 조직 및 직원체계 구성의 합리성	1점/10점
	3. 사업 진행 장소 확보 여부 및 적정성	1점/10점
	4. 기관의 관련 사업 추진실적	1점/10점
	5. 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 분포 지역 내 연계서비스 구축 여부	1점/1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50%)	6. 사업목적의 이해(사업 의도와와의 부합도)	1점/10점
	7. 사업계획의 합리성, 타당성	1점/10점
	8. 관련 전문인력(한국어 강사 등) 확보방안	1점/10점
	9. 대상자 모집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지역의 이주배경청소년 분포	1점/10점
	10. 사업비 구성의 구체성 및 적정성	1점/10점
총점(100점)		10점/100점

(자료출처 : 2022년도 이주배경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레인보우스쿨 운영 기관 모집 공고문)

[표 3] 심사기준 개선안

구분	항목	개선(안)
		최저/최고점
운영기관 제반능력 (40%)	1. 기관 설립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1점/5점
	2. 지역 운영기관으로서의 전문성	1점/5점
	3. 전담인력 적정성 및 전문성	1점/5점
	4. 조직 및 직원체계 구성의 합리성	1점/5점
	5. 사업 진행 장소 확보 여부 및 적정성	1점/10점
	6. 기관의 관련 사업 추진실적	1점/5점
	7. 지역 내 연계서비스 구축 여부	1점/5점
이주배경청소년 분포 (20%)	8. 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 분포	1점/2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40%)	9. 사업목적의 이해(사업 의도와와의 부합도)	1점/5점
	10. 사업계획의 합리성, 타당성	1점/10점
	11. 관련 전문인력(한국어 강사 등) 확보방안	1점/10점
	12. 대상자 모집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1점/10점
	13. 사업비 구성의 구체성 및 적정성	1점/5점
총점(100점)		10점/100점

가. 심사평가 항목 '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 분포/지역 내 연계서비스 구축 여부'를 분리하여 심사하고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을 재설정 한다. 또한 현행 '기관 설립목적과 사업의 연관성과 지역 운영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의 배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설정

나. 심사평가 항목 '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 분포'의 배점을 높여 이주배경청소년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 레인보우스쿨 등을 설치한다.

- 현행 : 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 분포/지역 내 연계서비스 구축 여부 1점~10점

- 개선 : 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 분포 1점~20점

다. 심사평가 항목 '지역 내 연계서비스 구축 여부'는 미구축되어 있을 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라. 외국인 주민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필수 설치 지역으로 선정한 후 별도 심사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기존 여성가족부 및 재단 홈페이지 외에도 해당 지자체 등에 홍보를 실시한다.

#### 4. 기대효과

- 이주배경청소년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 레인보우스쿨 등을 설치함으로써 해당 청소년들의 접근성 제고
- 평가 기준의 합리적 설정으로 심사 평가 타당도 제고
- 재단 및 재단 사업에 대한 신임도 제고

#### 5.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2022.04.10.). 여가부, 이주배경 청소년 입국 초기부터 자립까지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01](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01)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2). 레인보우스쿨 위탁운영 기관 모집 공모. <https://rainbowyouth.or.kr/posts/rwdboard/view.do?bbsSn=18248&pageIndex=6&ctgryNm=&searchCondition=&searchKeyword=>
- 행정안전부 (202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b>정책 제안명</b>	이주배경(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을 위한 플랫폼 마련
<b>정책 제안자</b>	박성희(부천여성청소년재단) 최문영(부천교육지원청) 남우현(부천교육지원청) 박영희(부천교육지원청) 임학림(부천교육문화재단) 이승봉(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가영(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송인선(경기글로벌센터) 송연순(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최승주(위기청소년의 좋은친구 어게인) 홍승엽(부천새날학교) 이은미(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이미영(부천미래교육센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이주민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인구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서비스 확대와 이를 위한 전담 플랫폼 필요</p> </div>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천시에 경제적인 기회를 얻기 위해 입국하는 이주민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주민의 가족 구조 또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배경청소년<sup>1)</sup>의 인구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li> </ul>	
<p>1)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제24조)의 자녀</li> <li>•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경우인 '중도입국 청소년'</li> <li>•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은 '탈북청소년' (제24조)</li> <li>•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li> </ul>	

■ 경기도(부천시) 이주배경 청소년의 지속적 증가

- 다문화학생 현황 (경기도, 2021년 기준) / 출처 :KESS 교육통계서비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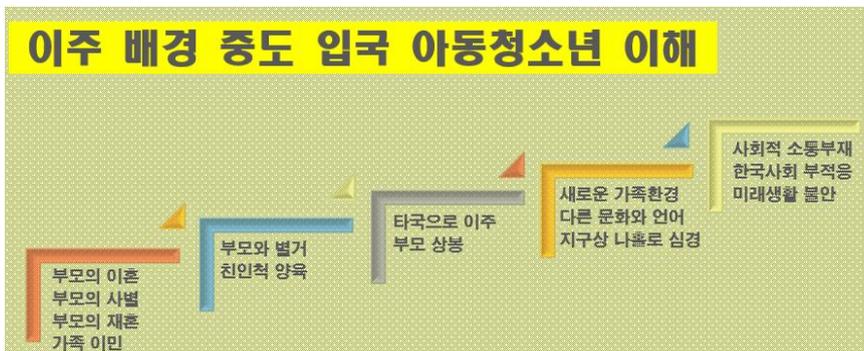
연번	지자체명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경기도	40,628	29,159	8,116	3,353
1	안산시	5,539	3,762	1,195	582
2	시흥시	3,158	2,360	621	177
3	수원시	3,177	2,292	608	277
<b>4</b>	<b>부천시</b>	<b>3,042</b>	<b>2,200</b>	<b>623</b>	<b>219</b>
5	화성시	2,658	1,987	529	142
6	평택시	2,285	1,661	448	176
7	고양시	1,826	1,305	351	170
8	성남시	1,803	1,231	359	213
9	용인시	1,560	1,131	315	114
10	남양주시	1,387	991	295	101

- 다문화학생 연도별 현황 (부천시) / 출처 :KESS 교육통계서비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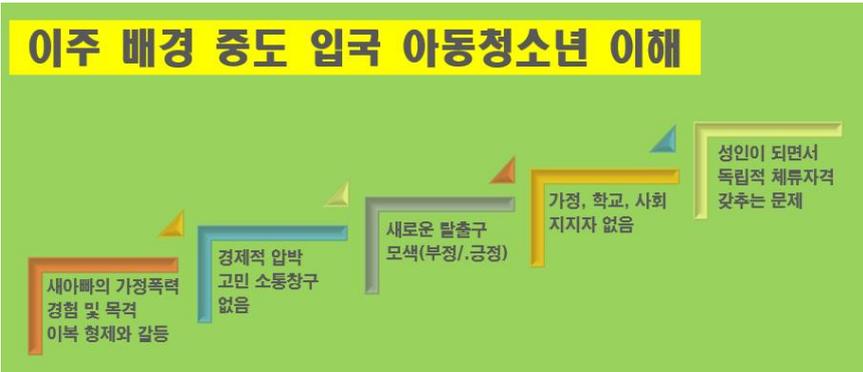
년도	경기도 다문화 학생수	부천 다문화 학생수	전년대비 증감
2016	23,723	1,619	
2017	25,759	1,739	△120
2018	29,099	2,011	△272
2019	33,482	2,445	△434
2020	36,411	2,690	△245
<b>2021</b>	<b>40,667</b>	<b>3,042</b>	<b>△352</b>

■ 이주배경 중도 입국 청소년의 이해



■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체성 갈등

- 이주 초기 언어적 소통의 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며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



-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이주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새로운 한국문화 속에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며 정체성 혼란 상태 경험
-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 적응과정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체성 혼란, 사회적 차별 등을 동반하는 힘겨운 재사회화 과정임

■ 중도입국청소년과 학교생활 적응지원

- 중도입국청소년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적 자원 부족, 학습동기 부족

2. 기존 정책과 한계점

■ 다문화학생 지원 정책의 한계

-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다문화지원원은 결혼이주여성 자녀를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주민 자료,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교육청의 학교에서 한글교육지원도 이주배경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음
- 부모 체류자격에 따른 자녀들의 체류자격의 유형별 현안이 다양하며, 특수환경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사례별 지원 필요
- 다문화가족과 탈북청소년 대상의 국내 국적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책서비스의 한계
- 미등록 외국 국적 아동을 포함하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도입국 청소년은 법적 문제 및 인권 보호,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군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법적 신분 보장이 미흡하여 정책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3. 제안내용

- 이주배경유형에 대한 이해와 배경에 따라 요구되는 지원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 정책대상별 필요서비스(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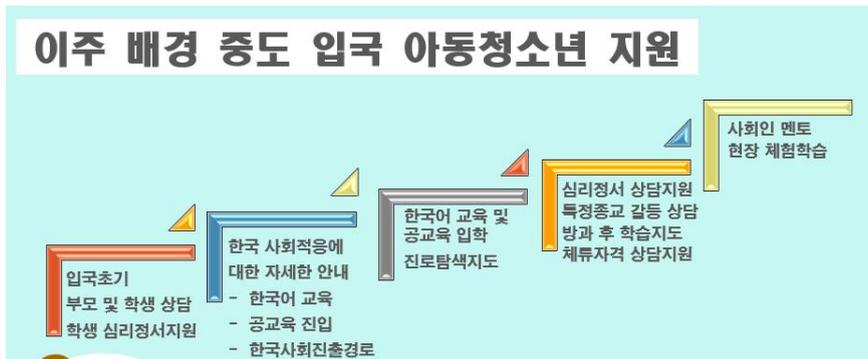
구분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국내출생 국적자	중도입국	해외성장 귀환 국적자	이주노동 가정		난민 가정		미등록 가정	
				국내 출생	중도 입국	국내 출생	중도 입국	국내 출생	중도 입국
한국어지원		○	○		○		○		○
심리정서지원	○	○	○		○		○		○
성장과정필요 정보 + 자원연계	○	○	○		○		○		○
진로상담 + 자원연계	○	○	○		○		○		○
체류자격·국적취득 정보+지원		○			○		○		○

- 전담데스크 설치 필요
  - 자원 네트워크, 정보취합, 개별지원 연계
  - 상담을 통한 개별적 상황 검토, 지지 방안 논의, 지원과 연계
  - 공교육 진입 지원

작성: 부천시주배경청소년인권네트워크

- ※ 이주배경의 특징, 체류자격(비자 종류)에 따라 청소년의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여 초기 자원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임
- ※ 이주민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관련 법령에 의한 시설로 전체 이주배경 청소년을 담당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 관련 법령 검토, 주관부서 지정 등을 통해 플랫폼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해야 함. 기초자치단체 지역 사회에서는 다양한 민관협력을 통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비 지원에 대한 지역별 지원격차 심각(서울지역 위탁교육 지원 7,900만 원, 경기도 3,700만 원 등)으로 교육의 질과 양의 고른 배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예산 확보도 필요함.

-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어야 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음



- 1) 중도입국 청소년을 둔 보호자들에 대한 부모교육 및 심리교육 강화
  -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이주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호자가 관여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제공
- 2) 초기 한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 한국어 및 문화 적응 서비스 제공
  -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수렴하여 지역 내 자원과 환경 마련
- 3) 부적응 조기 발견과 적절한 맞춤형 심리·사회적 서비스 제공
  - 중도입국 청소년 문제에 지역 내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전문시설(플랫폼) 필요
  - 다국어 상담활동가 양성을 통한 모국어 심리상담 지원
    - ▶ 이중언어상담사 양성 프로그램 : 이주배경청소년의 모국어 멘토, 상담지원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모국어 상담자의 일자리창출과 이주배경 청소년 가정의 안정적 정책지원

#### 4. 기대효과

- 플랫폼을 통한 이주배경 청소년 가정의 안정적 정책지원
- 이중언어 사용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상담자 일자리 창출
-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과 이주배경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서 정착하는데 기여



## ○———— 10. 기타



<b>정책 제안명</b>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구강건강 진료지원 사업
<b>정책 제안자</b>	박정용(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고고학과)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제안서는 미등록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 진료 지원을 통해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들이 에스니시티(ethnicity)<sup>1)</sup>, 종교, 정치 성향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의미하는 건강권(health rights)을 보장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li> <li>■ 건강은 “다양한 사회·경제·환경적 요인은 물론 삶의 형태(lifestyle)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맥락, 요인 등에 의해 구성되고 상호작용하는(Whitehead, 1991: 220)” 개념이다. 이를 통해 건강은 개인의 신체를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개인과 사회 전체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li> <li>■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구강건강증진사업 역시 각종 구강질환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강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추진하고 있다.<sup>2)</sup> 무엇보다 이미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양치교육,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구강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보건정책에서 구강건강은 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레진(resin) 치료나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아의 흠을 메우는 실란트(sealant)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li> <li>■ 그러나 18세 이하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하 미등록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외국인, 무국적자, 미등록 등 다양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정상훈, 2015: 20~21)”는 점이 문제시된다. 즉, 미등록 아동·청소년은 아동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민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을 비롯한 공적 의료 체계로부터 배제당하고 있으며(정상훈, Ibid: 93~97),” 이들은 아동 혹은 청소년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인해 제도적인 보살핌이나 법적 보호에서 배제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보호 조차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이주아동권 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2015: 6).”</li> <li>■ UN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의 건강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적인(necessary) 의료를 지원 및 보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으며<sup>3)</sup>, 「아동복지법」에서도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안전</li> </ul>	
<p>1) 본래 에스니시티라는 개념은 국내에서 민족성, 종족성, 인종성 등으로 번역된다. 하지만 본래 에스니시티는 민족, 종족, 인종은 물론이고 특정한 정치·사회적 맥락 등을 포괄하는 복잡하고 중층적인 개념이기에 본 제안서에서는 기존의 개념을 함축할 수 있는 에스니시티라는 용어 그대로 표기하였다.</p> <p>2) 한국건강증진개발원(<a href="https://www.khealth.or.kr/">https://www.khealth.or.kr/</a>) “구강보건사업” 참조.</p> <p>3) United Nations Human Rights(<a href="https://www.ohchr.org/">https://www.ohchr.org/</a>)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참조.</p>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등록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미등록 이주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가의 각종 공적 의료 체계에서 배제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미등록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뿐만 아니라 이들의 신체, 더 나아가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은 자신의 건강권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향유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 따라서 본 제안서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내에 거주 중인 18세 이하 미등록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 건강 진료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기존 정책과 한계점

- 지자체의 경우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포함하여 구강검진, 구강보건 교육, 불소도포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초등학교 치아주치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에서는 다문화여성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 충치 및 예방치료, 구강보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민간단체의 경우 광주이주민건강센터나 고려인광주진료소, 라파엘클리닉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무료진료소에서 미등록 아동·청소년에게 구강과 관련된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녹색병원이나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같은 기관의 경우에는 저소득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 스케일링(scaling), 불소도포, 보철치료 등의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러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강검진 프로그램은 국적이 ‘한국인’인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등록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아동·청소년을 구강건강 진료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곳은 민간단체에 한정되어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진료소의 경우에도 “치료가 무료라는 이유로 대기자가 많아 제때 치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신유나 외, 2019: 60-62)”는 또 다른 문제점이 존재한다.
-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진료 대상에 포함하는 경기도 초등학교 치아주치의 사업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이후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아동은 접근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대상 역시 초등학교생으로 국한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경기도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강건강 진료 사업 역시 미등록 아동·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이주아동권리 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Ibid: 9).” 그러나 위 정책의 경우 참여하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미등록 아동·청소년의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고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 그리고 정부 자체에서 미등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이 부재한 것은 물론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최영미, 2018: 2)” 이미 이들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즉, 미등록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배제된 존재로 위치하게 되면서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로 노출, 소외되고 있다.

### 3. 제안내용

- 본 제안서는 미등록 아동·청소년의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강건강 진료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 기존에는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내의 의료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거나(이한숙 외, 2020),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이주 아동의 포괄적인 인권 권리보장을 촉구하거나(이주아동권리 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Ibid), 의료서비스가 이주노동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거나(이은주 외, 2014), 특정 지역 이주노동자의 구강건강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건강보험이나 월수입, 한국어 구사능력 등의 다양한 요소가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남인숙 외, 2015)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의 보고서나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이주민의 건강권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이나 권리보장 등을 촉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책의 대상이 비교적 구체적이지 못하였다. 또한, 이한숙 외(2020: xii) 역시 각각의 이주민 그룹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룹마다 개별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본 제안서에서는 제안하는 정책의 구체적인 대상은 18세 이하의 미등록 아동·청소년들이 될 것이다.
- 기본적인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첫째, 정부 자체에서 미등록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에서 기존에 제공되고 있었던 구강보건사업, 예를 들어 구강보건교육지원, 불소도포사업, 스케일링, 치면세정술 등으로 대표되는 예방 위주의 기초적인 구강보건사업은 다문화화정이나 등록 이주민 등은 그 대상에 포함이 되나 미등록 아동·청소년의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세환(2019: 17)이 아동·청소년 시기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각종 치아 질환과 관련된 교육의 제공을 통해 이러한 생활 습관을 습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미등록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 특히 기존에 보건 의료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지원과 홍보, 그리고 각 지역의 보건소, 치과의사회, 민간 단체 등과의 협력, 협업을 통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기초적인 구강보건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둘째, 앞서 현황 및 문제점에서 언급하였듯이 국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아우식 등의 원인으로 인한 레진치료나 치아의 홈을 매우는 실란트 치료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낮은 본인부담률로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남인숙 외(Ibid: 26)나 이현옥 외(2009: 599)는 구강건강의 상태가 불량할수록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으며, 정세환(Ibid: 같은 쪽)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이 충치이며, 특히 영구치의 경우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애

에 걸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미등록 아동·청소년이 건강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국내 아동·청소년과 똑같은 혜택의 레진치로나 실란트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 개선을 통해 미등록 아동·청소년이 최소한 자기에게 필요한 치과 치료를 낮은 본인부담률로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셋째, 앞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ibid: 9-10)가 지적하고 있듯이, 「외국 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미등록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을 위한 진료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과정, 체류 기간 등의 자격 요건 완화, 진료번호 부여 등 행정상의 간소화 절차가 필요하다.
- 넷째,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수혜 대상자인지, 어떠한 종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각국의 언어로 된 설명 책자를 만들어 미등록 아동·청소년의 접근이 많은 민간단체에 집중적으로 배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치과의사협회는 정책과 관련된 내용, 대상자, 시행 절차 등의 매뉴얼을 지역 치과병원에 배포하여야 하며, 지역의 치과병원과의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아동·청소년의 접근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이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의점이나 선결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예산 문제는 필히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이다. 이한숙 외 (ibid: xvi)와 이주아동권리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ibid: 같은 쪽)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한 것이 바로 불안정적이고 부족한 예산확보로 인해 사업 자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김창엽(2020: 73)도 현실에서의 재정은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자 한계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석주(2008: 24)가 제안한 것처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통한 예산 확보가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 둘째, 기존에 이루어진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제가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신유나 외(ibid: 65-66)는 한국에서의 의료 통역서비스는 의료관광을 위한 유료 서비스가 대부분이며, 주변인이 통역이 가능하더라도 의료와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여 통역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를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고석주(2008: 17)의 연구도 진료과정, 진료 이후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배포 혹은 실내에 부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통역 인력의 확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즉, 미등록 아동·청소년이 구사하는 다양한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정책을 시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이 제작 및 배포되어야 할 것이다.
- 셋째, 태국의 보편적 의료보장의 경우 서보경(2020: 304-308)에 의하면 태국의 의료보험 정책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명 많은 행정가와 전문가들이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태국 내 모든 시민이 의료 접근권에 구애 받지 않고 폭넓은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었다. 즉,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제 현장에서 미등록 아동·청소년을 만나고 있는 민간 단체의 참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4. 기대효과

- 본 제안서가 제안하는 미등록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구강건강 진료지원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첫째, 정세환(Ibid: 6)에 의하면 구강질환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동 시기의 구강건강은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제안서에서 제시하는 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미등록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둘째, 미등록 아동·청소년의 경우 미등록이라는 법적인 위치로 인해 건강보험은 물론, 특히 본인 부담률이 높은 구강건강 진료의 특성상 지역 치과병원에 접근하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서영(2022: 93-94)이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입이 어려운 이주민에 한해 공적 부조 형식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본 제안서에서 제시하는 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의료 접근권 문제와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진료 비용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 셋째, WHO는 1978년 알마아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건강(Health For All)”을 표제로 주장한 바 있다. 즉,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누구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이는 앞서 언급한 UN 아동권리협약이나 「아동복지법」의 궁극적인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본 제안서에서 제시하는 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아동의 건강을 추구해야 하는 국가 혹은 지역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정책을 이용하여 구강건강 진료 지원을 받는 미등록 아동·청소년이 어떠한 구강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지, 어떤 생활습관 교육이 더 필요한지 등과 같은 실태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적절하고 유연한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넷째, 건강의 사회계층적 경사면(social gradient of health)은 사회적 위치가 다르면 사망률도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사면 어디에 위치하든 차등적인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향상을 시키되 필요한 곳에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마멋, 마이클, 2017: 49-52).” 특히 건강의 사회계층적 경사면은 “의료 접근성, 소득 등과 같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사회 건강 수준에 영향을 끼친다(마멋, Ibid: 60-66).” 본 제안서에서 제시하는 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 사회의 건강의 사회계층적 경사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 사회를 어떻게 공정하게 조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전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마멋, Ibid: 115).”

## 5. 참고문헌

- 고석주 (2008). 광주 외국인노동자 건강센터의 치과진료사업 현황.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엽 (2020). 공공보건의료와 건강 정의, 황해문화, 109, 62-79.
- 남인숙, 이경수, 장은진 (2015).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구강건강수준과 치과 의료이용 관련요인. 한국치위생학회지, 15(1), 19-29.
- 마뎛, 마이클 (2017). 건강 격차: 평등한 사회에서는 가난해도 병들지 않는다 (김승진 역). 파주: 동녘.
- 서보경 (2020). 공공의 건강을 다시 생각하기: 동남아시아와 지역 보건의 새로운 가능성들. 인류학자들, 동남아를 말한다. 301-326.
- 신유나, 하세가와 사오리, 최규진 (2019).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 현황 분석과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언 :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9(1), 40-84.
- 이서영 (2022). 코로나19 시기 이주민 건강권의 위기와 시사점. 의료와사회, 11, 83-95.
- 이은주, 이정미 (2014). 이주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및 삶의 질.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7), 4370-4379.
-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2015).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브리프. 서울: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 이한숙, 곽재석, 권영실, 김미선, 김사강, 김선, 박영아, 이인경 (2020).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현옥, 양춘호, 김진, 김영임 (2009). 재가 장애인의 구강진료기관 이용실태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치위생과학회지, 9(5), 593-600.
- 정상훈 (2015).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세환 (2019). 2019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 실행방안 연구, 서울: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 연구원.
- 최영미 (2018).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과 향후과제, 수원: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Whitehead, M. (1991). The concepts and principles of equity and health.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6(3), 217-228.

###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https://www.khealth.or.kr/>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https://www.ohchr.org/>

<b>정책 제안명</b>	청소년지도사 국가시험 ‘이주배경청소년’ 과목추가 제안
<b>정책 제안자</b>	이진우(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청소년지도사 1급, 2급, 3급의 시험과목에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마련한 시험과목이 없으며,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육이 있어도, 지원이 미미하고 교육이 원활하지 못합니다.</li> <li>■ 대한민국은 현재 다문화사회이며, 앞으로는 더욱 다문화사회로 변화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지도사 또한,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소년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다양한 국적을 가지거나,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li> </ul> <p><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지도사 1, 2, 3급에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 과목이 없으므로, 청소년지도사를 꿈꾸고 공부하는 이들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교육기회가 있음에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에만 집중하여 실무에 나가서 다문화를 가진 청소년 혹은 ‘이주배경청소년’을 만났을 때 청소년 지도의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ul> <p><b>3. 제안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에서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여 청소년지도사 국가시험의 과목 중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응시해야 하는 과목(일명: 이주배경청소년론)을 추가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취득하려는 청소년지도사 2급, 3급 자격증 취득과목에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li> <li>■ 국가시험의 과목에 추가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에 우선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포 후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시행되어야 혼선이 없을 것입니다.</li> </ul> <p><b>4. 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지도사 국가시험과목에 추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청소년학과를 둔 대학의 학과들과, 학점은행제를 통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추가된 국가시험과목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하게 되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에 뛰어드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식과 역량이 향상되어 실무를 겪게 될 것입니다.</li> <li>■ 청소년지도자들은 근무하는 기관의 주변 학교와도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들을 지도하곤 하는데, 학교에서도 다문화 학생이 늘고 있는 추세이므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li> </ul>	

<b>정책 제안명</b>	경로당 봉사활동을 통한 할머니와 동화책읽기
<b>정책 제안자</b>	김현수(문태중학교)
<p><b>1. 현황 및 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반 학급 학생이 다문화 학생으로 여러 가지 가족과 우대 관계 및 언어 습득이 늦음</li> <li>■ 이러한 이유로 분석 중 어릴 적 언어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함</li> <li>■ 다양한 정책이 많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함</li> <li>■ 지역사회와도 심리적 안정 및 언어생활에 도움 되는 활동을 생각함</li> </ul> <p><b>2. 기존 정책과 한계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정책은 일회성이나 언어습득에 충실하고 지역사회 반영되기 쉽지 않음</li> <li>■ 이주배경 청소년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도움 되지 않은 정책이 한계점</li> </ul> <p><b>3. 제안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연계하고 심적 안정을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함.</li> <li>■ 우리 어린자녀들이 어떻게 언어생활 하는지를 분석해보니 책 읽어주는 점에 중점을 둠</li> <li>■ 우리 자녀들이 할머니가 책을 읽어주면 너무 재미있어함.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li> <li>■ 이주배경 청소년 학생들이 할머니들이 천천히 재미있게 정기적으로 책을 읽어준다면</li> <li>■ 언어 습득에도 좋으며 어른을 공경하는 인성적인 면에도 도움이 됨</li> <li>■ 다만 학생들과 할머니들과 우대 관계로 인해 경로당 청소 및 어깨 안마해주기 등 봉사 활동해야 함</li> <li>■ 서로 도움이 되며 반기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발생 됨.</li> </ul> <p><b>4. 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호응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li> <li>■ 아이들이 착한 할머니들 손에 잘 책을 읽으며 심리적으로 안정이 됨</li> <li>■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됨.</li> <li>■ 언어습득도 빨라질 것으로 생각됨.</li> </ul>	

<b>정책 제안명</b>	재외국민 청소년 지원 사업 실시
<b>정책 제안자</b>	김윤성(시흥세움센터)

### 1. 현황 및 문제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재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수는 (표 1)에서와 같이 2,511,521명이다. 이 중에서 일반체류자는 1,322,133명인데,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모든 재외국민이 포함된 숫자이다.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 중에서 현지에 장기 거주할 사람은 자녀들을 현지 학교 또는 외국인 대상 학교에서 공부하게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자료는 없는 상황이나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16개국 43개교의 한국학교에서 한국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표 2 참조) 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대학 진학을 한국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재외에 체류 중인 청소년들이 국내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몇 달간 체류해야 한다. 한국에 마땅한 연구자가 없을 경우에는 숙소 마련, 한국 체류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내 진학보다는 현지 체류 국가나 제3국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또한 재외에서 오랫동안 산 재외국민 청소년들은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한다. 자신의 국적은 한국인이나 현지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또한 남자의 경우 병역 이행을 위해 국내에 들어와야 하는데, 언어문제, 심리정서 등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이들을 지원하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표 1] 거주자격별 재외동포 현황

(단위: 명)

지역별	거주자격별	재 외 국 민				외국국적동포 (시민권자)	총 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 학 생	계		
총계		1,018,045	1,322,133	171,343	2,511,521	4,813,622	7,325,143
동북 아시아	일본	342,839	78,953	13,082	434,874	383,991	818,865
	중국	8,979	213,822	34,074	256,875	2,093,547	2,350,422
	소계	351,818	292,775	47,156	691,749	2,477,538	3,169,287
남아시아태평양		94,355	285,457	38,020	417,832	71,588	489,420
북미	미국	434,458	626,005	43,459	1,103,922	1,529,855	2,633,777
	캐나다	60,269	19,114	17,357	96,740	140,624	237,364
	소계	494,727	645,119	60,816	1,200,662	1,670,479	2,871,141
중남미		41,200	8,910	320	50,430	39,859	90,289
유럽		34,344	65,405	23,497	123,246	553,910	677,156
아프리카		1,470	7,356	500	9,326	145	9,471
중동		131	17,111	1,034	18,276	103	18,379

(자료출처 :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 2021)

[표 2] 재외한국학교 기본 현황

(‘20.4.1. 기준)

학교명	대한민국 정부 인가일	학생 수 (학급 수)					전임 교원 수						파견 (‘20.8.1. 기준)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교정	교감	계	교장 (행정실장)	교사
동경한국학교	'62.03.16		714(18)	356(9)	327(9)	1,397(36)		38	14	12	1	2	67	1	
교도국제학교	'61.05.11			24(3)	136(7)	160(10)			8	16	1	2	27		2
오사카금강학교	'61.02.24		95(6)	52(3)	71(6)	218(15)		14	8	12	1	2	37	1	3
건국한국학교	'76.10.01	53(4)	165(7)	90(4)	182(8)	490(23)	8	11	13	19	1	0	52		1
<b>소계(4개교)</b>		<b>53(4)</b>	<b>974(31)</b>	<b>522(19)</b>	<b>716(30)</b>	<b>2,265(84)</b>	<b>8</b>	<b>63</b>	<b>43</b>	<b>59</b>	<b>4</b>	<b>6</b>	<b>183</b>	<b>2</b>	<b>6</b>
북경한국국제학교	'98.08.26	42(3)	246(11)	196(9)	245(11)	729(34)	7	14	18	25	1	1	66	1	
천진한국국제학교	'01.03.05	87(6)	255(11)	165(6)	177(8)	684(31)	9	26	20	20	1	1	77	1	
상해한국학교	'99.07.06		428(19)	244(10)	365(16)	1,037(45)		46	24	39	1	2	112	1	
무석한국학교	'08.03.01	60(3)	163(7)	107(6)	147(6)	477(22)	6	10	16	21	1	1	55	1	
소주한국학교	'13.02.22	21(2)	166(10)	89(6)	116(6)	392(24)	2	12	6	15	1		36	1	
홍콩한국국제학교	'88.03.01	16(2)	56(6)	16(3)	30(3)	118(14)	4	12	6	7	1		30	1	
연대한국학교	'02.07.12		131(6)	106(6)	122(7)	359(19)		12	13	16	1	1	43	1	
칭다오청운한국학교	'06.05.30	52(4)	312(12)	182(7)	197(9)	743(32)	5	24	19	18	1	0	67	1	
대련한국국제학교	'03.12.23	4(1)	59(6)	50(3)	62(3)	175(13)	1	12	9	10	1		33	1	5
신양한국국제학교	'06.07.26	7(1)	46(6)	37(3)	48(3)	138(13)	3	10	7	7	1	1	29	1	16
연변한국학교	'98.02.19	10(1)	34(6)	25(3)	33(3)	102(13)	2	7	10	6	1		26	1	15
광저우한국학교	'14.02.07		128(6)	85(5)	98(6)	311(17)		9	10	15	1		35	1	3
웨이하이한국학교	'17.10.24		91(6)	71(3)	83(3)	245(12)		11	9	9	1		30	2	19
<b>소계(13개교)</b>		<b>299(23)</b>	<b>2,115(112)</b>	<b>1,373(70)</b>	<b>1,723(84)</b>	<b>5,510(289)</b>	<b>39</b>	<b>205</b>	<b>167</b>	<b>208</b>	<b>13</b>	<b>7</b>	<b>639</b>	<b>14</b>	<b>58</b>
타이베이한국학교	'61.10.01	24(1)	31(5)			55(6)	1	3			1		5	1	
까오슝한국국제학교	'61.01.28	24(2)	33(6)			57(8)	3	6			1		10	1	
<b>소계(2개교)</b>		<b>48(3)</b>	<b>64(11)</b>			<b>112(14)</b>	<b>4</b>	<b>9</b>			<b>2</b>		<b>15</b>	<b>2</b>	
하노이한국국제학교	'06.03.21		1084(30)	490(14)	425(12)	1,999(56)		41	24	24	1	2	92	1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98.08.04	38(2)	1028(31)	484(16)	453(15)	2,003(64)	3	61	31	34	1	2	133	1	
<b>소계(2개교)</b>		<b>38(2)</b>	<b>2,112(61)</b>	<b>974(30)</b>	<b>878(27)</b>	<b>4,002(120)</b>	<b>3</b>	<b>102</b>	<b>55</b>	<b>58</b>	<b>2</b>	<b>4</b>	<b>225</b>	<b>2</b>	<b>1</b>
젯다한국학교	'76.09.18		3(3)			3(3)		2			1		3	1	2
리아드한국학교	'79.04.24		25(3)			25(3)		3			1		4	1	2
<b>소계(2개교)</b>			<b>28(6)</b>			<b>28(6)</b>		<b>5</b>			<b>2</b>		<b>7</b>	<b>2</b>	<b>4</b>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77.04.25		267(12)	136(6)	238(11)	641(29)		27	20	20	1	2	70	1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93.02.17	73(4)	209(11)	64(3)	93(3)	439(21)	6	28	11	12	1	1	59	1	
방콕한국국제학교	'02.02.18		42(6)	22(3)	26(3)	90(12)		11	3	6	1		21	1	
필리핀한국국제학교	'05.07.11	8(2)	79(6)	42(3)	48(3)	177(14)	2	14	7	6	1	1	31	1	
파라과이한국학교	'92.03.01	49(3)	50(6)			99(9)	3	6			1		10	1	3
아르헨티나한국학교	'95.01.23	69(6)	103(7)			172(13)	14	19			2		35	1	4
모스크바한국학교	'92.02.14	33(3)	65(6)			98(9)	3	6			1		10	1	4
테헤란한국학교	'76.04.30		9(3)			9(3)		3			1		4	1	3
카이로한국학교	'80.04.15		31(6)			31(6)		6			1		7	1	5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12.12.28	14(2)	40(6)			54(8)	2	6			1		9	1	6
프놈펜한국국제학교	'18.8.28		26(5)			26(5)		6			1		7	1(1)	6
<b>소계(11개교)</b>		<b>246(20)</b>	<b>921(74)</b>	<b>264(15)</b>	<b>405(20)</b>	<b>1,836(129)</b>	<b>30</b>	<b>132</b>	<b>41</b>	<b>44</b>	<b>12</b>	<b>4</b>	<b>263</b>	<b>11(1)</b>	<b>31</b>
<b>합 계(16개국, 34개교)</b>		<b>684(52)</b>	<b>6,214(295)</b>	<b>3,133(134)</b>	<b>3,722(161)</b>	<b>13,753(642)</b>	<b>84</b>	<b>516</b>	<b>306</b>	<b>369</b>	<b>35</b>	<b>21</b>	<b>1,332</b>	<b>34</b>	<b>99</b>

(자료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 2. 기존 정책과 한계점

-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 등의 사업을 위주로 진행하다보니 국내 입국 재외국민에 대한 사업은 단발성 행사 위주의 사업으로 재외국민 청소년들의 단·장기 체류지원, 진로 문제 등에 대한 상담 지원 활동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동포체류지원 센터를 전국 11곳에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 재외국민 청소년들은 중도 입국한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등 국내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3. 제안내용

- 재외국민 청소년 진로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교육부와 협력하여 재외 한국학교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 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 조사 내용은 진로 계획(진학, 취업 등), 국내 대학 진학 시 체류 방법(장소, 기간 등))
- 재외국민 청소년 진로 상담, 한국어 교육, 대중교통 이용 등 교육 실시 : 동포체류지원센터, 레인보우스쿨과 연계(※ 법무부 등과 협의)
- 단·장기 체류 시설 설치 : 대학 기숙사 연계 또는 시설 건립(※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8조 2호 근거)

## 4. 기대효과

- 재외국민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 기여
- 국내 유학 활성화, 인구 문제 해결 기여
- 재외국민청소년의 안정적인 국내 생활 지원

## 5. 참고문헌

교육부 (2022). 재외한국학교 기본 현황.

외교부 (2021). 재외동포 현황.

이근주 (2019). 재외한국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요인 탐색.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숙, 이수정, 신향수, 장근주 (2017). 재외 한국학교 초등 과정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20(1), 31-55.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2). 레인보우스쿨 위탁운영 기관 모집 공모.

<https://rainbowyouth.or.kr/posts/rwdboard/view.do?bbsSn=18248&pageIndex=6&ctgryNm=&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최주희 (2015). 재외한국학교 교육 과정 경험 유무에 따른 한국 소재 대학학업 및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행정안전부 (202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2-기본01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황여정·임희진·오승근
- 연구보고22-기본02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 최인재·오해섭·김민·정건희
- 연구보고22-기본03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최정원·이지연·김현수·박지숙
- 연구보고22-기본04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 / 최용환·좌동훈·박윤수
- 연구보고22-기본05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 김영한·이유진
- 연구보고22-기본06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 황세영·강경균·김남수
- 연구보고22-기본07 북한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전영선·차승주
- 연구보고22-기본08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 임지연·김정주·한지형
- 연구보고22-기본09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김지경·김윤희·송현주
- 연구보고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 연구보고22-일반01-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 김신영
- 연구보고22-일반01-0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최홍일
- 연구보고22-일반0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전현정·이용해
- 연구보고22-일반02-01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전현정·김나영·이용해
- 연구보고22-일반03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이정민·정윤미·엄진섭·장윤선·전경숙
- 연구보고22-일반03-01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양계민·이정민·정윤미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3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8-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9-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3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4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5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01)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보고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윤경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이창호·이경상  
 후기청소년(19-24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강진숙·권오현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후기청소년-기초분석보고서 / 이창호·이경상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 김형주·장근영·박미선·정세정·변금선·배정희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 유민상·신동훈·신영규·박미희  
 청년종합연구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김지연·백혜정·김미향·김성아·정소연·이우태·이상정·박광옥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 김지연·백혜정·김미향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우태·조정아·이규창·이지순·최규빈·김정원·장인숙·박환보·최종학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상정·류정희·변수정·하태정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박광옥·이기연·이복실·안예지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Ⅰ / 성윤숙·문호영·천정웅·이희현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정책 평가 / 홍성호·장수명

##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2-수시0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유민상·신동훈
연구보고22-수시02	COVID-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경준·권일남
연구보고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김윤희·서정아
연구보고22-수시04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과 방향 연구 / 김윤희·남화성
연구보고22-수시0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문호영
연구보고22-수시06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 / 이유진·박찬걸

## 수 탁 과 제

### < 일 반 >

연구보고22-수탁01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육 활성화: 메타버스 설계구축 및 운영 / 임지연
연구보고22-수탁02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서정아·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3	경기도형 청소년 정책참여 추진체계 개발 연구 / 이윤주
연구보고22-수탁04	2022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 / 최용환·송헌재·장혜윤
연구보고22-수탁05	경기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양계민
연구보고22-수탁06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좌동훈·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7	학생의 참정권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 장근영·김윤희
연구보고22-수탁08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에 대한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 연구 / 임지연·최려나·문세진
연구보고22-수탁09	20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2-수탁10	발달장애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연구 / 김지연·김미향·조윤경·박광옥·오욱찬·조양진
연구보고22-수탁11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하형석·박지수·이인영
연구보고22-수탁12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정윤미·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2-수탁1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황여정·임희진·좌동훈·오승근
연구보고22-수탁14	2022년 인성교육 확산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5	2022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6	인성교육의 추진에 관한 평가·분석 / 성윤숙·문호영·김현수
연구보고22-수탁17	2022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8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9	출발! 함께해요 인성교육(초등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0	인성교육으로 자유학기제에 날개 달기(중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1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전현정·김미향·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2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임희진·서고운·유성렬
연구보고22-수탁2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연구보고22-수탁24-0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2-학폭01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2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5	2021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6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이경상·김현수
연구보고22-학폭07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8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결과 분석 연구 / 성윤숙

###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2-대안01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 이호준·윤홍주·김훈호·송원일
- 연구보고22-대안02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교육요구조사 및 지원 방안 /  
김영지·유민선·박하나·김현수
- 연구보고22-대안03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및 실태 조사 /  
황세영·오해섭·김세훈·이지혜
- 연구보고22-대안04    민·관협력형 대안교육 운영 선도모델 개발연구 / 조창호·김세광·한숙희

## 자료 집

### 〈 세 미 나 〉

- 세미나22-01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과보고회 (22.1.27.)
- 세미나22-02    2022 미디어 교육 주간자료집 (22.1.19.)
- 세미나22-03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참여의 방향  
(22.12.21.)
- 세미나22-0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2.12.23.)

### 〈 워크숍 〉

- 워크숍22-01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22.2.8.)
- 워크숍22-02    2022 상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자료집 (22.4.22.)
- 워크숍22-03    2022년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22.1.25.)
- 워크숍22-04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자료집 (22.1.26.)
- 워크숍22-0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22.4.29.)
- 워크숍22-06    2022년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워크숍 (22.7.12.~13.)
- 워크숍22-0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22.12.15.)
- 워크숍22-08    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워크숍 참고 자료 (22.7.22.)
- 워크숍22-09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대면 워크숍 (22.8.4.,  
22.8.12.)
- 워크숍22-10    2022년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워크숍 (22.8.17.)

## 〈 포럼 〉

- 포럼22-01 제43회 청소년정책포럼: 기후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22.4.26.)
- 포럼22-02 2022년 제1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 (22.4.20.)
- 포럼22-03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 (22.5.11.)
- 포럼22-04 2022년 제2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정책의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 (22.5.17.)
- 포럼22-05 2022년 제3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참여 정책의 재구조화 (22.6.24.)
- 포럼22-06 2022년 제4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과 과제 (22.7.12.)
- 포럼22-07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2.8.11.)
- 포럼22-08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22.8.12.)
- 포럼22-09 제46회 청소년정책포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개념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 (22.9.2.)
- 포럼22-10 제47차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22.9.21.)
- 포럼22-11 인구소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현장 사례를 말하다」 포럼 (22.10.14.)
- 포럼22-12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22.10.13.)
- 포럼22-13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정책소외계층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22.11.15.)
- 포럼22-14 2022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22.12.2.)

## 〈 콜로키움 〉

- 콜로키움22-01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1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Vietnam (22.6.8.)
- 콜로키움22-02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2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Ethiopia (22.6.14.)
- 콜로키움22-03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 (22.9.6.)

## 〈 기타 자료 집 〉

- 자료22-01 2021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2-02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3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가이드
- 자료22-0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 컨설팅 매뉴얼

자료22-05	2021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사례집
자료22-06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자료22-07-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관리자)
자료22-07-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관리자)
자료22-08-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원)
자료22-08-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원)
자료22-09-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행)
자료22-09-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행)
자료22-10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 자료집
자료22-11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자료22-12	제1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2-13	2022년 대안교육기관 교원 연수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0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0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0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07호)

## 기타 발간물

###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37호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 138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139호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 140호 「메타버스 선거랜드」 구축과 선거교육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분석
- 141호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14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3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144호 10대시기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NYPI Bluenote 통계 >**

- 64호 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65호 장애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 현황과 여건
- 66호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 67호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 방안 연구
- 6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 69호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 70호 디지털 성범죄
- 71호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분석
- 72호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학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 73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본 자료집은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 출품된 제안서를 모아 제작한 자료집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공식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보고 22-일반03-02

---

##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정책제안자료집

---

인 쇄 2022년 12월 23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전화 044)866-3011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70-1 94330  
979-11-5654-367-1 (세트)

연구보고 22-일반03-02

#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정책제안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70-1  
ISBN 979-11-5654-367-1(세트)